기본연구 2012_56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조 현 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 현 서(아주대 스포츠레저학과 대우 조교수)
장 세 길(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김 현 희(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

서 문

몇 년 전부터 복지, 나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화복지, 문화나눔, 그리고 생활문화 공동체 등이 주요한 정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정책에서는 문화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왔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화복지와 문화나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를 맞아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높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문화 동호회 단위의 자원봉사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개인 단위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인 문화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문화 자원봉사는 일회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뿐 아니라 동호회 차원에서 문화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면 자원봉사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문화복지, 문화나눔, 그리고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동호회 단위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 연구 목적은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한 문화 동호회 활동을 타자 지향적인 문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두 가지 활동은 지역 단위에서의 자발적 행위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연결 짓는 정책적 시도가 활발하지 못했음
○ 하지만 문화복지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복지는 정부(중앙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비정부 영역(기업, 단체, 개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
○ 비정부 영역에서 문화복지 실현의 한 가지 방법이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봉사의 활성화임
  - 지금까지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되었지만,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적 활동이 바람직함
  - 문화 동호회 단위에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원봉사 효과가 제고되며, 이것은 문화복지 수행 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문화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임
○ 첫째,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 둘째,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① 어떻게, ②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 셋째, 외국에서는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넷째, 어떻게 해야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질 것인가?
  - 문화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의 조건 추출
  - 정책 방향 설정
  - 정책과제 제안
  - 영역별(정부, 지자체) 역할 도출

나. 연구 범위

○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Ⅰ 유형: 문화 동호회 차원[조직 단위]에서 자원봉사에 참여
- Ⅱ 유형: 문화 동호회 차원[조직 단위]에서 문화 자원봉사에 참여
- Ⅲ 유형: 문화 동호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
- Ⅳ 유형: 문화 동호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문화 자원봉사에 참여

○ 연구에서는 Ⅱ 유형에 한정함
- Ⅰ 유형, Ⅲ 유형은 문화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함
- Ⅳ 유형은 개인 차원의 문화 자원봉사이므로 연구범위를 벗어남

○ 문화 동호회에서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함
- 최근 부각되는 전문 예술인(모임)의 재능나눔은 연구대상이 아님
- 동호회는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비전문가 모임으로 한정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동호회, 자원봉사 개념 및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및 논문
-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활동 실태: 기존 문헌 및 조사 통계 재구성
- 국내외 관련정책 사업 진행: 지자체 및 외국 정부(지자체)의 문헌, 인터넷 자료

○ 지역 현지조사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현황
-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
- 반(半)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심층면접 실시
- 면접 대상자: 문화 동호회 회원, 문화 자원봉사단체 회원, 지역문화 활동가(공공 문화기관 근무자, 문화 매개인력 포함),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3. 문화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의 의미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비교

〈표 1〉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활동 –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활동 –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 – 문화 민주주의와 연관된 활동 – (지역) 공동체 형성	동호회	자원봉사
	자기 지향	타자 지향
	단체 단위	개인 단위 포함
	동호회 규범	수혜자 규범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 포함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자아 실현의 극대화
  –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개인 단위의 활동과 비교하여 자아 실현이 극대화될 수 있음

○ 공동체 문화 형성
  – 개별적인 문화 자원봉사활동과 비교하여 집단 단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동호회의 타자 지향성(공동체성)이 높아짐
  –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생활권역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활동이 연계될 경우 지역 공동체문화 형성에 순기능 담당

○ 나눔문화의 질적 고양
  –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수혜자와 공급자의 교감(交感)을 가져와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가 돌봄(care)에까지 이를 수 있음
  – 더욱이 동호회원들의 집단적 참여에 따라 돌봄의 지속성이 가능함
  – 따라서 나눔문화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문화복지 실현의 새로운 모델 형성
  –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음
  – 일반인의 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기여

4. 문화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활동 분석

가.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동 실태파악

○ 문화 동호회 참여율(3.9%),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1%)을 감안하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 각각을 살펴봄

○ 문화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의 방향: 「문화향수실태조사」 분석

〈표 2〉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연계

	동호회 참여율 높음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높음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연계
연령	20대~50대	10대~20대	중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의 여건 조성 20대 이하 자원봉사자의 동호회 조직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역사회 문화행사(어린이, 노인대상) 참여
성별	여성이 약간 높음	여성이 약간 높음	동호회 지원 시 남성비율 고려
거주 지역	수도권 농촌지역(역사문화유산, 전통예술)	수도권	역사문화유산, 전통예술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 유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 유도
학력	대학재학 이상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층의 자원봉사 유도
직업	전문/관리직		전문/관리직의 문화자본 적극 활용
소득	고소득층	고소득층	고소득층의 자원봉사 유도

나. 중앙정부의 관련정책 분석

○ 문화 동호회 지원, 그리고 문화 자원봉사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지 않았음

○ 개별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음

〈표 3〉 문화 동호회 지원과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화 동호회 지원 정책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공통점	정책 목표	문화복지 지역(마을)공동체성 확보	문화복지 나눔문화의 확산
	정책 수행	문화기반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 연계	문화기반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 연계
차이점	정책 자족성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됨	문화 자원봉사 자체가 정책이 될 수 있음
	정책 기점	1990년대부터 시작됨	2000년대 이후 시작됨

다. 지자체 정책사업 분석

○ 지자체 관련사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음

〈표 4〉 자치단체별 행정 단위 연계 및 주요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서울	경기도	강릉시	군포시
광역-기초 연계	기초 구(區)지역과 연계 없음	도내(道內) 시/군과 연계사업 진행하고자 함	광역과 연계사업이 많지 않음	광역과 연계사업이 많지 않음
주요 사업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시민과 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행사	시설기반 동호회 지원, 마을공동체 육성	문화시설 동호회의 자원봉사 지자체 축제 참여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	문화시설 동호회의 자원봉사 지자체 축제 참여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

○ 광역지자체에서 대도시 지역과 도(道) 지역은 동호회 연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의 수행 주체가 다름

○ 도(道)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실제적 정책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함

라.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관련정책 사업 분석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와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몇 가지 기준을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전라북도 및 성남시 지역사례 비교

연 도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네트워크(전라북도)	사랑방 문화클럽(성남시)
사업시점		2012	2007
추진주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자체 연계		광역지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단위에서 전개	기초지자체 독립적으로 진행 도(道)에서는 약간의 지원
배경 및 목적		전라북도 문화복지중장기계획(2012) 동호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창조도시 성남 기본계획(2006)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추진 현황	동호회	동호회 파악과 네트워크 구축 과정	동호회 실태조사(2006) 발전방안(2006) 개별 동호회 지원(2007) 문화공헌 동호회연합 지원(2008)
	자원봉사	시민 페스티발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에 한정	시민대상 발표회 취약계층 문화나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 중심
주요 동호회		시설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함	개별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함

연 도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네트워크(전라북도)	사랑방 문화클럽(성남시)
지원체계	문화 자원봉사와 관계없음 개별 동호회 지원 금지 간접지원(강사비, 사업비)	문화 공헌을 전제로 지원 동호회 팀 지원 간접지원(사업비, 공간)
자원봉사 인증	별도의 체계없음 기존 인증제도 이용하지 않음	별도의 체계없음 개인이 기존 인증제도 이용
지역 내 협력	자원봉사센터 연계 없음 복지시설 연계 없음	자원봉사센터 연계없음 개별 복지시설과 연계
관련정책과 연계	문화복지, 마을만들기와 직접적인 연계없음	마을만들기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

마. 지역 사례조사의 시사점

○ 첫째,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기초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함

○ 둘째,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는 단기간 내에 활성화되기 어려움
- 곧바로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연계를 지향하기보다는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자체의 활성화가 필요함
-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를 시민대상 발표회에서 취약계층 대상 문화나눔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 지역 내 유관사업과 연계
- 전라북도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사업은 시/군별로 진행되어야 함
- 시(市) 단위 사업에서도 수도권 신도시인 성남시와 전주시의 문화자원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시/군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넷째, 인센티브 제공의 원칙 정립
-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동호회 지원 원칙인 동호회 연합지원, 간접지원, 공간지원 등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함
-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문화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의 기존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다섯째, 동호회원의 자원봉사 인식 제고

○ 여섯째, 전담 인력 및 담당부서의 역할 제고

5. 해외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 동호회를 통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해외정책은 찾기 어려움

○ '문화 동호회 → 문화 자원봉사'라는 순차적이며 단선적인 연결 관계에서 벗어나 문화 동호회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상관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적용 가능한 전략 세 가지

① 문화 자원봉사활동 모집 → 동호회 방식 운영 → 문화 자원봉사 지속

② '문화 동호회 네트워킹 → 문화 자원봉사활동 기회 네트워킹'

③ 거점 중심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 관심 증대 → 자원봉사 증대

6.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가. 정책 목표

○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이 지향하는 바는 '자발적 문화복지의 구현'임

○ 문화복지의 재원과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함

○ 자발성과 조직 단위 문화활동이란 공통점을 지닌 동호회와 자원봉사를 연계하면 문화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음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는 자발성에 근거함
-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는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의 활동으로서 의미를 지님

나. 정책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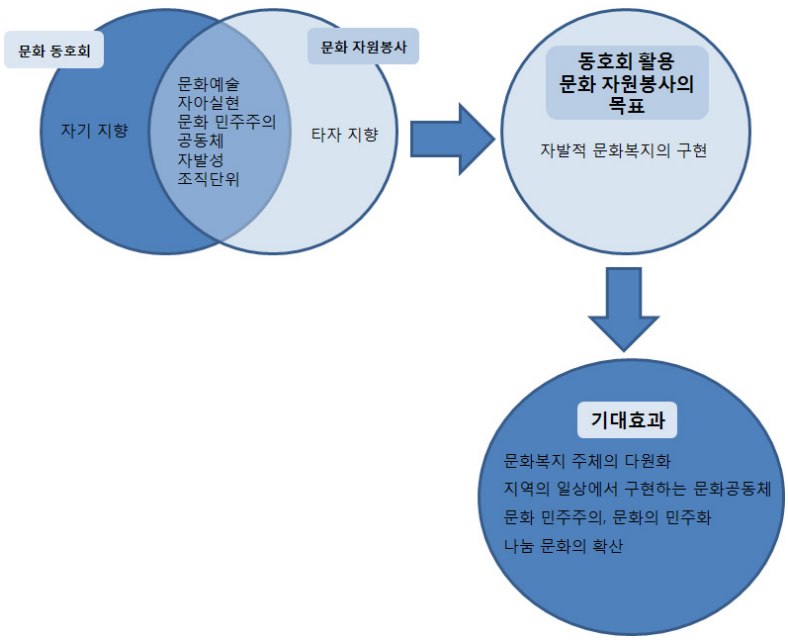
○ 문화복지 예산의 대규모 증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동호회의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봉사 활동은 문화복지 다원화에 기여함

○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는 지역 단위의 조직활동으로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행위임

○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 실현

○ 나눔 문화의 확산

- 문화 동호회원의 자원봉사활동은 기부와 자원봉사가 결합된 중복적 보완관계(Multiplicative behavior, Spill-over) 관계에 가까움
- 따라서 문화 동호회원들의 자원봉사는 계층적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나눔문화의 확산에 긍정적임



[그림 1]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의 목표와 기대효과

다. 정책 추진방향 설정

○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
- 단계적 접근
- 인센티브 제공의 원칙 설정
- 간접 지원의 원칙 설정
- 문화 동호회·자원봉사 참여자 속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단위별 특성화 모델개발
- 문화예술 전문인력과 협력
- 학교—직장 동호회 연계



[그림 2]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

○ 단계적 접근
- 첫째, 동호회와 자원봉사 개별 활동 활성화 이후 연계활동
- 둘째,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발표회)에서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취야계층 대상 나눔)으로 범위 축소
- 셋째, 동호회의 수준별 지원: 숙련 동호회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전개
- 넷째, 자원봉사자의 동호회 구성에서 동호회원의 자원봉사활동으로

○ 인센티브 제공의 원칙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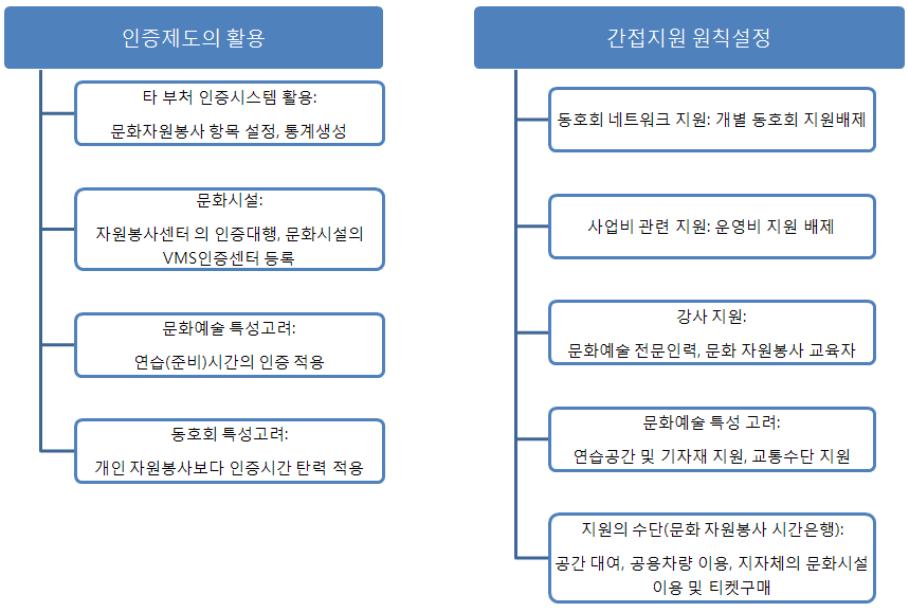
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인증제도의 활용

② 문화 자원봉사통계 별도 관리

③ 문화 자원봉사 인증 활성화: 인증 대행, 문화시설의 VMS 인증 유도
④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시간의 적용: 연습시간까지 포함
⑤ 동호회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시간의 적용: 개인별 봉사보다 인증시간의 탄력적 적용

○ 간접 지원의 원칙 설정
①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에 한정
② 사업비 지원에 한정: 운영경비 지원 불가
③ 강사 지원: 예술 및 문화 자원봉사 전문강사 지원

④ 공간 지원: 단기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야간 및 휴일 개발,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또는 마을단위 공식 공간 1개 제공
⑤ 기자재 및 교통수단 지원: 공용차량을 비치하여 소품 운반 등 편리성 제고
⑥ 자원봉사 시간은행(time bank) 제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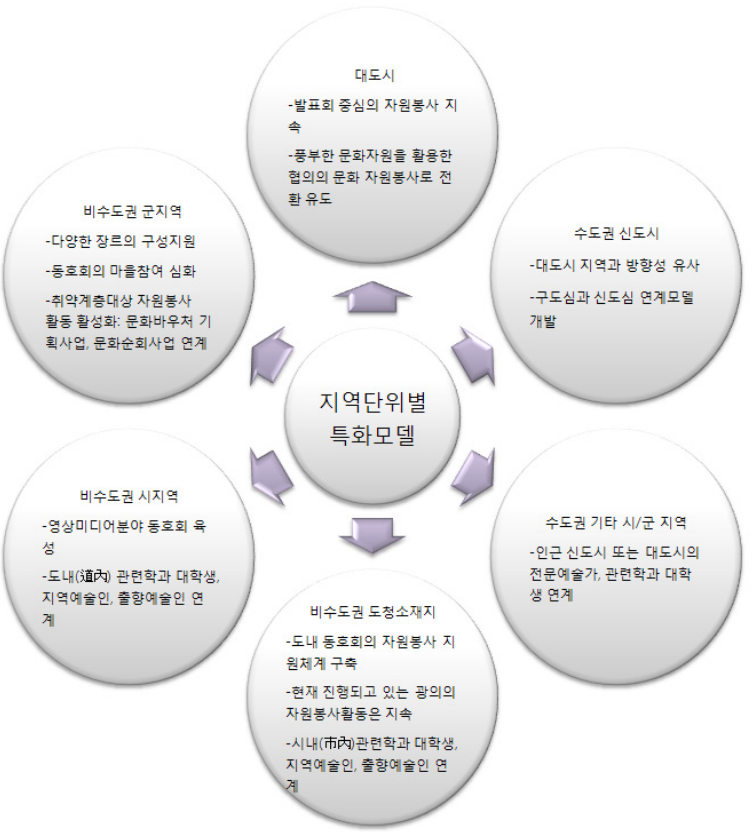


[그림 3]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문화 동호회·자원봉사 참여자 속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① 연령별
-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년층의 동호회 활동을 자원봉사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개발
- 20대 이하 연령층의 비자발적 자원봉사를 동호회로 전환하여 자원봉사의 지속성 유지
-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동호회로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함

② 성별: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③ 문화자본이 많은 계층: 협의의 자원봉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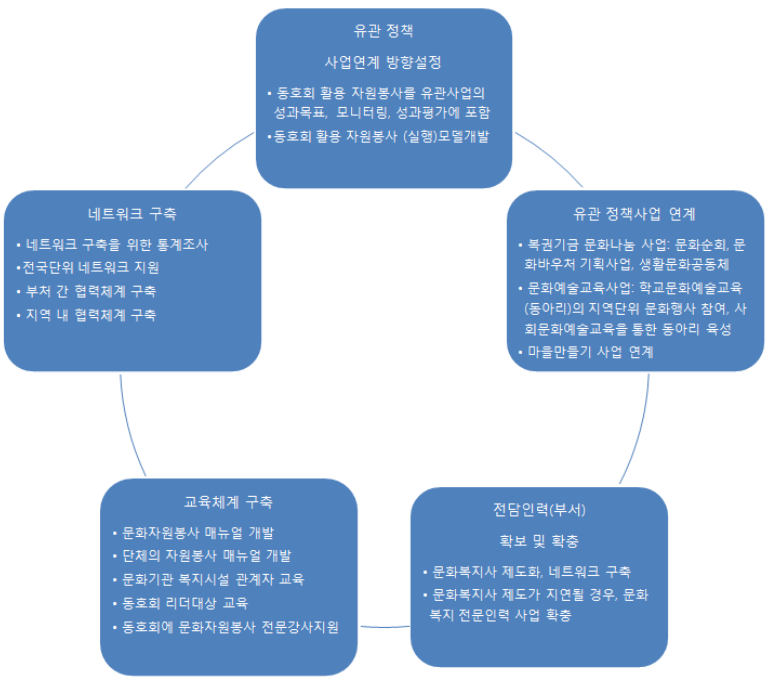
○ 지역 단위별 특성화 모델개발
- 동호회·자원봉사의 활동범위는 생활권역을 넘어서기 어려움
- 생활권역을 넘어서는 동호회와 봉사활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의 활동영역임
- 생활권역은 대도시, 기초 시(市), 기초 군(郡)지역임
- 지역규모별 특성화는 ① 대도시형, ② 수도권 신도시, ③ 수도권 기타 시/군 지역, ④ 비수도권 중규모 시(市) 지역(도청 소재지), ⑤ 비수도권의 소규모 시지역, ⑥ 비수도권의 군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림 4]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개발

7. 추진과제 제안 및 정부의 역할

○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정책사업과 연계방향 설정 및 사업진행
- 전담 인력(부서)의 확보 및 확충
- 교육체계 구축
- 네트워크 구축



[그림 5]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

○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에서는 기초연구통계조사를 토대로 추진방향 설정, 추진 모델개발, 제도화(문화복지사 같은 인력 양성, 협력 및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함
-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방향, 모델, 제도화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해야 함

〈표 6〉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비교

정책과제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사업 연계의 방향설정	ㅇ 단기적으로 유관 정책 공모사업의 성과목표에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키고, 공모단체 선정 기준으로 활용 – 유관 정책사업의 모니터링, 평가기준으로 동호회 참여율, 동호회의 자원봉사 참여율 포함 ㅇ 중장기적으로 동호회 참여 정책사업의 효과성 연구 ㅇ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활동 모델개발 – 지역 단위 모델(대도시, 수도권 신도시, 비수도권 도청소재지, 비수도권 시지역, 군지역)	ㅇ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모델을 근거로 지역별 실행모델 개발(전문인력의 역할임) ㅇ 전문인력이 관련사업에 대한 자세한 실행 보고서 작성
유관 문화정책과 연계	ㅇ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연계 – 소외계층 문화순회에 동호회 참여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에 동호회 참여 ㅇ 문화예술교육사업 연계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동아리가 지역 단위 문화행사 참여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동호회 육성)	ㅇ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연계 – ‘찾아가는 서비스’는 동호회에서 담당 ㅇ 마을만들기사업 연계 –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동호회 참여 제시
전담 인력(부서)의 확보 및 확충	ㅇ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ㅇ 문화복지사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문화복지 전문인력확대 ㅇ 매개인력 관련 교육실시	ㅇ 문화복지사 제도화되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ㅇ 문화복지사 제도가 지연되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특정문화기관이 아닌 문화재단, NGO에서 근무 ㅇ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문화예술관련 별도의 기관 지정
문화 자원봉사관련 교육체계 마련	ㅇ 문화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개인이 아닌 단체(동호회)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문화기관(시설),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ㅇ 동호회 리더대상 교육 실시 ㅇ 동호회 네트워크에 문화 자원봉사 전문강사 지원
네트워크 구축	ㅇ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계조사 ㅇ 표준화된 등록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ㅇ 전국 단위 네트워크 지원 – 네트워크에서는 영국사례처럼 매뉴얼 개발, 정보제공 ㅇ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인증제도 관련하여 문화 자원봉사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여 관련 통계생산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 마련	ㅇ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호회, 네트워크 현황파악 – 지역별로 가입동호회 자격은 다를 수 있음 – 네트워크의 지자체 사업 참여여건 제공(공모사업 진행 시, 네트워크 연계) ㅇ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정책과제	중앙정부	지자체
		– 문화시설과 협력 –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가입유도 – 시설동호회의 독자성 보장 – 자원봉사센터 협력 – 복지시설 협력(동호회와 시설의 일대일 결연, 복지시설의 공간활용)

○ 일반적인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에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음

– 문화 자원봉사는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습'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인 단위의 봉사활동에 비하여 단체(동호회)의 자원봉사는 인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원의 원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무대가성(無對價性)을 존중하지만, 문화 자원봉사를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기자재, 강사비를 지원하고, 기자재 운반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7〉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	중앙정부	지자체
기획	ㅇ 기초연구 ㅇ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연구	ㅇ 지자체별 실행 모델개발
네트워크	ㅇ 동호회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지원 –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실태조사 지원	ㅇ 동호회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문화시설,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과 네트워크 구축
모집 및 배치		ㅇ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활용 ㅇ 문화시설/자원봉사센터/복지시설과 연계
교육 훈련	ㅇ 문화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개인이 아닌 단체(동호회)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문화기관(시설),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ㅇ 동호회 리더대상 교육 실시 ㅇ 동호회 네트워크에 문화 자원봉사 전문강사 지원
인정 및 보상	ㅇ 자원봉사센터, VMS 인증체계 활용, 관련 통계자료 공유 ㅇ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습시간 등을 자원봉사 시간에 포함 ㅇ 단체의 자원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참여보다 탄력적 시간인증 ㅇ 문화 자원봉사활동 우수 동호회 수상(受賞)	ㅇ 자원봉사센터 등록대행 ㅇ 공간, 기자재, 강사비, 교통수단 지원 ㅇ 지자체 문화행사 무료초대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과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3절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의 연계 필요성 ·····8
1. 문화 동호회의 의미 ·····8
2.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12
3.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의미 ·····18

제2장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 참여 실태 분석 ·····21

제1절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 활동 실태 ·····23
1. 문화 동호회 참여 ·····23
2.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 ·····26

제2절 시사점: 참여자 속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27
1. 연령별: 중년, 노년, 20대 이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27
2. 성별: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27
3. 지역별: 농어촌과 수도권 특화 프로그램 개발 ·····28
4. 학력, 소득, 직업별: 문화자본이 많은 계층의 자원봉사 유도 ·28

제3장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 분석 ·····29

제1절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31
1. 관련 법령 ·····31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32
3. 타 부처의 정책사업 ·····39

제2절 지자체의 관련정책 사업사례 ·····50
1. 광역지자체 ·····50

2. 기초지자체 ·····55

제3절 정책사업 분석 및 시사점 ·····60
1.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특성 ·····60
2.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시사점 ·····65
3. 지자체 정책사업의 특성 ·····67
4. 지자체 정책사업의 시사점 ·····69

제4장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관련 정책사업 ·····71

제1절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73
1.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73
2. 유관정책과의 연관성 ·····79
3. 사업성과 ·····82
4. 개별 문화시설의 동호회와 자원봉사 ·····84
5. 참여자 의견 ·····85

제2절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94
1. 사랑방문화클럽 ·····94
2. 사랑방문화클럽과 유관정책 ·····97
3. 사업성과 ·····100
4. 참여자 의견 ·····104

제3절 지역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111
1. 전라북도 정책사업의 특성 ·····111
2. 성남시 정책사업의 특성 ·····113
3.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정책사업 비교 ·····115
4. 지역사례조사의 시사점 ·····116

제5장 해외 사례 ·····119

제1절 일본의 문화 자원봉사 ·····121
1. 문화 자원봉사 현황 ·····121
2. 문화 자원봉사 관련 정책 ·····122
3. 문화 자원봉사활동 사례 ·····124

제2절 영국의 아마추어 예술단체 ·····128
1.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 현황 ·····128
2. 관련 정책 및 사례 ·····130
제3절 미국의 문화 자원봉사 ·····133
1. 문화 자원봉사 현황 ·····133
2. 문화 자원봉사 유형과 유형별 사례 ·····134
3. 문화시설 중심의 시민참여 ·····139
제4절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141
1. 국가별 특성 ·····141
2. 국내 적용 가능성 ·····143

제6장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 제언 ·145

제1절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147
1. 정책 목표의 설정 ·····147
2. 정책 추진방향 설정 ·····150
제2절 정책과제 제안 ·····168
1. 유관 정책사업과 연계방향 설정 ·····168
2. 유관 정책과 연계사업 진행 ·····171
3. 전담 인력(부서)의 확보 및 확충 ·····175
4. 교육체계 구축 ·····176
5. 네트워크 구축 ·····178
제3절 정부 단위별 역할 및 관리체계 ·····183
1.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단위별 역할 ·····183
2. 문화동호회 활용 자원봉사의 관리체계 ·····184

참고문헌 ·····187

ABSTRACT ·····191

표 차례

〈표 1-1〉 동호회의 특성과 기능 ·····9
〈표 1-2〉 문화 동호회의 기능 ·····10
〈표 1-3〉 일반 동호회와 문화 동호회의 기능 비교 ·····11
〈표 1-4〉 자원봉사활동과 유사 개념의 비교 ·····13
〈표 1-5〉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14
〈표 1-6〉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15
〈표 1-7〉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16
〈표 1-8〉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비교 ·····17
〈표 1-9〉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비교 ·····18
〈표 2-1〉 문화 동호회 참여율 ·····23
〈표 2-2〉 문화 동호회 참여 의향 ·····26
〈표 2-3〉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문화향수실태조사 ·····26
〈표 2-4〉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연계 ·····28
〈표 3-1〉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41
〈표 3-2〉 자원봉사센터의 보상 유형 ·····42
〈표 3-3〉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 ·····43
〈표 3-4〉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활동 ·····43
〈표 3-5〉 자원봉사센터의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비율 ·····44
〈표 3-6〉 사회복지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유형 ·····46
〈표 3-7〉 자원봉사센터와 VMS의 인센티브 비교 ·····47
〈표 3-8〉 사회복지 봉사활동 참여자(연령별) ·····47
〈표 3-9〉 사회복지 봉사활동 참여자(성별) ·····48
〈표 3-10〉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유형 ·····48
〈표 3-11〉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 2012년 정기 공모사업 ·····50
〈표 3-12〉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 2012년 특성화 공모사업 ·····51
〈표 3-13〉 문화나눔 행복서울의 사업내용 ·····52
〈표 3-14〉 강릉문화원 소속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56
〈표 3-15〉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 ·····59
〈표 3-16〉 군포시 축제 자원봉사활동 현황 ·····59
〈표 3-17〉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호회 관련 유관정책사업의 특징 ·····61

〈표 3-18〉 문화 동호회 지원과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63
〈표 3-19〉 자원봉사자의 성별/연령별 비중: 자원봉사센터, VMS ·····65
〈표 3-20〉 자치단체별 행정 단위 연계 및 주요 사업 ·····69
〈표 4-1〉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가입 동호회 및 동호회원수 ····75
〈표 4-2〉 전라북도 네트워크 관련예산 ·····75
〈표 4-3〉 전라북도 시/군별 네트워크 예산 ·····76
〈표 4-4〉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의 네트워크 현황 비교 ·····77
〈표 4-5〉 전라북도 문화정책과 문화 자원봉사 ·····82
〈표 4-6〉 사랑방문화클럽사업 예산 추이 ·····95
〈표 4-7〉 사랑방문화클럽사업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사업 비교 ·····97
〈표 4-8〉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추진 실적 ·····100
〈표 4-9〉 사랑방문화클럽사업 중 문화공헌 활동 지원예산 ·····100
〈표 4-10〉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클럽 현황 ·····101
〈표 4-11〉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클럽 장르별 현황 ·····101
〈표 4-12〉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행사 장르별 현황 ·····101
〈표 4-13〉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대상별 행사 현황 ·····102
〈표 4-14〉 사랑방문화클럽 문화 자원봉사 현황 ·····102
〈표 4-15〉 전라북도와 성남시 사례 비교 ·····116
〈표 5-1〉 일본의 자원봉사 참여율 및 일수(日數) ·····121
〈표 5-2〉 미국의 문화자원봉사 유형 비교 ·····138
〈표 5-3〉 해외사례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143
〈표 6-1〉 문화 자원봉사 인증제도 운영 방법 비교 ·····156
〈표 6-2〉 지역 단위별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 현황과 여건 ·····165
〈표 6-3〉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비교 ·····183
〈표 6-4〉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구축 ·····185

그림 차례

[그림 1-1] 나눔의 구성: 기부와 자원봉사 ·····14
[그림 2-1] 문화 동호회 참여 걸림돌 ·····25
[그림 3-1] 자원봉사센터의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비율 ·····44
[그림 3-2]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추진체계 ·····46
[그림 4-1] 전라북도 문화복지 추진전략 ·····73
[그림 4-2]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조직 ·····74
[그림 4-3]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참여 활동 ·····100
[그림 5-1] 영국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 자원봉사 참여율 ·····130
[그림 6-1]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의 목표와 기대효과 ·····148
[그림 6-2]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의 정책방향 ·····150
[그림 6-3]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의 단계적 접근 ·····151
[그림 6-4]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155
[그림 6-5]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속성별 프로그램 개발 ·161
[그림 6-6]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개발 ··163
[그림 6-7]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 ·····168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이 연구는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임[1)]

○ 두 가지 활동은 지역 단위에서의 자발적 행위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연결 짓는 정책적 시도가 활발하지 못했음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 각각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활성화 방안이 정책 대상이었음
- 2012년 기준으로 문화 동호회 참여 경험률은 3.9%, 현재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은 2.1%에 불과함[2)]
- 활동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움
- 문화 동호회 활동이 자기 지향적이라면,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타자 지향적임

○ 하지만 문화복지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복지는 정부(중앙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비정부 영역(기업, 단체, 개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

○ 비정부 영역에서 문화복지 실현의 한 가지 방법이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봉사의 활성화임

- 지금까지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되었지만,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적 활동이 바람직함
- 문화 동호회 단위에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3)] 자원봉사 효과가 제

1)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문화'를 반복한 것은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에는 비문화적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미술 동호회가 어린이 교통지도를 실시한다면 이것은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아님. 하지만 이 같은 어휘 반복이 가독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맥상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분명할 때는 동호회, 자원봉사로 쓰기도 함

2) 조사 시점에서 현재가 아닌 과거의 문화 자원봉사 경험률은 3.8%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참조

3)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의 동호회 참여자(196명, 전체의 3.9%)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49.4%로, 동호회 비참여자(4,878명)의 자원봉사 참여율 4.1%와 비교하여 매우 높음. 하지만 이것이 단체(동호회)의 자원봉사인지, 개인의 자원봉사인지를 확인할 수 없음

고되며, 이것은 문화복지 수행 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문화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연구 목적은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한 문화 동호회 활동을 타자 지향적인 문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두 가지 활동의 연계를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춤
- 1차적으로는 문화 동호회를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중점을 두지만,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동호회 활동을 강화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임

○ 첫째,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유사 개념과 비교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효과) 분석
-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의미 추출

○ 둘째,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① 어떻게, ②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봄
-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지역 사례를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
- 지역 단위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례 분석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크워크'를 운영 중인 전라북도(특히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사례 분석
  · 문화 동호회 지원의 전제(前提)가 지역사회 공헌인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사례 분석

○ 셋째, 외국에서는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지역 내 마을만들기 운동이 활발한 일본 사례 정리
- 커뮤니티 아트를 강조하는 영국 사례 정리
-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미국 사례 정리
-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도출

○ 넷째, 어떻게 해야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질 것인가?
- 문화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의 조건 추출
- 정책 방향 설정
- 정책과제 제안
- 영역별(정부, 지자체) 역할 도출

나. 연구 범위

○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Ⅰ 유형: 문화 동호회 차원[조직 단위]에서 자원봉사에 참여
- Ⅱ 유형: 문화 동호회 차원[조직 단위]에서 문화 자원봉사에 참여
- Ⅲ 유형: 문화 동호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
- Ⅳ 유형: 문화 동호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문화 자원봉사에 참여

○ 연구에서는 Ⅱ 유형에 한정함
- Ⅰ 유형, Ⅲ 유형은 문화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함
- Ⅳ 유형은 개인 차원의 문화 자원봉사이므로 연구범위를 벗어남

○ 문화 동호회에서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함
- 최근 부각되는 전문 예술인(모임)의 재능나눔[4]은 연구대상이 아님
- 동호회는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비전문가 모임으로 한정함

2.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동호회, 자원봉사 개념 및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및 논문
-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활동 실태: 기존 문헌 및 조사 통계 재구성
- 국내외 관련정책 사업 진행: 지자체 및 외국 정부(지자체)의 문헌, 인터넷 자료

○ 지역 현지조사
- 반(半)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심층면접 실시
- 면접 대상자: 문화 동호회 회원, 문화 자원봉사단체 회원, 지역문화 활동가(공공 문화기관 근무자, 문화 매개인력 포함),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 주요 질문
  · 동호회원: 동호회원의 구성(성, 연령별), 동호회 활동 일반, 동호회 활동의 어려움, 동호회 활동의 의미,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연계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 인증 및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
  · 문화 자원봉사단체 회원: 구성원의 속성, 자원봉사활동 참여계기,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인증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 봉사활동 지속을 위한 여건
  · 지역문화정책 및 현장 인력(문화재단 직원, 매개인력): 시설 내 동호회 또

4) 문화 예술인의 재능나눔은 박소현 (2011),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조

는 자원봉사 참여자의 속성, 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과정,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의 어려운 점, 인증 및 보상의 현실과 의견

·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자원봉사센터 내의 문화 자원봉사 비중, 문화 자원봉사와 일반 자원봉사의 차이, 관내 문화관련 기관과의 연계, 문화 자원봉사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제3절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의 연계 필요성

1. 문화 동호회의 의미

○ 문화 동호회는 문화를 매개로 한 동호회이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동호회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나서, 문화 동호회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함

가. 동호회의 개념과 기능

1) 동호회의 개념

○ 동호회의 개념
-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 동호회 활동의 의미
- 개인이 취미를 공유하는 규율(범)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료 회원들과 상호작용하여 자아 실현과 동호회 내부의 공동체성을 획득하는 행위임

2) 동호회 활동의 기능

○ 동호회는 개인, 조직, 사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첫 번째는 개인적 속성으로, 가입과 활동은 개인의 판단과 자발성에 따름(자발성)
- 두 번째는 조직적 속성으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의 규칙을 지니고 있으며 조직의 속성상 지속성을 추구함(규율성과 지속성)
- 세 번째는 개인적 속성과 조직적 속성이 겹치는 부분으로, 취미의 동질성(동호[同好])과 회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함(동질성과 상호 작용)

○ 이 같은 동호회의 속성에 따라 동호회의 기능을 추출할 수 있음
- 첫째, 자발적 개인의 가입과 활동이므로 자기 목표의 완성(자아 실현)
- 둘째, 조직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내부 규범의 준수와 내부 공동체 실현(규범성과 공동체성)
- 셋째, 자아 실현과 공동체성의 상호 작용
  · 공동체성은 공간(지역) 단위가 아니라 동호회 공동체를 의미함
  · 동호회가 폐쇄적이라면 동호회 공동체에 한정되지만, 개방적이라면 부분

적으로 활동지역의 공동체성 확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음

〈표 1-1〉 동호회의 특성과 기능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조직적 특성
가입과 활동의 자발성	→ → →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개인적 취미(好)를 같이(同) 함	← ← ←	조직내부의 규칙(범), 지속성
개인적 기능		사회적 기능		조직적 기능
자아 실현		자아 실현과 동호회 공동체성의 상호작용		내부규범의 형성과 준수 동호회 공동체성

나. 문화 동호회의 개념과 기능

1) 문화 동호회의 개념

○ 동호회 가운데 공유(公有)하는 취미가 문화예술인 것을 문화 동호회라고 말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준하여 설정하는 게 현실적임
-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시설을 포괄하되, 이 가운데 건축과 어문은 제외하고,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파악하는 문화유산을 포함
-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문화 동호회를 10개 분야—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가요·연예, 역사문화유산—로 설정함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동법 제2조 1항 1호)
  · 문화산업: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 제작 · 공연 · 전시 ·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동법 제2조 1항 2호)
  · 문화시설: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복합 종합시설 등(동법 제2조 1항 3호)

○ 문화 동호회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역사문화유산을 취미로 하는 자발적인 공동체임

- 다만 문화시설의 경우, 취미의 대상이 문화시설 자체가 아니라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활동임

○ 전문 예술인들의 모임은 동호회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로 2012년 기준으로 전문 예술인의 친목 모임 가입비율은 46.3%[5]

5)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참조

- 최근 예술인의 재능나눔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연구에서 예술인 (모임)은 동호회 범주에서 제외함

2) 문화 동호회의 기능

○ 문화 동호회가 참여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음
- 문화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지속 요인을 네 가지—① 효율적인 여가활동 영위, ② 긍정적 삶의 변화, ③ 지역사회 기여, ④ 생산적 가치 발현—로 정리한 연구가 있음[6)]

○ 문화 동호회의 기능은, 앞서 제시한 ① 일반 동호회의 기능에 ② 문화예술의 기능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는 게 타당함

○ 문화예술의 기능은 리차드 라스킨이 제시한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7)]
① 행위 충족: 창조의 정신, 참여와 감식안
② 자기정립과 자기현시: 자신의 드러냄
③ 대리적 소원 성취: 타자 지향성
④ 탐구와 모색: 호기심, 기술과 예술의 융합
⑤ 껴안기와 내려놓기: 저항과 구원
⑥ 통합과 재생: 내면의 통합과 평화
⑦ 방향설정의 기능: 자기 정체성
⑧ 거시 사회적 기능: 공동체 의식, 사회질서, 사회모순의 안전판, 사회변화의 촉매
- 문화예술의 역할(기능)에서 앞의 일곱 가지는 개인 단위(수준)이고, 여덟 번째인 거시 사회적 기능이 사회 단위임
- 개인 단위의 기능은 자아 실현(자기 정체성)으로, 사회 단위의 기능은 공동체 의식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 동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2〉 문화 동호회의 기능

단위별	기능
개인	자아 실현의 확대[⑦] 호기심에 기반한[④], 창조적 문화 행위를 함으로써[①], 저항과 구원을 통해[⑤] 자기의 내면을 통합하고[⑥] 타자 지향적인[③] 자기 정립과 드러냄[②]
사회	공동체 의식의 내면화[⑧]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동시에 변화를 촉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체 지향성

6) 윤소영(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3~81쪽
7) 1986년 리차드 라스킨이 덴마크의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박성봉이 재정리한 것임. 박성봉(2011). 「멀티미디어 시대 대중예술과 예술무정부주의」(서울: 일빛), 360쪽

○ 문화 동호회의 기능—자아 실현(자기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은 문화예술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른 점이 있다면 동호회란 조직을 통해서 이 같은 기능이 확대되는 데 있음
- 문화 동호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별 차원의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조직의 논리에 따르고 여기에서 규범성과 규칙성이 증대함

○ 문화 동호회의 기능은 일반적인 동호회의 기능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공통점은 문화 동호회도 일반 동호회와 같이 자아 실현의 매개물이라는 점임
- 차이점은 문화 동호회는 창조적 행위를 한다는 점, 타자 지향적인 자신의 드러냄(보여주기)에서 찾을 수 있음
- 자신의 창조적 행위를 드러냄(보여주기)은 타자와의 공감(共感)을 전제로 함
- 공감(共感)과 드러냄은 1차적으로는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2차적으로는 동호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조직을 넘어선 공동체성을 지향하게 됨
- 따라서 문화 동호회는 일반 동호회와 달리 자체 조직(동호회)을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함

〈표 1-3〉 일반 동호회와 문화 동호회의 기능 비교

	일반 동호회	문화 동호회
공통점	자아 실현의 매개물	자아 실현의 매개물
차이점	행위의 공감 조직(동호회) 단위 공동체성	창조적 행위의 공감과 드러냄 조직 단위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성

3) 문화 동호회와 문화복지

○ 문화복지의 개인적 차원과 연관됨
- 문화복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감수성 함양,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화적 접근의 형평성 확보란 의미와 기능을 가짐
  · "문화복지란 모든 국민이 문화적 감수성을 보다 좋고 높은 수준으로 갖게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8)]
  · "[문화복지는] 문화 감수성 함양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적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9)]

8) 이중한·정갑영(2003), 「국민 창의력을 위한 문화봉사」(서울: 현암사) 133쪽
9)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쪽

-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동호회원들과 공유하는 행위는 감수성 개발을 위한 주요한 활동이므로 문화복지의 개인적 차원과 연관됨

○ 하지만 문화복지의 사회적 차원과는 연관성이 낮음
- 문화 동호회 자체가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지는 않음
- 다만 문화 동호회에 정책적 개입(지원)이 시도될 경우에는 접근성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문화복지를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라고 한다면, 문화 동호회는 전형적인 문화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임

2.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가.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기능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 자원봉사활동(volunteerism)의 정의
-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 보듯이 타자(他者)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임
-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1항)
-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돕기 위해 시간, 에너지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10]
- "다른 사람, 집단, 조직의 혜택을 위하여 자유로이 시간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11]
-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적인 보상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12]

○ 자원봉사활동과 유사 개념
- 자원봉사활동의 유사 개념으로는 나눔, 돌봄, 도움, 자원 활동 등이 있음
- 나눔(philanthropy, charity): 금전적 기부(기부, 화폐적 기여행위)와 시간적 기부행위(자원봉사, 자선적 노동공급, 자발적 노동기여)를 포괄함[13]

---

10) 이중한·정갑영, 위의 책, 204쪽에서 다시 옮김. Kipps의 개념임
11) 조명덕(2011), "미국의 자원봉사 참여 스타일의 변화," 「현상과인식」 2011년 겨울, 64쪽
12) 영국 자원봉사센터의 개념으로, 류기형 외(2012), 「자원봉사론」(파주: 양서원), 23쪽에서 다시 옮김. 원저는 Sheard, J(1995), From Lady Bountiful to Active Citizen, Justin Davis Smith, Colin Rochester & Rodney Hedley, An Introduction To The Volunatry Sector, Routledge, 115쪽임

- 전문 자원봉사: 자신의 기능 기반(skill-based) 또는 기능 공유(skill sharing)의 타자적 행위이며, 직업과 직접 연관된 프로보노와, 직업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능나눔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부(donation): 타자를 지향한 무대가성의 금전제공
- 돌봄(care):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간의 대면적 감정교류[14]
- 도움(helping): 비동격, 불평등이고 위계서열적[15]
- 자원적 활동(voluntary action):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의무 이상의 자발적 행동"[16]

〈표 1-4〉 자원봉사활동과 유사 개념의 비교

어휘		개념 및 관계
나눔		기부(금전적 기여)+비금전적 기여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나눔활동의 하나임
기부		대가(對價)없는 타자지향적 금전 제공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나눔활동을 구성함
자원봉사활동		타자 지향적 시간, 노력, 재능의 제공 행위 도움과 돌봄의 혼재함
전문 자원봉사	프로보노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업(재능)기반의 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	프로보노와 비교하여 직업기반성이 약하지만 전문적인 기능을 통한 나눔행위
도움		제공자와 수혜자의 명확한 구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이나 기간과 비교해보면, 일방향성과 단기성
돌봄		대면적 감정교류에 따른 제공 공적관계와 사적(私的)관계 양자 모두에 사용됨 자원봉사활동의 공공성에 비하여 공공성이 다소 약하지만 감정교류는 자원봉사의 지향점이기도 함
자원활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사회운동과 연결됨 자원봉사활동과 비교해보면 운동 지향적인 성격이 강함 사회운동의 결과 사회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은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타자 지향적인·사사롭지 않은(공공의) 행위이며 그 결과 사회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13) 박세경(2010), "미국 국가봉사단 AmeriCorps의 활동 현황," 「보건복지포럼」 2010년 11월, 90쪽
14) 조명덕, 위의 글, 64쪽
15) 김경동(2012), 「자발적 복지사회: 미래지향적 자원봉사와 나눔의 사회학」(홍천: 아르케), 123쪽
16) 이중한·정갑영, 위의 책, 204쪽에서 다시 옮김. Kipps의 개념임



[그림 1-1] 나눔의 구성: 기부와 자원봉사

2)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 여러 논자들이 제시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5〉 자원봉사활동의 특징[17]

구분	특성
양창삼(1997: 19-28)	이타성, 자발성, 무보수성, 자아 실현성, 조직성, 교육성, 지속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공공성
일본 오사카 자원봉사협회(1993: 30-32)	자발성, 복지성, 무급성, 계속성
일레이(1990: 7-12)	이타주의, 헌신, 자유의지, 학습, 무급성, 조직, 심리적 보상, 희생

○ 이 같은 특성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이타주의: 타자 지향적 행위
- 자발성: 스스로 결정한 행위
- 무보수성: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행위
- 조직성 및 지속성: 봉사자 개인-피봉사자 개인의 관계가 아니며, 개인 대(對) 개인의 활동일지라도 매개체(단체, 기관)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음
-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이타주의에 근거한 자발적 행위로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으며, 지속되는 성향이 있음

17) 류기형 외, 위의 책, 27-30쪽

○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또는 효과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1-6〉 자원봉사활동의 기능[18]

구분	효과와 기능
개인적 효과	ⓐ 심리적 기능: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임파워먼트, 자아정체감, 자기 효능감, 행복감
	ⓑ 신체적 기능: 면역체계 활성화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 및 회복력 증가
사회적 효과	ⓒ 사회적 기능: 개인, 조직, 사회에 긍정적 행동 유발(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족은 결속력,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가치체계 공유, 역할 유연성이 늘어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제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유도
	ⓓ 경제적 기능: 2005년 기준으로 금전적 가치가 약 3조 1,710억 원에 달함

○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19]
- 개인적 효과
  ① 개인을 위한 공리적(수단적) 이익: 탈(脫)일상의 변화, 취미·특기의 여가 선용, 가족동료와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신기술 습득 및 기술 활용, 정신·신체적 도움, 주위의 인정, 인맥 형성
  ② 개인의 내면적 혜택: 개인적 소중한 경험(존재와 인생의 의미, 사회참여와 자아의미, 사회관계 형성, 지역사회 이해, 보람과 자긍심), 사회 공헌(사회와 지역사회 공헌, 사회에 대한 책임이행)
- 사회적 효과
  ① 자원봉사 수혜자의 변화: 수혜 자체가 혜택이며, 수혜자의 접촉 기회 증가, 돈독한 인간 관계 형성,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
  ② 자원봉사 조직체의 변화: 조직의 역량 강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③ 공동체에 대한 효과: 공동체 형성(사회 결속, 사회자본 증대, 범죄율 저하, 건강 증진, 학력 신장, 삶의 만족도 상승, 전반적 복지 증대)
  ④ 일반적 효과: 사회적 개발에 기여, 공동체성 내지 공동체 정신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사회적 포용 장려,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
- 자원봉사활동은 결국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기능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지님

18) 류기형 외, 위의 책, 36~41쪽의 요약임. 이 책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경제, 사회, 심리, 신체적인 측면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이를 다시 개인적 측면(심리, 신체), 사회적 측면(사회, 경제)로 분류한 것임

19) 김경동, 위의 책, 140~148쪽의 요약임

-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수혜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인 것처럼, 개인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역시 쌍방향 또는 선순환 구조임

나.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기능

1)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 자원봉사활동 가운데, 활동의 내용이 문화예술, 또는 활동의 공간이 문화시설인 것이 문화 자원봉사활동임
- 문화예술의 범위는 문화 동호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 따라서 문화예술·문화산업 가운데 건축과 어문을 제외하고 문화유산이 포함된 것을 활동 내용을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이 문화 자원봉사활동임

○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무보수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 둘째,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는 행위(문화예술 재능나눔)

2)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은 일반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에 문화예술의 기능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는 게 타당함

○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문화적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문화에 기반한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임

○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문화'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공감(共感)을 추구함에 따라 수혜자와 피수혜자의 교감(交感)이 강하여 돌봄(care)에까지 이름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7〉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단위별	기능
개인	자아 실현의 확대 개인의 내면혜택(사회 공헌과 자아 의미 찾기)은 물론 공리적 이익(정신·신체적 도움, 관계형성)의 산출
사회	지역 공동체성의 확보, 수혜자와 피수혜자의 교감(交感) 참여자, 수혜자, 조직체의 긍정적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성의 확대

○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수혜자와 피수혜자의 교감(交感)이 많다는 것임
- 일반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제공자와 수혜자의 구분)과 돌봄(제공자와 수혜자의 감정교류)이 혼재되어 있음
- 하지만 문화가 공감(共感)이기 때문에,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제공자와 수혜자의 공적·사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도움에서 돌봄으로 이행되는 과정임

〈표 1-8〉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비교

	일반 자원봉사활동	문화 자원봉사활동
공통점	자아 실현, 지역 공동체 형성	자아 실현, 지역 공동체 형성
차이점	도움과 돌봄의 혼재	문화적 교감을 통한 돌봄

3) 문화 자원봉사활동과 문화복지

○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문화복지의 한 축을 형성함
- 문화복지의 사회적 측면(문화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함

○ 민간참여의 문화복지 모델의 정립
- 문화복지의 주체는 1차적으로는 공공 영역 특히 지자체이지만, 반드시 공공 영역에 한정될 필요는 없음
  · 문화복지 관련 공공 재원의 우선성이 사회복지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원의 대폭적 증가는 어려움
  · 공공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문화복지는 전달체계가 사회복지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행에는 민간의 참여도가 높음
  · 이 같은 현실적인 측면 이외에도 문화복지는 문화의 속성—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상호작용이 중요함—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효과적임
- 따라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참여형 문화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임

○ 문화복지를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라고 한다면,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양자 모두와 관련됨
-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자와 수혜자가 함께 하는 활동(돌봄)이므로 문화 민주주의와 관련됨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상당한 정도의 수준을 갖춘 것이라면 고급문화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의 민주화와도 연관됨

3.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의미

가.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 비교

○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비교가 필요함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활동
- 둘째,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활동
- 셋째,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
- 넷째, 문화 민주주의와 연관된 활동
- 다섯째, (지역) 사회 공동체 지향의 활동
  · 문화 동호회는 명시적으로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공동체성을 낳음
  · 반면에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지역 사회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반면에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 동호회는 자기 지향적이지만,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타자 지향적임
- 둘째, 문화 동호회는 단체 활동이지만,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반드시 단체 활동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개인—개인의 관계도 가능함)
- 셋째, 문화 동호회는 자기 조직의 공동체성을 우선으로 하여 조직의 규범(규칙)에 따르지만,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상대적으로 수혜자[단체]와 매개 조직[기관]의 규범(규칙)에 따름
- 넷째, 문화 동호회는 문화 민주주의에 한정되지만,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문화 민주주의뿐 아니라 문화의 민주화와도 연관됨

〈표 1-9〉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활동 –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활동 –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 – 문화 민주주의와 연관된 활동 – (지역) 공동체 형성	동호회	자원봉사
	자기 지향	타자 지향
	단체 단위	개인 단위 포함
	동호회 규범	수혜자 규범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 포함

나. 문화 동호회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자아 실현의 극대화
-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개인 단위의 활동과 비교하여 자아 실현이 극대화될 수 있음
-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을 1차적으로는 동호회원들과 교류하고, 2차적으로는 타자와 교감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의 자기 충족성이 높아짐

○ 공동체 문화 형성
- 개별적인 문화 자원봉사활동과 비교하여 집단 단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동호회의 타자 지향성(공동체성)이 높아짐
-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호회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서는 동호회 내부에서 동의와 지지가 확보되어야 함
- 동호회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 자체가 동호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킴
-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생활권역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활동이 연계될 경우 지역 공동체문화 형성에 순기능 담당

○ 나눔문화의 질적 고양
-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수혜자와 공급자의 교감(交感)을 가져와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가 돌봄(care)에까지 이를 수 있음
- 더욱이 동호회원들의 집단적 참여에 따라 돌봄의 지속성이 가능함
- 따라서 나눔문화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문화복지 실현의 새로운 모델 형성
-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음
- 일반인의 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기여

제2장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 참여 실태 분석

제1절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 활동 실태

○ 앞서 살펴본 대로, 문화 동호회 참여율(3.9%),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1%)을 감안하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 각각을 살펴봄

1. 문화 동호회 참여

가. 문화 동호회 참여율

○ 연간 문화 동호회 참여율은 4% 미만임
- 장르별로는 상대적으로 문학, 영화, 미술, 가요/연예 동호회 참여율이 높은 편임
- 하지만 동호회 참여율 자체가 낮아서 장르별 참여율은 조사기준 연도에 따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표 2-1〉 문화 동호회 참여율

참여 동호회	2006년 조사	2008년 조사	2010년 조사	2012년 조사
전체	3.3%	2.9%	3.1%	3.9%
문학	0.6%	0.6%	0.4%	0.9%
미술	0.9%	0.9%	0.8%	0.6%
서양음악	0.3%	0.3%	0.4%	0.5%
전통예술	0.4%	0.3%	0.5%	0.5%
무용	0.1%	0.2%	0.4%	0.3%
연극	0.2%	0.1%	0.1%	0.3%
뮤지컬*	…	…	…	0.2%
영화	0.6%	0.5%	0.5%	0.7%
가요/연예	0.5%	0.5%	0.3%	0.6%
역사문화유산	0.2%	0.1%	0.2%	0.4%

*뮤지컬은 2010년까지는 연극에 포함되어 조사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년도

○ 문화 동호회 참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참여자의 속성별 차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다만 문화 동호회 참여율이 4%를 넘는 집단을 추출하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대적으로 여자, 20~50대, 대학재학 이상 학력자,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읍/면지역에서 동호회 참여율이 높음
- 학력과 소득이 결합된 집단에서 참여율이 특히 높은 특성을 보임
  ·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문화 동호회 참여율이 8.9%로 다른 집단과 차이가 큼[20]
  ·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7.2%)
  · 대학재학 이상 학력자(6.4%)
- 또한 수도권(6.1%)과 읍/면지역 참여율(6.3%)이 높은 특성을 보임

나. 문화 동호회원의 특성

○ 첫째, 문화 동호회 참여율은 4% 미만으로 매우 낮음

○ 둘째, 문화 동호회 참여 의향은 현재 참여율보다 4.5배 높은 데서 보듯이 문화 동호회에 대한 욕구는 지니고 있지만,[21] 문화예술이 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셋째, 문화 동호회 참여자는 향후 동호회 활동의향이 95%에 달하여 동호회 활동은 자체 규범에 따른 지속성을 지니고 있음

○ 넷째, 문화 동호회 활동 참여율은 고학력·고소득의 전문/관리직에서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아서 동호회 활동에서는 이른바 문화자본이 중요함
- 소득과 학력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득과 학력이 결합되었을 때 동호회 활동이 많음

○ 다섯째, 연령별로는 20~50대의 동호회 활동이 활발함
- 2010년 조사에서는 50대의 동호회 참여율이 가장 높았음

○ 여섯째, 수도권과 농촌지역의 동호회 참여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직이 많은 데서 기인함
- 또한 읍면지역에서 동호회 참여율이 높은 것은 마을 단위의 동호회, 특히 역사문화유산, 전통예술의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임

· 역사문화유산 동호회: 읍면지역 1.1% 〉 중소도시 0.3% 〉 대도시 0.3%

· 전통예술 동호회: 읍면지역 0.5% 〉 중소도시 0.3% 〉 대도시 0.3%(2012년 조사), 읍면지역 1.3% 〉 중소도시 0.7% 〉 대도시 0.2%(2010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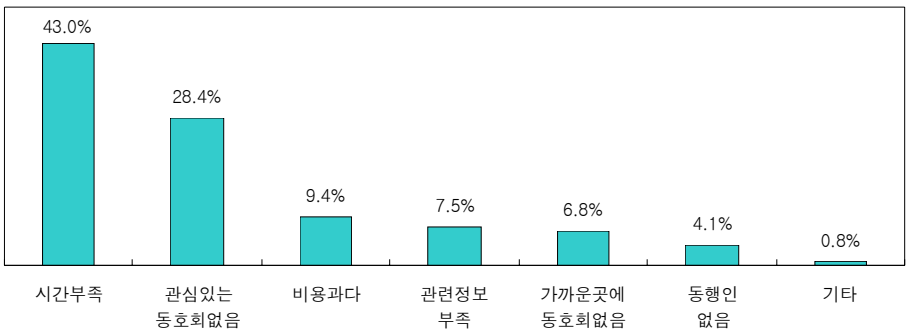
---

20)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직업별 동호회 참여율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별 동호회 참여율은 2010년 조사결과임

21)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향후 동호회 참여의향 질문이 없기 때문에 2010년 조사결과에 따름

다. 문화 동호회 참여의 걸림돌과 참여 의향[22)]

○ 문화 동호회 참여의 걸림돌은 '시간 부족'(43.0%), '관심 동호회 없음'(28.4%)이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비용 과다'(9.4%), '정보 부족'(7.5%), '가까운 곳에 동호회 없음'(6.8%), '함께 할 사람 없음'(4.1%), '기타'(0.8%)의 순서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2-1] 문화 동호회 참여 걸림돌

○ 응답자 속성별로 문화 동호회 활동 참여의 어려움이 다소 다름
- 대부분이 시간부족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어려움
- 다만 동호회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 있음
  · 6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층, 주부, 기타/무직,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시간 부족'보다 '관심있는 동호회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음

○ 대체로 문화 동호회에 관심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부족, 비용과다 등으로 실제 동호회 활동을 못하고 있음

○ 문화 동호회 참여 의향은 14.4%로 현재 참여율(3.1%)의 4.5배임

○ 현재 참여자의 94.7%는 지속적인 참여의향이 있어서, 문화 동호회 활동은 지속적인 특성을 보임
- 반면에 현재 동호회 비참여자의 참여의향은 11.8%임

2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동호회 참여의 걸림돌 관련 질문이 없기 때문에 2010년 조사결과에 따름

〈표 2-2〉 문화 동호회 참여 의향

대상	2010년 조사(1년 이내)		2008년 조사(시기 제한 없음)	
	표본 수	참여의향	표본 수	참여의향
전체	5,000명	14.4%	4,000명	15.7%
동호회 참여자	156명	94.7%	116명	86.2%
동호회 비참여자	4,844명	11.8%	3,884명	1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응답자 속성별로 문화 동호회 참여의향을 동호회 참여율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남
- 10대 학생들은 현재 동호회 참여율은 높지 않으나, 참여의향이 많음
- 읍/면지역 거주자, 농어업 종자사의 참여율이 높으나, 참여의향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 없음
- 고학력,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참여율과 참여의향이 모두 많음

2.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

○ 조사시점 기준으로 현재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1%이지만, 과거의 경험률은 이보다 높은 3.8%임

〈표 2-3〉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년 조사	2006년 조사	2008년 조사	2010년조사	2012년 조사
자원봉사 경험률	6.5%	3.5%	6.2%	7.3%	5.9%
과거 경험률	5.3%	2.5%	4.6%	5.7%	3.8%
현재 참여률	1.2%	1.0%	1.6%	1.6%	2.1%

○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이지 않고, 일회적임을 보여줌
- 10대와 20대의 경험률이 높지만, 과거 경험률이 현재 참여율보다 훨씬 높아서 재학(在學)시절 비자발적인 활동 결과임
  · 10대: 현재 1.9% + 과거 8.1%
  · 20대: 현재 3.0% + 과거 5.3%

○ 이밖에 고학력, 고소득, 수도권 거주자의 문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함
- 대학재학 이상(7.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400만원(7.4%), 400~500만원(6.3%), 500만원 이상(7.7%), 수도권(9.1%)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참여율이 월등하게 높음(8.9%)[23]

23)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직업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2010년 조사결과에 따름

제2절

시사점: 참여자 속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1. 연령별: 중년, 노년, 20대 이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년층의 동호회 활동을 자원봉사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개발
- 중년층(30대~50대)은 20대와 비교하여 동호회 참여율은 비슷하지만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음
- 현재 중년층의 동호회 활동을 자원봉사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함

○ 20대 이하 연령층의 비자발적 자원봉사를 동호회로 전환하여 자원봉사의 지속성 유지
- 20대 이하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비율이 동호회 참여비율보다 훨씬 높음
- 30대부터 자원봉사 참여비율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은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비자발적인 측면(진학, 내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임
- 20대 이하의 문화 자원봉사는 '문화'를 매개로 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문화 '시설', 지역 축제 등에서의 단순 업무에 머물 것임
- 이들의 주된 활동공간인 문화시설과 축제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동호회로 조직화하여 문화 자원봉사의 지속성 확보

○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동호회로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함
- 60세 이상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비율이 동호회 참여비율보다 약간 높음
- 고연령층 자원봉사활동을 문화시설 내 동호회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60세 이상 연령층이 많이 활동하는 전통예술 및 풍물 동호회가 지역사회 문화행사에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성별: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활동이 모두 약간 낮음
- 문화 동호회: 여성 4.5% 〉 남성 3.3%
- 문화 자원봉사: 여성 6.5% 〉 남성 5.4%

○ 현재의 동호회원 가운데 남성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동호회 지원을 위한 조건에서 남성비율 할당제 실시 등을 검토할 수 있음

3. 지역별: 농어촌과 수도권 특화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지역의 동호회 참여율은 도시지역보다 높지만 자원봉사 참여율은 약간 낮음
- 마을 단위에서 역사문화유산 동호회, 전통예술(농악, 풍물)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데서 기인함
- 역사문화 동호회, 전통예술 동호회를 활용한 마을의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동호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수도권 지역에서 문화 동호회와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음
- 문화 동호회 참여율: 수도권 6.1% 〉 전체 3.9%
-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 수도권 9.1% 〉 전체 5.1%
- 수도권은 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표회)보다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취약계층 대상 멘토링, 문화예술교육 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4. 학력, 소득, 직업별: 문화자본이 많은 계층의 자원봉사 유도

○ 상대적으로 동호회와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한 고학력층, 고소득층, 전문직 종사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들이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표 2-4〉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연계

	동호회 참여율 높음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높음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연계
연령	20대~50대	10대~20대	중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의 여건 조성 20대 이하 자원봉사자의 동호회 조직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역사회 문화행사(어린이, 노인대상) 참여
성별	여성이 약간 높음	여성이 약간 높음	동호회 지원 시 남성비율 고려
거주 지역	수도권 농촌지역(역사문화유산, 전통예술)	수도권	역사문화유산, 전통예술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 유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 유도
학력	대학재학 이상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층의 자원봉사 유도
직업[24]	전문/관리직		전문/관리직의 문화자본 적극 활용
소득	고소득층	고소득층	고소득층의 자원봉사 유도

24)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직업별 동호회 및 자원봉사 참여율이 기술되지 않아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를 참조함

제3장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 분석

제1절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1. 관련 법령

○ 동호회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개념으로 법률에 의거한 정책적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
- 법률에서 '동호회'가 쓰인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58조 4항 3호가 유일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여기에서 보듯이 동호회의 목적은 분명히 친목 도모에 한정됨

○ 자원봉사활동은 법률적 개념으로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4조)

○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문화·예술이 포함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자원봉사의 범위는 15개이며, 이 가운데 하나가 문화·관광·예술·체육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 관광 ·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하지만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은 법률적 측면에서 수행되기 어려움
- 첫째, 동호회를 법률적인 개념으로 보기 어려움
- 둘째, 동호회가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듯이 동호회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친목단체 지원은 쉽지 않음
  ·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임(〈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3항)
- 셋째,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적 유사개념은 '비영리 민간단체'이나, 동호회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포함되기 어려움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임
  ·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호회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기 어려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4항, 5항)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가. 동호회 지원

○ 별도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문화복지정책,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시설 운영 정책에 부분적으로 포함됨

1) 문화복지정책과 동호회

○ 문화 감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문화복지정책은 '문화학교 및 문화동호인 모임의 활성화'사업을 들 수 있음
- 문화 동호회는 문화 민주주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정책 대상이 된 것임
- 이 사업은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문화학교 운영이 핵심이며, 그 방법으로 문화 동호회와 연계하고자 하였음

- 문화학교는 문예진흥기금(1991~1998)과 국고(1999~2004)로 진행되다가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됨
- 하지만 문화학교 운영에서 문화 동호회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취약계층 문화접근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복지정책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을 들 수 있음
- 2009년부터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취약지역 내에서 문화를 통한 공동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전문예술단체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작업 및 발표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참여 지역주민들이 동호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호회 지원사업 자체로 보기는 어려움

2) 지역문화정책과 동호회

○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문·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지역내외 순회교류 프로그램'[25]의 일부가 동호회 지원 사업임
- 여기에서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동호회에 해당될 수 있음
- 현재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문화순회'와 비슷하며, 주된 활동 단체는 아마추어 예술단체라기보다는 전문단체임

○ 2002년도부터 실시한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부가 동호회 지원 사업임[26]
- 향토문화의 복원·보존·선양을 마을 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이때 문화 동호회가 참여주민의 단위(unit)가 될 수 있음
- 문화 동호회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계기가 됨

○ 2008년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에 동호회 지원이 포함됨
-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와 전통시장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시장과 문화컨설팅단-주관단체(PM)-전통시장 상인회가 공동 참여함
- 수원 못골시장에서는 상인들의 문화 동아리(수원 못골시장)가 활동한 바 있음[27]

---

25) 이종인(2011),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성남: 북코리아), 523쪽
26) 이종인, 위의 책, 529~544쪽
27) 윤소영, 위의 보고서, 27~28쪽

- 하지만 상인 동아리가 기존부터 활동하던 것이 아니고, '문전성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친목도모의 동호회 지원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3) 문화예술교육정책과 동호회

○ 사회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일환인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동호회 지원 사업임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09년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박물관, 미술관에서 총 114건(12억 5,000만원) 사업 진행[28)]
- 초중등학생 대상 사업이 67건, 일반인 대상 사업이 48건이며, 일반인 대상 사업이 동호회를 기반으로 진행됨
- 현재의(잠재적) 동호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공연 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함

○ 문화의집협회에서 주관한 '창의학교 지원 사업'(2011),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문화로 행복한 우리동네) 사업' 역시 동호회 지원 사업임
- 두 사업 모두 현재의(잠재적) 동호회원 대상 교육 사업임

○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창작' 사업이 동호회와 관련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뮤지컬·오케스트라창작악기 제작 워크샵
- 이 자체가 동호회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뮤지컬,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이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음

4) 문화시설 운영과 동호회

○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 중인 동호회는 최소 7%를 넘음
- 2010년 1,748개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호회 구성여부를 전화 조사한 결과 126개에서 동호회가 있다고 응답함[29)]
- 전화조사 결과이므로 이보다 동호회는 많을 것임
- 문화시설별로는 문화의집 18.2%(143개 중 26개), 문화원 14.3%(223개 중 32개), 도서관 9.2%(644개 중 59개), 문예회관 4.2%(167개 중 7개), 박물관 0.4%(466개 중 2개), 미술관 0%임(105개 중 없음)[30)]
- 문화시설별 동호회의 활동률 자체는 이보다 높을 것임

---

28) 양현미 외(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4~55쪽
29) 윤소영, 위의 보고서, 49쪽
30) 윤소영, 위의 보고서, 50쪽 재구성

○ 문화의집에서는 문화교육 수강생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동호회 활동을 수행함
-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 문화의집은 1996년 「문화복지 중기계획」의 핵심사업임[31]
- 문화의집에서 수행하는 주된 프로그램이 문화교육이며,[32] 교육수강생을 중심으로 동호회가 만들어짐
-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언급한 '창의학교 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문화로 행복한 우리동네)' 등임

나.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1) 문화 자원봉사의 시작: 1990년대 중반

○ 공공영역에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임
- 국립 현대미술관의 도슨트제도 도입(1995)을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1995), 국립중앙극장(1996), 예술의전당(1996)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시작함[33]
- 공공 문화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도서관이었음[34]
-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영역에서도 자원봉사가 시작된 것임
- 주된 활동은 국립 현대미술관의 도슨트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였음

○ 민간영역의 문화 자원봉사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됨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사랑의 문화봉사단' 결성(1996)
  · 봉사단원들이 소외지역 순회 활동을 시작함[35]
  · 사랑의 문화봉사단은 일반인이 아니라 문화예술 (준)전문가였음
- 호암미술관의 Volunteer Docent(1997)
  · 지원자를 대학원의 미술전공자, 사회교육 전공자, 초중고 미술교사로 한정[36]

31) 김세훈·조현성, 위의 보고서, 50쪽
32) 정갑영 외(2002),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43쪽
33) 정갑영 외(1997), 「문화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41~48쪽
34) 정갑영(1997), 위의 보고서, 45쪽, 김혜주 외(2009), "국내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1호, 182쪽
35) 정갑영 외(1997), 위의 보고서, 28쪽
36) 정갑영 외(1997), 위의 보고서, 39~41쪽

2) 문화 자원봉사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

○ 아직까지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 1996년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에서는 '민간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바 있음[37)]
  · 1998년까지 관련 연구수행, 2001년까지 체계화,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목표로 설정함[38)]
  ·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음
-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개별 문화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문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정도, 또는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행하는 정도임

○ 2009년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초연구가 시작됨
- 「노인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09)
- 「여가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9),
-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39)]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는 2003년, 2004년에 문화부 후원으로 문화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실시(평균 10회)
- 피교육자들의 모임구성(네트워크)을 유도하고 지역문화시설에 배치까지 실시
- 교육내용 및 대상
  · 문화 자원봉사의 의의 및 현황, 문화공간 현장견학, 문화공연 관람
  · 문화 자원봉사 관심자(일반인, 전문가)
- 2003년: 13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405명 수료
- 2004년: 9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321명 수료
-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음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함
  · 2004년 교육 이후, 또는 교육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지역(기관)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場) 마련
  ·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울산), 군포문화센터(경기 군포),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강원 강릉), 효자문화의집(전북 전주)

37) 김세훈·조현성, 위의 보고서, 49쪽
38) 김세훈·조현성, 위의 보고서, 80쪽
39)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내부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에 의함

3)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 나눔행위의 주체에 따라 (준)전문 예술인(단체)의 재능나눔과 일반인의 재능나눔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준)전문 예술인의 재능나눔

○ '사랑의 문화봉사단'
- 1996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출범
- 전문예술가들이 순회공연을 하는 '사랑의 문화봉사단' 활동 시작
- 사업내용: 공연(클래식 음악, 대중음악, 인형극 등)에 한정
- 공연횟수: 2000년대 초반에는 연간 150~180회 정도 공연
- 공공영역의 다양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활성화로 이전보다 많이 활발하지 않음
- 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마사회 등에서 지원
- 자원봉사자 보상: 실비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명예교사'[40]
- 2011년 100인의 예술가를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위촉
- 어린이, 청소년, 취약지역 주민, 군부대 장병 대상 강연, 공연, 캠프 등 (2011년 450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능기부 뱅크
- 2011년부터 전문예술인의 재능나눔 사업 시작
- 재능기부 방법
  · 문화예술 재능기부 지원자가 문화예술위원회 재능기부 뱅크(Art Bank)에 언제나 신청할 수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봉사 프로그램 매칭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확인서 및 이력 관리 업무 담당
- 재능기부 분야 및 활동
  · 공연, 미술, 음악, 문학
  ·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문화예술공연, 공공 사회봉사 등

○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킴이'[41]
- 대중문화예술인 자원봉사단체(좋은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와 공동 진행
- 재능기부 활동(고궁 무인안내시스템에 목소리 기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등)

---

40) 박소현, 위의 보고서, 156~157쪽
41) 박소현, 위의 보고서, 167~168쪽

② 일반인의 재능나눔

○ 한국문화복지협의회의 '문화 자원봉사회'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회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님
- 1997년부터 문화 자원봉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2000년 8월부터 자원봉사자들을 모임(문화 자원봉사회) 형태로 조직화함
  ·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가 아니라 자원봉사동호회라고 볼 수 있음
- 구성원
  · 인원: 130명 정도
  · 성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 연령: 50~60세 중심
-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
  · 12주 24강좌
  · 문화감수성, 문화 자원봉사 등의 교육
  · 연1회 모집: 약 25명 정도
- 문화 자원봉사활동
  · 초기에는 '사랑의 문화봉사단'의 공연 진행 업무 담당
  · 봉사단원들이 아르코미술관, 경찰박물관 등에서 자원봉사
  · 안내 및 도슨트 역할
- 자원봉사인증: 2011년부터 행안부의 자원봉사 인증제 도입
- 문화 자원봉사회 내의 동호회
  · 현재 두 개의 동호회가 활동 중임
  · 음악감상 동호회, 책읽은 동호회

○ 지방문화원의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
- 60세 이상으로 한정하며, '어르신 문화학교' 수료생이 아닐지라도 문화원의 자체 동아리가 있으면 활동 가능
- 예산 및 수혜단체: 2011년 47억원(42개), 2012년 7억원(70개, 단체평균 1백만원)
- 2011년 발대식을 가졌으나 이것은 기존의 '실버문화학교'를 계승한 것임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의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원에 따라 (사)문화복지협의회에서 2009년부터 실시
- 50세 이상의 참여자가 문화교육을 받아 취약계층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 동화 구연 등

- 2011년까지는 북-북(Book-Book)이라고 이름 붙였으나, 영어 이름이라고 하여 현재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으로 명칭 변경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42]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봉사단과 초등학교 모집, 활동비 지원
- 봉사단은 예술대학 재학생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
-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 체험 봉사
- 2011년 기준 봉사단은 27개(135명), 프로그램 27개, 초등학교 28개, 참여인원은 1,470명임

4) 문화 자원봉사활동 인증제도

○ 도서관 자원봉사에 한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관 자원봉사관리시스템(LVMS)
- 도서관 자원봉사관리시스템(LVMS)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제도로, 부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됨
- 도서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서 기인함
- 하지만 다른 문화기관들에서는 이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관리 및 인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3. 타 부처의 정책사업

○ 동호회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사업을 찾을 수 없으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43]

○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의 심의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 심의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협력·조정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4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예술나눔 선생님 마음나눔 선생님」 참조
4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참조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총리실장
- 민간 전문가: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위촉
- 업무를 위해 산하에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구성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명목상의 심의기구이며 자원봉사활동 실제 업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담당함

나.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주무 부서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고 있음

1) 자원봉사 기본계획 수립

○ 5년 단위로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9조)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연도별 계획수립(〈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6조)
- 기초지자체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광역지자체장에게 시행계획 제출
- 중앙 행정기관장·광역지자체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행 제출
-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말까지 중앙 행정기관장·광역지자체장에게 고지
- 중앙 행정기관장·광역지자체 장은 전년도의 이행실적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2)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 국가, 지자체(광역/기초)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지자체에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임[44)]

〈표 3-1〉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연도별	계	직영	위탁	법인
2005	250	146	95	9
2006	248	151	83	14
2007	248	159	70	19
2008	248	158	74	16
2009	248	152	69	27
2010	246	151	68	27
2011	246	145	63	38

자료: 나눔포털(www.1365.go.kr), 「2011 자원봉사센터 현황집」, 4쪽

○ 각급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중앙자원봉사센터
1.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2.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지역 자원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조사, 연구
4. 지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 및 정보교류
5. 자원봉사 정책 지원 및 협조
6. 나눔포탈(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홈페이지(www.1365.go.kr) 운영
7. 그 밖에 국가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광역자원봉사센터
1. 특별시 · 광역시 · 도 지역의 기관 ·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 · 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 조정 · 지원
7. 그 밖에 특별시 · 광역시 · 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초 자원봉사센터
1. 시 · 군 · 자치구 지역의 기관 ·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 군 · 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44) 중앙자원봉사센터 1개소를 제외한 것임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짐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수요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요청
  · 자원봉사 공급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등록, 등록 이후 소정의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센터의 요청에 따라 수요처에서 활동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수요처와 자원봉사자의 매개
  ·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인증
  · 자원봉사 참여자 (기초)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표 3-2〉 자원봉사센터의 보상 유형

감사카드, 축하카드(생일, 성년 등), 연하장, 휴대폰 문자 등
국내 외 행사 참석기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전문 심화교육, 워크샵 참석기회
국내외 연수, 테마여행 기회
각종 기념물, 활동조끼, 자원봉사자 수첩 제공
자원봉사자 뱃지(누적 봉사활동에 따른 금, 은, 동 뱃지)
자원봉사자(리더) 명함 제작 또는 자원봉사 인증패 증정
이달의 모범 자원봉사자 선정 또는 봉사왕 선정 등
주차할인권, 공공시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놀이공원, 공연관람료 할인 또는 무료티켓 등 제공
할인쿠폰 제공(할인가맹점이용)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부포상 추천
지역 또는 전국적 미디어 활용한 홍보
상급학교 진학 시 경력 인정
자원봉사 상해 보험가입

자료: 나눔포털(www.1365.go.kr), 「2011 자원봉사센터 현황집」, 62쪽

○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 2011년 기준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약 7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임
- 2011년 기준 자원봉사활동인원은 1,377만 명(회)으로 등록인원이 연간 1.9회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함
- 여성이 57%로 남성(43%)보다 많음

-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9%), 20대(18%), 50대(14%), 30대(12%), 60세 이상(10%)의 순서로 나타남

〈표 3-3〉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

연도	총계	성별		연령별					
		남	여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5	2,083,704	43%	57%	22%	13%	14%	24%	17%	10%
2006	2,681,193	43%	57%	22%	14%	14%	23%	16%	11%
2007	3,279,911	44%	56%	22%	15%	15%	22%	15%	11%
2008	4,396,633	43%	57%	25%	15%	15%	21%	14%	10%
2009	5,363,435	43%	57%	26%	16%	13%	20%	14%	10%
2010	6,315,032	43%	57%	27%	17%	12%	19%	14%	10%
2011	7,085,162	43%	57%	28%	18%	12%	19%	14%	10%

자료: 나눔포털(www.1365.go.kr), 「2011 자원봉사센터 현황집」, 28쪽

〈표 3-4〉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활동

연도	활동(명, 횟수)
2005	7,634,183
2006	10,314,903
2007	12,900,984
2008	14,020,872
2009	15,928,405
2010	14,979,864
2011	13,767,850

자료: 나눔포털(www.1365.go.kr), 「2011 자원봉사센터 현황집」, 32쪽 재구성

○ 문화 자원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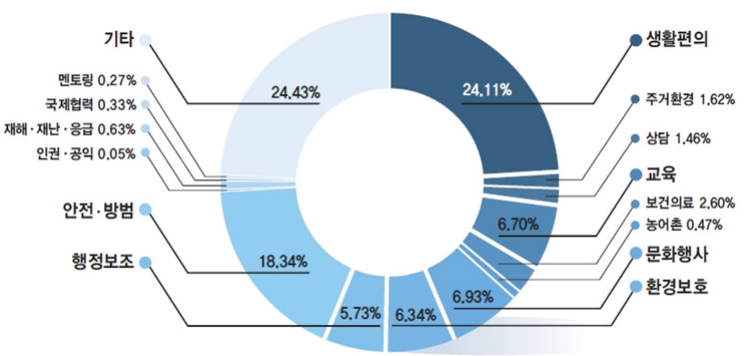
- 2011년 기준으로 자원봉사 인원 1,377만 명(회) 가운데 문화행사의 비중은 6.9%임
- 자원봉사의 활동분야별 비중은 기타(24.4%), 생활편의(24.1%), 안전/방범(18.3%), 문화행사(6.9%), 교육(6.7%), 환경보호(6.3%), 행정보조(5.7%)의 순서로 나타남
- 문화행사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문화분야 자원봉사활동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님
- 문화행사 자원봉사의 비중은 제주(15.2%), 충남(11.2%), 부산(9.8%), 광주(9.5%)가 높고, 전남(4.8%), 인천(5.0%), 울산(5.0%)이 낮음
- 제주에서는 문화관광 행사, 부산과 광주에서는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같은 대규모 행사가 많은 데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임

〈표 3-5〉 자원봉사센터의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비율

단위: %

시도	계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농어촌	문화행사	환경보호	행정보조	안전/방범	인권/공익	재해/재난/응급	국제협력	멘토링	기타
	100	24.1	1.6	1.5	6.7	2.6	0.5	6.9	6.3	5.7	18.3	0.0	0.6	0.3	0.3	24.4
서울	100	23.2	1.8	2.9	6.6	4.4	0.3	7.7	6.6	6.1	14.8	0.0	0.6	0.4	0.5	24.0
부산	100	21.9	2.5	1.2	7.8	1.3	0.9	9.8	12.9	4.5	11.6	0.2	0.1	0.8	0.5	24.0
대구	100	24.6	2.2	1.4	6.4	3.0	0.3	7.1	4.2	5.7	9.3	0.0	0.0	1.0	0.3	34.5
인천	100	26.3	0.8	2.2	8.9	2.9	0.2	5.0	6.7	9.4	24.4	0.0	0.1	0.3	0.3	12.4
광주	100	27.9	1.2	1.2	6.4	5.6	0.5	9.5	13.6	4.9	15.2	0.1	0.1	0.0	0.1	13.6
대전	100	32.5	0.3	2.2	6.0	5.3	0.2	6.7	8.5	8.9	16.8	0.0	0.3	0.0	0.3	12.1
울산	100	19.8	1.7	1.2	7.3	1.5	0.2	5.0	6.3	4.6	15.3	0.0	0.3	0.1	0.0	36.7
경기	100	21.8	1.7	1.3	5.5	2.5	0.3	4.9	4.6	7.2	22.8	0.0	0.8	0.2	0.2	26.1
강원	97	13.1	1.4	0.9	7.2	1.7	0.6	6.0	5.9	0.9	28.9	0.0	2.2	0.4	0.2	27.6
충북	100	24.3	1.7	0.7	5.5	3.6	0.7	7.0	3.5	2.5	39.9	0.2	0.2	0.0	0.1	10.0
충남	100	24.9	1.9	0.8	9.2	1.1	0.4	11.2	10.1	2.3	28.9	0.0	1.7	0.1	0.1	7.3
전북	100	16.8	2.2	0.5	11.1	1.5	0.1	6.0	3.4	3.3	6.0	0.0	5.1	0.2	0.8	42.8
전남	100	30.8	1.4	0.2	4.4	0.7	1.1	4.8	7.5	1.5	17.0	0.0	0.1	0.1	0.1	30.2
경북	100	24.3	1.4	1.6	7.7	2.6	0.7	9.0	5.4	3.9	11.7	0.0	0.6	0.5	0.3	30.3
경남	126	52.9	1.0	1.2	5.8	2.0	0.6	6.6	3.8	10.6	10.6	0.1	0.2	0.1	0.1	30.2
제주	100	49.6	1.7	0.9	4.3	1.4	0.1	15.2	6.7	3.0	10.0	0.0	0.9	0.5	0.4	5.1

자료: 나눔포털(www.1365.go.kr), 「2011 자원봉사센터 현황집」, 33쪽 재구성



자료: 나눔포털(www.1365.go.kr), 「2011 자원봉사센터 현황집」, 35쪽

[그림 3-1] 자원봉사센터의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비율

3) 전문 자원봉사단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자원봉사단'을 추진한 바 있음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문자원봉사단'은 8,146개, 인원은 375,000명임
- 이 가운데 문화예술 단체는 1,297개 단체(15.9%), 32,000명(8.5%)임[45)]

○ 현재는 지자체 단위에서 '전문 자원봉사단'이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정도임

다.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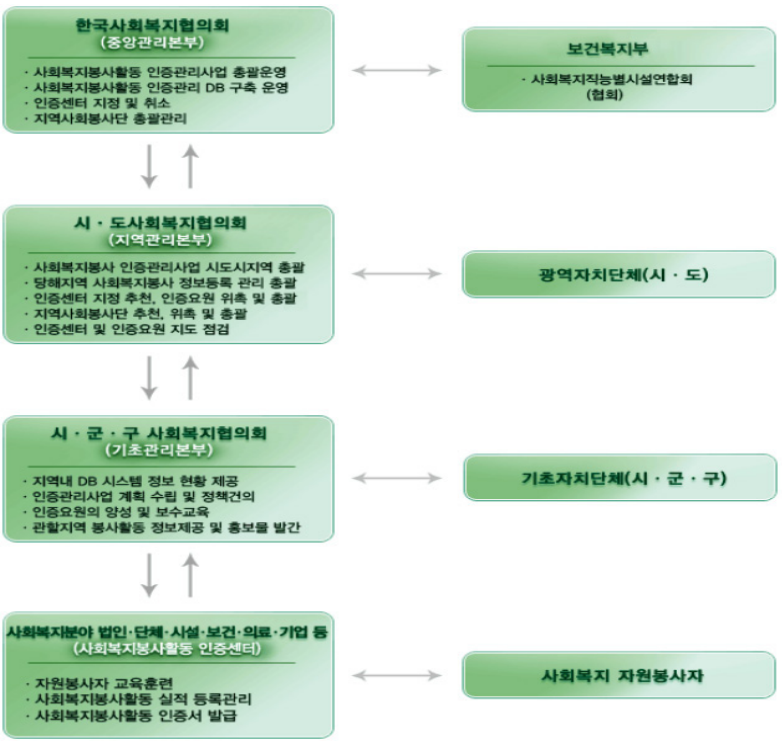
1) 사회복지시설과 실적인증

○ 복지영역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급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자원봉사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이 같은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이하 VMS로 줄임)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실적인증을 해주고 있음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
- 2001년 8월 인증관리 DB시스템 구축
- 목적
  ·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관리를 통한 신뢰성 구축
  · 사회복지 봉사활동 관련단체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 봉사활동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 조성
- 인증절차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 사회복지협의회(광역)-시/군/구 사회복지협의(기초)-사회복지분야의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사회복지 봉사활동인증센터)의 연결체계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로 등록된 사회복지 법인·단체·시설은 물론 일반 기업과 의료기관 등이 실제로 봉사자들에게 실적을 인증함

45) 박소현, 위의 보고서, 133~134쪽 재구성



* 자료: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추진체계

[그림 3-2]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추진체계

○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인센티브 제공

〈표 3-6〉 사회복지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유형

– 취업 및 입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 발급 – 우수 자원봉사자 10만 명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사망 및 후유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보상]해 주어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성 보장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훈·포상 추천 및 표창 수여 – 자원봉사자의 명예감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 배지 수여, 감사메일 발송, 정부포상 등 – 다양한 문화이벤트(영화시사회, 뮤지컬, 연극, 콘서트, 놀이공원, 미술관 등)에 초청 – 건강검진, 사이버 대학 장학금, 콘도 할인 등

자료: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자원봉사안내 자원봉사자 혜택

〈표 3-7〉 자원봉사센터와 VMS의 인센티브 비교

지원내역	행정안전부 (중앙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 (VMS)
상해보험 가입	O	O
감사카드, 축하카드, 연하장, 휴대폰 문자 발송	O	O
국내 외 행사 참석기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기회	O	O
전문 심화교육, 워크샵 참석기회	O	
국내·외 연수, 테마여행 기회	O	
각종 기념물, 활동조끼, 자원봉사자 수첩제공	O	
자원봉사자 뱃지 수여	O	O
자원봉사자(리더) 명함 제작 또는 자원봉사 인증패 증정	O	
이달의 모범 자원봉사자 선정 또는 봉사왕 선정 등	O	O
주차할인권, 공공시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O	
놀이공원, 공연관람료 할인 또는 무료티켓 등 제공	O	O
할인쿠폰 제공(할인가맹점이용)	O	O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O	O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부포상 추천	O	O
지역 또는 전국적 미디어 활용한 홍보	O	
상급학교 진학 시 경력 인정	O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가입	O	O
취업 및 입학에 활용 가능한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 발급	O	O
자원봉사카드발급으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O
사이버대학 장학금		O

○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 2011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횟수는 약 815만 회임
- 자원봉사센터의 1,377만 명(회)의 59% 수준임
- 연령별로는 10대 31.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20대(17.2%), 60세 이상(16.4%), 40대(14.6%), 50대(14.6%), 30대(6.2%)의 순서임

〈표 3-8〉 사회복지 봉사활동 참여자(연령별)

구분	계
19세 이하	31.0%
20대	17.2%
30대	6.2%
40대	14.6%
50대	14.6%
60세 이상	16.4%
계	100.0%

자료: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2011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36쪽 재구성

- 여성이 66.3%로 남성(33.7%)보다 2배 많음
  · 여성 비율은 20대 이하에서는 60%에 미치지 못함

· 여성 비율은 30대에서는 62%이고, 40대 이상에서는 75%를 넘어섬

〈표 3-9〉 사회복지 봉사활동 참여자(성별)

구분		계	
계	계	8,154,997	100.0%
	남	2,749,771	33.7%
	여	5,405,226	66.3%
19세 이하	계	2,528,649	100.0%
	남	1,088,771	43.1%
	여	1,439,878	56.9%
20대	계	1,402,109	100.0%
	남	590,536	42.1%
	여	811,573	57.9%
30대	계	503,162	100.0%
	남	192,758	38.3%
	여	310,404	61.7%
40대	계	1,193,434	100.0%
	남	298,475	25.0%
	여	894,959	75.0%
50대	계	1,187,631	100.0%
	남	244,430	20.6%
	여	943,201	79.4%
60세 이상	계	1,340,012	100.0%
	남	334,801	25.0%
	여	1,005,211	75.0%

자료: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2011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36쪽 재구성

○ 자원봉사의 유형과 문화 자원봉사
- 자원봉사 대부분이 시설봉사(75.8%)임
- 문화자원 봉사비율은 알 수 없으나, 전문봉사(4.4%) 및 지역사회 봉사(6.0%)의 극히 일부분이 문화 자원봉사일 것으로 추정됨

〈표 3-10〉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유형

구분	시설봉사	재가봉사	전문봉사	지역사회	기타	계
계	75.8%	9.6%	4.4%	6.0%	4.1%	100.0%
19세 이하	81.7%	6.7%	1.5%	5.8%	4.3%	100.0%
20대	75.8%	7.1%	5.8%	5.8%	5.6%	100.0%
30대	74.8%	10.0%	5.6%	7.0%	2.5%	100.0%
40대	72.2%	13.4%	5.5%	6.3%	2.6%	100.0%
50대	72.2%	13.2%	5.9%	5.2%	3.5%	100.0%
60세 이상	71.5%	11.1%	5.7%	6.8%	4.9%	100.0%

자료: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2011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36쪽 재구성

2) 대한민국 사회봉사단(Korea Hands)

○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시설 기반 자원봉사를 벗어난 자원봉사 형태로 대한민국 사회봉사단(Korea Hands)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 2012년 경기도와 전라남도에서 시범 운영
- 청년 봉사단, 시니어봉사단을 모집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함

라. 기타 부처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매개하고 인증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청소년활동지원센터(중앙)—광역시도별 지역센터의 연결구조를 통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 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역할
  · 청소년자원봉사에 관한 연구 개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소양교육, 청소년자원봉사자 수급관리,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양성, 자원봉사 기록관리, 전산망 운영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활동 체계와 거의 유사함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다른 부처의 제도화된 사업은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보노정책' 등을 유관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함[46)]

46) 박소현, 위의 보고서 참조

제2절

지자체의 관련정책 사업사례

○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사례를 살펴봄
-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과 도(道)지역을 각각 1개씩 살펴봄
- 현장 사례조사에서 전라북도를 별도로 살펴봄

○ 기초지자체는 강릉시와 군포시를 살펴봄
- 자료 접근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201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한정함
- 강릉시는 도농통합지역의 특성을, 군포시는 수도권 신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현장 사례조사에서 성남시,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을 별도로 살펴봄

1. 광역지자체

가. 서울시

1) 서울문화재단의 사업[47]

○ 2012년 기준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은 ① 시민문화 지원사업과 ②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전자(前者)의 목적은 시민 예술활동 참여 및 향수확대임
- 후자(後者)의 목적은 전문예술 창작 촉진 및 창작기반 조성임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3-11〉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 2012년 정기 공모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자
시민문화 지원사업	시민예술활동 지원	서울시민 동호회, 아마추어예술단체
	시민축제 지원	서울시민 아마추어로 구성된 축제운영조직
전문예술 지원사업	예술창작 지원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예술연구서적발간 지원	예술 분야 전문 개인 연구자
	서울예술축제 지원	예술축제 운영단체

47) 서울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sfac.artskorea.or.kr) 참조

〈표 3-12〉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 2012년 특성화 공모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자
시민 문화지원사업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저소득층 가구
전문 예술지원사업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공동 신청)
	유망예술육성 지원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축제콘텐츠제작 및 교류 지원	전문예술단체, 예술축제 운영단체

2) 동호회 지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민문화 지원사업 가운데 시민예술활동 지원과 시민축제 지원이 동호회와 관련됨
- 시민축제 지원은 동호회 자체 지원사업이 아니라 미래의(잠재적) 동호회와 관련된다면,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동호회 지원사업임

○ 사업목적 및 방향
- 생활밀착형 시민공간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활동 활성화
- 서울시민 예술동호회,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활동역량 강화 및 발표 지원

○ 지원내용 및 금액
- 예술활동에 필요한 공간대관료, 기기장비 임차료, 전문가 초청비(강사비, 출연료 등), 홍보비로 한정하여 지원
- 선정 동아리 및 단체의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출연료 및 인건비성 사례비 제외
- 2백만원 ~ 5백만원
- 2010년 97건 지원, 2011년 65건 지원, 2012년 98건 지원

○ 지원 신청자격
- 아마추어 단체에 한정함
  · 2년 이상의 활동실적 증빙 가능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설립여부 확인 가능 단체(개인불가)
  · 2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하여 사업진행 시 우대
- (준)전문 문화예술단체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원신청 불가
- 아마추어 단체일지라도 소속기관(학교, 회사 등) 공식 동호회로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사업내용
- 2012년 서울에서 시행하는 서울시민 예술동호회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발표활동
  · 발표활동을 전제로 한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과정 포함

· 선정 단체만의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며 지역 공공장소 및 시민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우대
– 장르: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 문화예술 전(全) 장르

○ 시민축제 지원사업
– 지원 신청자격이 서울시민 아마추어 예술단체로 구성된 축제운영 조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호회 지원사업임
– 신청자격 및 대상
· 최근 2년 이상 연속 시행하였으며 3개 이상의 단체참여가 확인된 축제 운영조직
· 대상사업 : 서울시민 아마추어단체가 기획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민예술축제
· 장르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 전(全)장르
· 시민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생활밀착형 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우대
– 지원금액 및 지원건수
· 5백만원~3천만원
· 2009년 24건, 2010년 21건, 2011년 32건, 2012년 22건

3) 문화나눔 행복서울[48)]

○ 문화나눔 행복사업은 '열린 예술극장'과 '사랑의 문화나눔'으로 구분됨
– 문화나눔 행복사업은 전문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공연, 찾아가는 공연을 의미함
–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함

〈표 3-13〉 문화나눔 행복서울의 사업내용

	열린 예술극장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개요	공원, 거리, 하천 등지에서 공연(연극, 재즈, 뮤지컬, 국악 등)	일상속 문화공연: 주민센터, 구민회관, 창작공간 등 찾아가는 문화공연: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봉사단 명칭	재능나눔봉사단	문화나누미
참여단체	중규모는 전문예술단체 소규모는 아마추어 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가 30% 정도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단체 모두 가능 대체로 아마추어 단체가 활동

48) 문화복덕방(culture.seoul.or.kr) 참조

	열린 예술극장	사랑의 문화나눔
지원내용	실비 지원	실비 지원
수혜자 반응	중규모(전문단체)의 반응이 좋음	음악보다 마술, 인형극, 그림자 쇼 등을 선호
사업진행의 어려운 점	야외공연이므로 기후에 따라 진행어려움 소음으로 주변민원	일상속 문화공연의 수혜자(구민회관, 도서관)가 적극적이지 않음
자원봉사 인증	자체 실적확인 증명서 발급	자체 실적확인 증명서 발급
주관단체의 역할	수요처와 공급자 매개 실비지원	수요처와 공급자 매개 실비지원

나. 경기도

1) 문화 동호회 지원사업[49)]

○ 문화기반시설 동호회 지원, 예술동호회 지원사업, 시니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육성지원
- 목적: 문화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 육성
- 지원대상
  ·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동호회가 문화예술기획(운영)위원회
  ·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은 문예회관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문화의집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전국 단위 예술단체(예총, 민예총)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 지원분야
  ·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특화 아카데미(시민예술학교 등) 운영 지원
  ·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연합예술제 지원
- 지원액: 2007년(195,000천원), 2008년(146,000천원), 2009년(지원금 90,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최소 5,000천원)

○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연합예술제 지원
- 2006년 수행한 사업
- 지원내용: 5개 이상 동호회가 수행하는 연합예술제 지원
- 지원대상: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뮤지컬 등 공연
- 지원액: 28,000천원(최대 10,000천원)

○ 청소년 전통예술동아리 지원

49)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t.or.kr)의 자료를 정리한 것임

- 2006년 수행한 사업
- 지원내용: 청소년 전통예술동아리에 사업비 및 강사지원
- 지원대상: 탈춤, 풍물, 소리, 기악, 민화 등
- 지원액: 동아리별 200만원~400만원

○ 시니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 2010년 지원사업
- 목적
  · 고령화 문제를 문화예술활동 안에서의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해결방안 모색
- 지원대상
  ·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인 어르신 집단(소그룹, 동호회), 단체
  ·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이 사회적 공헌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단체
- 지원내용 및 금액
  ·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30,000천원(5개 내외 단체 선정)

2) 재능나눔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 경기도는 2012년 3월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의 나눔을 제도화하고자 함
- 문화예술의 재능나눔의 주체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조례 제2조 1항)로, (준)전문 예술인(단체)으로 보임
- 경기도는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해 다음 같은 항목에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함(조례 제5조 1항)
  ·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아트 해비타트(Art Habitat)
- 목적
  · 예술을 통한 마음의 집짓기, 재능기부로 문화나눔을 하는 사회운동
- 사업내용
  · 도립예술단과 예술인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축제', '함께 하는 행복교실'

- 사업진행: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2011년, 2012년 수행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목적 및 내용
  · 문화예술단체가 동네(마을) 단위에서 예술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예술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지원대상
  · 문학, 미술, 공연 등 두 장르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협력 프로젝트
  · 개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 사업진행
  ·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나 기초지자체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진행함
  · 기존의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 2012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로 변경됨
  · 예산: 2012년 1억원(최고지원액 1천만원)

2. 기초지자체

가. 강릉시[50)]

1)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

○ 강릉 문화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함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문화 자원봉사인력 양성
- 시민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문화활동 매개자 양성
- 지역 문화현장에 문화 자원봉사 영역 구축

○ 의미 및 한계
- 문화예술 전문인력 구축을 위한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시도
-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촉매자 양성
- 자원봉사활동의 연속성 부재: 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지역 문화현장에 문화 자원봉사영역 구축 등 지속적 성장 동력 마련
- 세분화 및 단계별 교육을 통해 문화 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

50)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2011), 「2011 강릉 문화 자원봉사 포럼」을 요약한 것임

2) 문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 강릉문화원 소속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표 3-14〉 강릉문화원 소속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단체명	단체소개	사업내용	설립 연도	회원수
임영문화재 보호회	강릉문화원 부설 임영문화예술학교 교양강좌교실 수료생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봉사단체	문화재지킴이활동 강릉단오제 투호대회 운영 다문화가족 유아 멘토링활동 관내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	1986	300여명
마음소리 플루트 연주단	강릉문화원 플루트 교실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연주 봉사단체	여성 제소자를 위한 연주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자선 연주회 개최	2007	30명
임영 관노가면극회	강릉문화원 탈춤교실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공연 봉사단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활동	2003	30명
한송정 다도회	한국 최고의 다도 유적지인 한송정의 전통성을 잇고 다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도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봉사 다도 전승 활동	2010	25명

○ 문화의집 관련 동호회 및 자원봉사 단체사례: 시 낭송 동호회
- 2003년 문화의집에서 8주 동안 '시 낭송 강좌'
- 수강생들의 자발적 동호회('어울림 시 낭송회') 구성
- 동호원들이 교도소, 군(軍)부대 및 병원, 학교, 노인대학, 노인정, 모자원, 문화행사, 마을잔치에서 시낭송회를 갖음

○ 문화원, 문화의집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동호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형태임

3)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 강릉 단오제 문화자원 봉사(2011년 사례)
- 단오제에서 약 135명이 자원봉사활동 실시
- 활동분야 및 혜택
  · 통역 및 해설(27명): 2006년 시작된 문화해설사 교육자, 일비·식비 제공, 티셔츠, 인증서 발급
  · 온라인 홍보(10명): 인증서 발급
  · 문화제 체험촌에서 행사운영(86명): 시민단체의 참여, 지원금(최소액)을 지원하고 참여단체에서 재원마련

· 공공기관 연계(12명)

○ 정동진 독립영화제
- 2003년부터 자원봉사자 활용
- 2011년 자원봉사자 모집 경쟁률이 4:1
- 2004년 이후 자원봉사자 총수 100여 명
- 활동분야 및 혜택
  · 영화제 진행보조, 홍보, 사진 및 영상 기록, 게스트 초청
  · 식사 제공, 기념품 제공

4)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

○ 장애인 문화나눔
- 센터와 장애인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진행
- 장애인 공연단과 비장애인 공연단(예를 들어 고등학교 합창단)의 공동 공연

○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게릴라 공연
- 공연봉사단의 공연
- 2011년에는 경포 호수 전망대에서 매주 공연

○ 문화봉사단 운영
-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노가면극단
- 문화관련 봉사단 5개(한무리 공연봉사단, 사진놀이터, 솔향 색소폰 동우회 등)
- 청소년·대학생 문화봉사단 10여개
  · 댄스, 사물, 합창, 가요 등
  · 장애인, 노인관련 행사에서 활동
  · 강릉대 벽화봉사단: 관련학과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벽화봉사 활동
- 문화해설 봉사단
  · 강릉시 운영 문화해설사 분야 활동자 가운데 연령 제한으로 활동을 그만둔 봉사자들로 구성
  · 주로 강릉 이외지역 봉사단이나 관광객의 요청에 의한 활동

나. 군포시[51)]

1) 문화센터의 자원봉사

○ 2011년 '운영도우미'로 자원봉사 인력 활용

○ 활동인원 및 영역

51) 군포문화센터(2011), 「2011 군포 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포럼」을 요약한 것임

- 정원제로 운영하며 2011년 기준 55명이 활동
- 운영 자원봉사: 강좌 접수, 강좌 모니터링
- 유아 자원봉사: 수강생 자녀 돌보기
- 사서 자원봉사: 시설 내 '동화나무 도서관' 운영, '어린이 사서 될래요' 프로그램 운영
- 문화 자원봉사: 공연장 하우스 매니저
- 헬스 자원봉사: 초보자 헬스기구 사용업 안내

2) 동아리 축제: 디딤돌 문화제

○ 축제 목표 및 방향
-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예술축제의 모델 마련
- 축제를 통한 문화나눔 실천
- 아마추어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 일상 속의 생산과 실현을 위한 지역축제
-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에 기여

○ 프로그램 개요
- 매년 9월·10월 중에 양지공원, 문예회관, 문화센터에서 개최
- 공연예술: 공연 동아리의 1년 간의 활동의 무대화
- 미술: 동아리 작품전시, 시민참여 공공미술 작업, 예술체험활동
- 축제 기획 워크숍 및 자원봉사자 교육
  · 시민기획단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자원봉사 운영

3)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2010년 기준)

○ 문화 자원봉사 현황
- 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112개)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단체는 19개(17%)
- 자원봉사활동 연인원(44,414명) 가운데 문화체육은 4,078명(회)로 전체의 9%임

○ 센터 내 문화교육사업
- 자원봉사자 문화강좌(24회), 44명 참가
- 자원봉사자 공연관람(1회), 33명 참가

〈표 3-15〉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일자	주요내용	인원
2010 자원봉사자 문화강좌	2010.4.8.-7.8 (24회)	한국무용, 발레, 연극 연극 '산불' 경기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44명
2010 자원봉사자 '아주 특별한 음악여행'	2010.11.13	해설이 있는 오페라 '카르멘'	33명

○ 군포시 축제 자원봉사활동
- 2005년 이후 군포시 축제에 500명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표 3-16〉 군포시 축제 자원봉사활동 현황

프로그램	일자	주요내용	인원
2005 군포시 시민대축제	2005.4.23-5.2	가장행렬, 캐릭터 행진, 페이스페인팅, 교통, 배식, 안내	27단체 485명
2007 군포태을제 '수리산의 봄'	2007.4.21-4.29	음악회, 불꽃축제, 아트플래그전, 신나라별나라, 솜사탕만들기, 교통, 안내 등	12단체 550명
2008 군포태을제 '판타지아 군포'	2008.5.2-5.5	아트프래그전, 판타지 콘서트 안내, 교통, 장터, 페이스 페인팅 등	520명
2011 철쭉대축제	2011.4.30-5.15	질서유지, 체험부스, 교통안전, 무대공연	20단체 780명

4)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군포시 지회

○ 책읽어주기 활동
- 군포희망 나눔터(기쁨공부방) 활동
  · 200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
  · 회원 두 명이 기쁨 공부방에서 매주 목요일 한 시간씩 책읽어주기
- 뇌성마비 재활원(양지의 집) 활동
  · 2010년 11월부터 시작한 사업
  · 매주 수요일 한 시간씩 재활원에서 책읽어 주기

○ 빛그림활동
- 그림책을 시각적 방법으로 보여주기
- 회원들이 그림책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공연
- 2011년 총 6회 공연

제3절

정책사업 분석 및 시사점

1.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특성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1) 문화 동호회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호회 관련 지원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를 연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52)]
- '전문·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지역내·외 순회교류 프로그램'(2001)이 자원봉사 활동과 연결될 수 있음
- 하지만 이 사업의 중심은 전문 예술단체이며, 아마추어 예술단체 역시 동호회라고 보기 어려움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가 개별적인 정책사업으로 진행됨

○ 둘째, 문화복지정책이란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복지의 틀 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동호회를 형성하고, 이것이 생활문화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임
- 따라서 문화 동호회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

○ 셋째, 현재의 동호회보다는 미래의 동호회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토대로 피교육자들의 신규 동호회 구성을 유도함
-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도 신규 동호회 구성을 유도하고 있음
- 문화 동호회 자체 또는 파악하고 있는 동호회가 많지 않기 때문임

○ 넷째,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함
○ 다섯째, 정책 사업의 지역적 범위가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구체화되고 있음
- 초기에는 지역이 기초지자체 정도임(문화학교 및 문화 동호회 모임활성화[1991], 전문·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지역내·외 순회교류 프로그램[2001])
- 2000년대 후반에는 공동체 단위가 마을(동네)이 됨(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2009], 문화로 행복한 우리동네[2011])

52) 예외적인 경우가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임.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계획(호돌이계획)에 따라 생활체육(동호)회의 전국 단위 조직(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9년 국민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이 만들어지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전국에 98,076개의 클럽(동호회)이 활동함

〈표 3-17〉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호회 관련 유관정책사업의 특징

관련정책	주된 프로그램	동호회 관련
문화복지	문화학교 및 문화 동호회 모임활성화(1991)	문화예술교육의 일환 동호회가 정책대상화 된 초기사례임 하지만 동호회보다는 문화학교에 초점을 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2009)	참여주민이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음 현재의 동호회보다는 미래의 동호회 구성에 의미가 있음
지역문화	전문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지역내·외 순회교류 프로그램(2001)	현재의 문화순회 프로그램과 유사 아마추어 동호회보다는 전문단체에 초점 현재의 동호회에 초점을 두고 있음
	문화·역사마을 만들기(2002)	지역 공동체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동호회가 참여가능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2008)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신설
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2009)	문화시설에 기반한 문화 동호회 교육지원 사업 현재 동호회뿐 아니라 잠재적 동호회 포함
	문화의집 창의학교 지원(2010)	문화시설에 기반한 문화 동호회 교육지원 사업 다른 사업과 달리 현재의 동호회에 한정함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 (문화로 행복한 우리동네)(2011)	문화시설에 기반한 문화 동호회 교육지원 사업 현재 동호회뿐 아니라 잠재적 동호회 포함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창작	아동/청소년의 집단적 활동이 동호회로 이어질 수 있음 미래의 동호회 구성
문화시설	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동호회 구성 창의학교, 문화로 행복한 동네 등이 대표적 사례임
	문화원	향토문화, 전통예술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음
	도서관	독서클럽 활동

2)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자원봉사는 1990년대 중반 중앙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시도됨

-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에서 인력의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것임
- 2000년대 이전까지는 관련정책이 활발하지 않음

○ 둘째, 2000년대 초반에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됨

- 1998년 발표된 문화복지 계획에서 문화 자원봉사활성화의 우선순위가 높았음
- 2003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자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이었음

○ 셋째,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 자원봉사는 봉사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봉사자를 모을 수 있는 기관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임
- 문화시설에서는 인력(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실현하고자 함

○ 넷째, 2000년대 후반, 재능나눔이 화두가 되면서 전문 예술인(단체)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시작함
-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음
- 전문 예술인(단체)은 자원봉사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데 관심이 있음
- 전문 예술인(단체)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술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면, 전문 예술인(단체)의 나눔활동은 현실성이 높지 않음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사랑의 문화봉사단'처럼 인맥에 따라 유명 대중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임

○ 다섯째,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의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 노인의 문화 자원봉사는 특정 연령대(다른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보임
-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며,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함

3)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 문화 동호회 지원, 그리고 문화 자원봉사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지 않았음

○ 개별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음

○ 공통점
- 문화복지 실현의 세부 정책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여 진행

○ 차이점
- 상대적으로 문화 동호회 지원보다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의 자족성이 높음
- 문화 동호회 지원은 1990년대부터,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됨

〈표 3-18〉 문화 동호회 지원과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화 동호회 지원 정책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공통점	정책 목표	문화복지 지역(마을)공동체성 확보	문화복지 나눔문화의 확산
	정책 수행	문화기반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 연계	문화기반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 연계
차이점	정책 자족성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됨	문화 자원봉사 자체가 정책이 될 수 있음
	정책 기점	1990년대부터 시작됨	2000년대 이후 시작됨
연계 정책		노인의 문화예술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	

○ 연계 정책사업 현황
- 노인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이 직접적인 연계사업임
- 이 사업은 기존의 동호회가 자원봉사를 결정한 게 아니라, 문화자원 봉사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성격이 더 강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 중앙부처의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 동호회와 자원봉사를 연계한 사업은 시도되지 않았음
- 연계 정책뿐 아니라 독립된 동호회 지원정책을 찾기 어려움
- 동호회 자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정책수립이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다른 부처의 정책의 특징은 자원봉사에 한정하여 살펴봄

○ 첫째,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정책의 대상은 집단(단체)이 아니라 개인임
- 개인의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둘째,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은 행정안전부, 복지기관(시설)의 자원봉사활동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음
- 두 부처가 총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시책(사업)은 거의 동일함
- 각기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활동 인증제도를 실시함
- 차이점은 행정전달 체계와 봉사자와 수요처의 매개역할에 있음
  · 행정안전부: 각급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봉사자와 수요처 매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인증 실시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각급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활동 인증 실시
  ·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구체적인 기관과 시설이 인증센터로 지정되기 때문

에, 곧 기관(시설)이 수요처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매개역할은 하지 않음

○ 셋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자원봉사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전체를 총괄하는 체계, 부처별 연계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자원봉사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함[53]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체계에 봉사활동의 공통점(교육, 매개, 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체계가 없음
- 아직까지 자원봉사 활동을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넷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인증제도에 있음
- 현재 인증제도는 세 가지 형태이지만 특별한 차이점은 없음
  ·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자원봉사인증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여성가족부)
- 자원봉사활동(인증)의 인센티브 가운데 가시적인 것은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봉사활동의 안전 보장,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또는 진학'에 도움을 주는 정도임

○ 다섯째, 2000년대 후반부터 부처에서 자원봉사단 또는 재능나눔단 구성을 시도함
- 부처 차원의 자원봉사단 구성은 2010년 이후 '나눔문화'가 국정목표가 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 주도의 '나눔문화' 확산은 자원봉사활동의 근본 취지와 상충될 수 있음[54]

○ 여섯째, 문화 자원봉사를 독립된 자원봉사 영역으로 인지(認知)하지 않음
- 자원봉사센터에서 구분하는 자원봉사의 15개 영역 가운데 문화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때의 문화행사는 지역축제 같은 문화행사의 안내, 업무보조 같은 1회성 자원봉사를 의미함
- 복지기관의 자원봉사에서는 문화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자원봉사센터와 VMS의 통계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센터에서 파악한 '문화행사'의 자원봉사는 전체 자원봉사 가운데 7% 정도이며, 대규모 문화행사가 많은 지역에서 참여율이 높음

---

53) 김경동, 위의 책, 309쪽

54) 김경동은 중앙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것, 시간에 기초한 인증제도의 획일적 도입을 도모한 것을 비판하고 있음. 김경동, 위의 책, 308-315쪽, 특히 309쪽 참조. 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정부 부처의 자원봉사단 구성은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여성의 비중이 높음(자원봉사센터 57%, VMS 67%)
- 1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음(자원봉사센터 22%, VMS 31%)
- 자원봉사센터와 VMS의 차이는 VMS가 시설중심의 자원봉사이기 때문임

〈표 3-19〉 자원봉사자의 성별/연령별 비중: 자원봉사센터, VMS

	자원봉사센터	VMS
남	43%	34%
여	57%	67%
19세 이하	28%	31%
20대	18%	17%
30대	12%	6%
40대	19%	15%
50대	14%	15%
60세 이상	10%	16%
계	100.0%	100.0%

자료: 나눔포털(www.1365.go.kr), 「2011 자원봉사센터 현황집」 28쪽;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2011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36쪽 재구성

2.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시사점

가. 동호회(집단) 단위의 자원봉사를 위한 정책체계 마련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개인'단위에 한정되어, 집단(동호회)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동호회(집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에서 담당하는 업무영역별로 단체 차원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고, 장르에 따라서는 문화예술 기자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부처 간 공감 및 협력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 현재의 협력체계는 '1365 자원봉사포탈'에서는 자원봉사자(개인)가 자신의 자원봉사 실적(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을 합산(合算)하여 확인하는 정도에 그침
- 주요한 자원봉사 활성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제도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전문 자원봉사단',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사회봉사단',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위원회)의 '재능기부 뱅크' 등은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움

○ 현재의 '자원봉사자 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인증제도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공급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자원봉사의 대상, 장르, 활동내용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자원봉사 활성화가 아니라 대상·장르·내용별로 적합한 자원봉사 모델 개발
- 부처별로 최적의 자원봉사모델을 설정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한 후, 이것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다. 문화 자원봉사의 개념과 범위 규정

○ 문화 자원봉사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함
- 현재는 문화 자원봉사는 지역 문화축제 참여, 문화시설의 업무 보조, 시민대상 문화예술활동,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활동 등이 혼재되어 있음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함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지향점을 토대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유형화가 필요함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재능나눔, 돌봄, 기부 등에 대한 구분, 관계설정, 유형화가 필요함
- 이 같은 개념 규정이 있어야 이에 적합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라. 정책방향의 설정 및 관련 정책사업의 연계

○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가 독립된 정책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문화

정책 내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됨
- 문화복지정책,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시설 운영 등에서 문화 자원봉사와 연계된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됨
- 아직까지 동호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음

○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유형화 이후, 관련 정책들의 유기적 연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의 공통적 요인(문화복지정책의 일환, 문화시설 중심의 활동, 문화예술교육과 연계)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현재 상대적으로 활발한 문화시설 동호회의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3. 지자체 정책사업의 특성

가. 광역지자체

○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에서 나타난 광역지자체 정책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동호회와 자원봉사가 직접 연결된 사업은 거의 없음

○ 둘째,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동호회 지원사업을 진행함
- 동호회 지원사업의 주체는 광역 문화재단임
- 문화재단의 사업은 창작지원(전문예술 지원)과 향수자(일반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마추어 예술인(단체) 지원은 창작지원과 향수자 지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함
- 관련사업: 서울(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시민축제 지원), 경기도(문화기반시설 동호회 지원, 동호회 연합예술제 지원)

○ 셋째, 동호회 지원사업의 성격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① 강사료, 연습공간, 장비 임차지원 등으로 동호회 역량강화가 목적임
② 동호회 연합예술제 지원으로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임
③ 시민축제 참여를 전제(前提)로 한 동호회 지원임
④ 취약계층 대상 활동을 전제(前提)로 한 동호회 지원임
-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화 자원봉사와 관계없이 동호회 지원사업임
-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있음

· 시민축제, 취약계층 대상 예술활동 자체에 대가성(對價性)이 없고, 타자를 위한 행위이므로 일부 자원봉사의 성격을 지님
· 하지만 시민축제, 취약계층 대상 예술활동을 위해서 재단에서 지원금을 실비(實費) 이상으로 받았다면 자원봉사로 보기는 어려움

○ 넷째, 중앙정부와 달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음

○ 다섯째,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없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 여섯째,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문 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시도하고 있음

○ 일곱째,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나타남
-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시군)과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함
- 경기도는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 아마추어 예술인(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나. 기초지자체

○ 강릉시(도농통합시)와 군포시 사례에서 나타난 기초지자체 정책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여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음
- 문화시설에 기반한 자원봉사단 활동이 활발함
- 강릉시에서는 문화의집, 문화원 소속 자원봉사단이 활동 중임
- 군포시에서는 문화센터 운영에 자원봉사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둘째, 문화시설 문화교육 수강생들이 봉사단체를 구성한 경우가 많음
- 강릉 문화원의 자원봉사단체 4개 중 3개는 수강생들이 구성한 것임
- 2003년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강릉시 시낭송 동호회)
- 동호회가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경우는 찾기 어려움

○ 셋째, 시 단위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접 문화봉사단 운영(문화봉사단 5개, 청소년/대학생 봉사단 10여개)
-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가운데 문화예술단체는 17%

○ 넷째, 지역축제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함
- 강릉시 단오제(135명, 2011년), 정동진독립영화제

- 군포시 축제에는 매년 50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

○ 다섯째,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전문 예술인 재능나눔은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음

○ 여섯째, 중앙정부—광역지자체와 체계적 연계는 뚜렷하지 않음

〈표 3-20〉 자치단체별 행정 단위 연계 및 주요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서울	경기도	강릉시	군포시
광역-기초 연계	기초 구(區)지역과 연계 없음	도내(道內) 시/군과 연계사업 진행하고자 함	광역과 연계사업이 많지 않음	광역과 연계사업이 많지 않음
주요 사업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시민과 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행사	시설기반 동호회 지원, 마을공동체 육성	문화시설 동호회의 자원봉사 지자체 축제 참여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	문화시설 동호회의 자원봉사 지자체 축제 참여 자원봉사센터의 문화 자원봉사

4. 지자체 정책사업의 시사점

가. 정책수행의 단위 설정

○ 광역지자체에서 대도시 지역과 도(道)지역은 동호회 연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의 수행 주체가 다름

- 대도시에서는 기초지자체인 구(區)와 특별한 연계 없이 자족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식이 적합함
- 도(道)지역은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도(道)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실제적 정책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함

- 강릉시와 군포시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례(異例)적인 사례임
- 중앙정부-광역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성과를 보인 것은 강릉시는 일찍이 문화영역을 특화한 곳이었기 때문임
- 군포시는 수도권 신도시로 문화자원이 많기 때문에 동호회 자원봉사가 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는 일반 시(市)지역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 가능함

나. 대도시 지역의 정책사업 추진방향

○ 대도시 지역에서는 전문 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시민대상 공연은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 복지시설 찾아가기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음
- 협의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전문 단체와 아마추어 단체의 연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재능나눔이 될 수 있음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인력과의 연계사업을 검토

○ 지원의 대상이 아마추어 예술단체인데, 이 단체는 준(準)전문단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동호회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 기반 동호회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 단위 사업,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가 거의 없는데, 시(市)/구(區) 단위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마을 단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다. 수도권 신도시의 정책사업 추진방향

○ 문화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하는 문화 자원봉사, 구도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

○ 대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문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대도시 지역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라. 일반 시/군지역의 정책사업 추진방향

○ 지역축제의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시설의 동호회의 자원봉사를 시설 내(內)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의 문화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 내에 예산, 인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도(道) 단위의 정책사업과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제4장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관련 정책사업

제1절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 2012년 전라북도는 '삶의 질'을 핵심 도정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문화복지, 체육복지, 슬로시티를 추진하고자 함

○ 문화복지의 실현의 한 가지 축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설립임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사례를 살펴봄

○ 도(道) 단위 계획이지만,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전주시), 도농 통합지역(완주군), 농촌지역(진안군)을 분리하여 분석함

1.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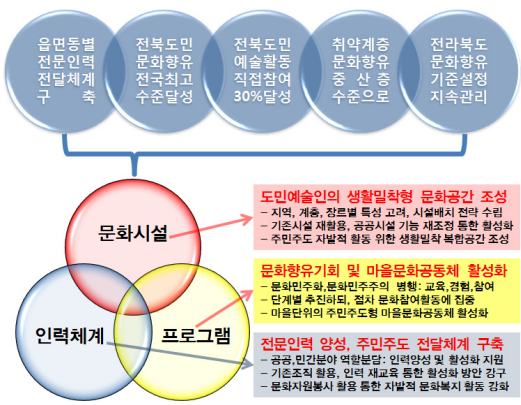
가. 설립 배경과 목적

○ 문화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 비전

· "단순 예술관람부터 문화공동체 조성까지 다양한 지원(시설, 프로그램, 인력체계)을 통해 창조적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50만(15세 이상 도민의 30%) 도민예술인을 육성해, 도민 스스로 문화를 향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화자치 실현"

– 추진전략



[그림 4-1] 전라북도 문화복지 추진전략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인력체계와 관련되며,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한 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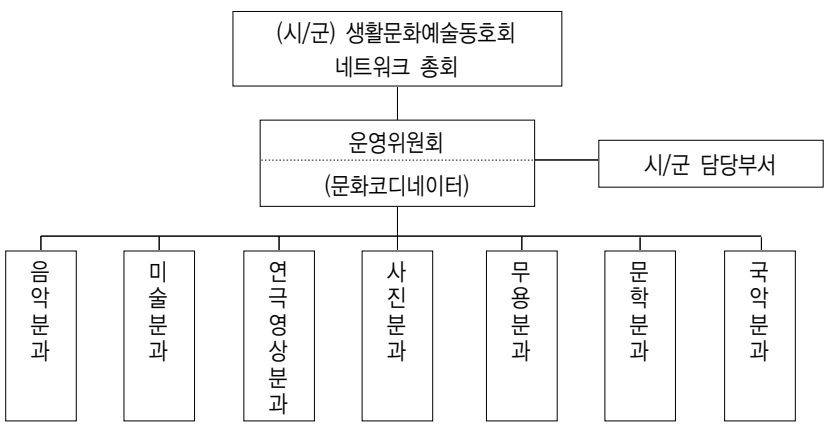
○ 네트워크 구축 진행사항
- 2011년 하반기에 네트워크 설립 계획 수립
- 2012년 상반기에 전라북도 및 시·군별 네트워크 설립 완료
- 시·군별 네트워크를 담당한 전문인력으로서 문화코디네이터를 양성·배치
- 읍/면/동에는 문화 자원봉사자를 양성·배치해 지역주민—문화시설·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매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 수립
- 문화복지를 위하여 도—시/군—읍/면/동별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며, 민간부문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군별 문화코디네이터와 문화 자원봉사를 매개인력으로 활용하는 이원적 구조

나. 네트워크 현황

1) 전라북도 네트워크 현황

○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동호회)의 개념
- 전문예술인의 활동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여가활동으로써,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포괄적 모임
-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개별 동호회를 의미하며 개별 동호회가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

○ 네트워크 가입대상
- 전라북도에 근거를 둔 5인 이상, 3개월 이상 활동한 동호회로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구분하지 않음
- 영역: 총 12개 분야
  · 문화 5개 분야(공예, 문학, 미디어, 전통, 서예)
  · 예술 7개 분야(무용, 음악, 영화, 연극, 미술, 사진, 건축)



[그림 4-2]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조직

○ 네트워크 등록 동호회 및 회원 수(2012년 9월 말 기준)
- 등록 동호회: 684개
- 등록 인원: 12,351명

〈표 4-1〉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가입 동호회 및 동호회원수(2012.09)

구분	계		음악	미술	연극	사진	무용	문학	전통	공예	서예	영화	건축	미디어	기타
시군	단체	회원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계	684	12,351	231	37	10	57	84	30	152	43	21	1	1	2	15
전주	127	2,300	33	9	1	20	24	6	31		0	1	1		1
군산	100	1,361	31	5	3	13	6	8	15	14	2				3
익산	69	1,351	31	1		2	9	2	18					2	4
정읍	46	543	29	1			7		6		3				
남원	44	864	13	5	1	7	9	1	8						
김제	48	1,003	18	4	1	1	4	1	13	3	3				
완주	49	668	18	3		1	5	2	9	6	2				3
진안	32	525	6			1	5		12	7	1				
무주	37	640	13	4		4		2	4	6					4
장수	29	552	6		2	3	5	1	5		7				
임실	14	861	7	1		1	3	1	1						
순창	24	370	8	1	1	1	4	2	5	2					
고창	30	585	7	1	1	2	2	2	10	4	1				
부안	35	728	11	2		1	1	2	15	1	2				

○ 네트워크 관련 예산내역
- 전체예산 7억 8,500만원
- 도비 4억 4,100만원(56%), 시/군비 3억 4,400만원(44%)
- 순수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은 3억 7,500만원(48%)

〈표 4-2〉 전라북도 네트워크 관련예산

사 업 명	2012년도 예산(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	
계	785,000	-	441,000	344,000	
시군별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170,000		51,000	119,000	도비 30%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지원	375,000		150,000	225,000	도비 40%
도 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240,000		240,000		

○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 시군별 예산
- 도비는 인구비례에 따름
- 도비 40%, 시군비 60% 매칭형태로 진행

〈표 4-3〉 전라북도 시/군별 네트워크 예산

시 · 군	계(천원)	비율(%)	도비(천원)	시 · 군비(천원)
총 계	375,000	100	150,000	225,000
전주시	80,000	21	32,000	48,000
완주군	22,500	6	9,000	13,500
진안군	12,500	3	5,000	7,500
무주군	12,500	3	5,000	7,500
군산시	50,000	13	20,000	30,000
익산시	50,000	13	20,000	30,000
정읍시	25,000	7	10,000	15,000
남원시	25,000	7	10,000	15,000
김제시	25,000	7	10,000	15,000
장수군	12,500	3	5,000	7,500
임실군	12,500	3	5,000	7,500
순창군	12,500	3	5,000	7,500
고창군	17,500	5	7,000	10,500
부안군	17,500	5	7,000	10,500

2)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의 네트워크 현황

○ 전주시(도시형, 인구 64만), 완주군(도농복합형, 인구 8.5만), 진안군(농촌형, 인구 2.7만)의 네트워크 현황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을 살펴봄
- 시/군별 네트워크의 가입대상, 조직형태는 전라북도 네트워크와 동일함
-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도농복합/농촌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첫째, 네트워크 내 장르별 분과구성의 차이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는 연극, 영상, 건축에서 드러남
- 건축, 연극, 영상분과는 전주시에만 구성됨

○ 둘째, 네트워크 가입 동호회의 장르별 편차가 나타남
- 전라북도 전체에서는 음악, 전통 분야 동호회가 다수를 차지
  · 전라북도가 전통예술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는 특성이 반영됨
  · 농촌지역은 대부분 면 단위별로 주민 농악단이 결성돼 있어 전통예술 분야에서 강세 보임(군 지역은 매년 면 대항 농악경연대회 개최함)
- 공예 동호회는 완주군과 진안군에서만 가입됨
  · 공예 동호회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활발함
- 진안군에는 미술, 문학 같은 순수예술 동호회가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같은 군지역일지라도 도농통합지역인 완주군에는 미술, 문학 등 순수예술 분과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음
  ·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싼 도농복합지역으로 주 활동무대가 전주시인 사

람들, 특히 젊은 연령대가 거주하고 있음
- 결국, 순수예술과 첨단기술 활용하는 분야(영상, 영화), 전문공간이 필요한 분야(연극 등)는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셋째, 세 개 지역 모두에서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시/군별로 가입 동호회 수를 늘리기 위해 전문예술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네트워크에 가입시킨 결과임
-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전문예술 동호회와 생활문화 예술동호회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음
- 농촌지역의 사진, 서예, 국악, 무용 등의 장르에서 예총회원 등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표 4-4〉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의 네트워크 현황 비교

시군	시군 예산(천원)	분과 결성 현황	동호회 수
비교	- 인구에 따라 도 예산 차등 지원 - 인구1인당 지원금액은 진안〉완주〉전주 순이지만, 1동호회당 지원금액은 전주〉완주〉진안순	- 도심은 다양한 분과 결성. 농촌은 전문공간, 첨단장비 필요한 장르, 순수예술 분야 열악	- 도농지역 모두 음악,전통 집중 - 도심일수록 다양한 장르 분포
전주	80,000(1동호회당 629)	10개(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영화,음악,건축)	10개 분야 127개
완주	22,500(1동호회당 459)	7개(음악,미술,사진,무용,문학,국악,공예)	9개 분야 49개(연극,영화,영상,건축 분야 없음)
진안	12,500(1동호회당 390)	6개(음악,미술,사진,무용,문학,국악)	6개 분야 32개(미술,연극,영화,영상,문학,건축 분야 없음)

○ 넷째, 도시지역 동호회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지만 농촌지역일수록 동호회가 마을 단위로 결성돼 있으며, 마을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
- 진안군에서는 면(面) 단위 주민농악단이 동호회로 가입하여 전통예술의 가입이 가장 많음
- 전주시의 전통예술 분야는 시설(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등) 단위 중심으로 결성

다. 네트워크 가입 동호회 지원 내용

○ 동호회 활동 공간 지원
- 민간시설 활용 : 초기 공공시설위주 → 향후 민간시설 확대
- 종교시설 (교회 등), 민간운영 청소년 수련시설(16개소) 활용
- 마을회관 2,500개 중 활용 가능한 500여개 활용

-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등의 전용시설 확대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계획과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추진

○ 동호회 지도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예총 등 예술단체와 연계한 강사풀제 구축: 예총, 민예총,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문화재단(전주, 익산) 추천 의뢰
- 강사풀제: 숙련 동호회원과 초보동호회와의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 멘토 역할수행, 동호회에 대한 DB 구축, 수준별 단계별 지원 육성
- 프로그램 지원: 동호회 12개 분야별로 교육지원프로그램 확대 지원

○ 네트워크 지원 원칙
①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 추진 행사비 지원
② 활동공간 지원: 연습, 발표, 정기경연대회 시 활동공간 임차료, 공연장, 무대, 회의장 등 임차료, 각종 장비 임차료(연극소품, 무용의상 등)
③ 교육(강사)지원: 동호회 교육, 교재제작보급, 강사비 등
④ 도, 시/군 단위 행사 참여지원: 페스티벌 행사 등 단체연습비용, 행사참여경비
⑤ 홍보비: 팜플렛, 리플렛 등
⑥ 지원제한 사항
· 개인 및 종교활동 등 특정단체 지원 또는 주관행사
· 개인 수혜적 경비, 동호회 활동과 관련 없는 운영비, 시설비 및 기타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출항목

라. 네트워크와 문화 자원봉사

○ 네트워크는 1차 목적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에 있지만, 이러한 활성화가 지향하는 바는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있음
- 네트워크 정관의 사업 목적에서도 지역사회 공헌이 포함됨

> 전라북도 OO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정관
> 제2조(목적)
> 본 단체는 OO시(군)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의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네트워크는 주민참여 문화활동, 문화 자원봉사와 연계된 활동을 지향함

○ 네트워크와 문화 자원봉사 관계에서 시/군별 편차는 거의 없지만, 문화활동의 대상이 약간 다름
- 동호회 페스티벌, 지역축제 참여 활동 등은 동일함

- 다만 전주지역의 동호회는 취약계층 시설(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문화 자원봉사를 행함
- 농촌지역(완주군, 진안군) 동호회는 지역주민 대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룸

2. 유관정책과의 연관성

가. 문화복지정책

1)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 자원봉사를 중요한 목표이자 전략으로 설정함

○ 문화복지 인력 및 체계 전략의 6개 사업 가운데 '1만 문화 자원봉사 양성 및 활성화 지원'이 포함됨

○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문화 동호회 참여율과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이 6대 지표에 포함됨

- 문화 동호회 참여율: 6.5%(2010) → 21.0%(2016)
-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 8.6%(2010) → 20.0%(2016)

전라북도 '1만 문화 자원봉사 양성 및 활성화 지원' 계획

○ 사업시기: 2014년 이후

○ 사업대상: 시군별 문화 자원봉사 희망자

○ 사업예산: 매년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역별 문화 자원봉사자 양성 계획

항목	필요인력	합계
문화시설	194개×시설별 20명=3,880명	10,000명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및 지역활동)	240개×지역별 10명=2,400명	
민간 사회복지시설	120개×시설별 10명=1,200명	
유치원 및 노인시설	1,000개×시설별 3명=3,000명	

- 연차별 양성목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육성인력	1,0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3,000명

2)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문화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지 않음
- 각 시설(문화원, 문화의집 등)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동호회 등을 통해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짐
- 특정 시설에서 문화 자원봉사 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등)

○ 전라북도의 문화복지정책 추진 이후 시/군에서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 자원봉사를 독자적 사업 영역으로 인식하지는 않음

나. 예술진흥정책

○ 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정책변화 및 새로운 갈등이 나타남
- 예총을 비롯한 전문예술인 단체는 전라북도가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생활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
- 전라북도의 예술인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예술인 복지가 아니라 문화 동호회 등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비판임
- 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예총에 소속되어 있던 예술인이 네트워크로 소속 단체를 옮기고 있음을 비판함
  · 이러한 현상은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의 구분이 불분명한 장르(예: 서예, 전통, 사진 등)에서 나타남
  · 기존 예총 조직에 비해 네트워크에서 활동 지원금(전시, 공연 등)을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인식함

○ 전라북도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군에서도 생활문화예술이 독자적 사업영역으로 자리 잡음
- 전라북도 문화정책의 변화: 전문 예술진흥정책 → 생활 문화예술 병행
- 도시 지역에서 생활 문화예술의 독자적 사업 영역화가 분명함
- 농촌지역에서는 전문 예술인-아마추어 예술인의 연계사업 시도 중임

다. 마을만들기사업

1) 전라북도 슬로시티 전략

○ 전라북도는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슬로시티 사업 추진

○ 슬로시티와 문화 자원봉사
- 지역공동체 조직 활성화가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와 관련됨

- 주요 사업으로 문화공동체 동아리 활동 운영을 설정
- 농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이를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

2)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 전주시의 마을만들기
- '문전성시 프로젝트',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시범지역 선정
- 이에 따라 문화활동을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음
-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전주시의 문화정책이라기보다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의 결과임
-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한 정책은 없음

○ 완주군의 마을만들기
- 군(郡) 예산을 편성해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 전통문화, 전통놀이, 전통음식, 생태문화, 전래동화, 예술공동체 등 6개 분야에서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해 마을당 1천만원씩 지원
- 성과를 거둔 마을은 농림부 마을문화공동체 사업으로 확대 육성

○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 마을만들기의 대표사업으로 마을축제 개최
- 진안군 300여개 마을이 참여
-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한 지역임
- 주목할 만한 사업은 '소박한 마을잔치'라는 이름으로 마을주민이 준비한 문화행사

라. 자원봉사센터

1) 전라북도

○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문화 동호회 또는 전문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취약계층 등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연계사업은 거의 없음

○ 최근에는 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2)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 전라북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성이 약함

○ 문화 동호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특별히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염두에 두지 않음

○ 전주시
- 네트워크 등록 문화 동호회 활동과 자원봉사센터의 연계가 없음

○ 완주군
- 네트워크에 등록한 문화 동호회가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봉사실적을 인증 받으려 하지 않음

〈표 4-5〉 전라북도 문화정책과 문화 자원봉사

시군	문화(예술인)정책과의 관계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관계
전북	ㅇ 전문예술/생활예술의 이원화 - 예총조직과 네트워크 활용	ㅇ 연계활동 없음	ㅇ 농촌 활력화 전략으로 활용
전주	ㅇ 전문예술/생활문화의 이원화 - 문화재단이 생활문화 주도	ㅇ 연계활동 없음	ㅇ 구도심, 시장활성화에 활용 - 관외 활동가의 활동 중심
완주	ㅇ생활문화정책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문예술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연계 공동사업 추진	ㅇ 연계활동 없음	ㅇ 마을만들기사업에 적극 활용 - 관내 주민의 직접 참여 - 도심에서의 이주민 역할 중요
진안	ㅇ 완주군과 유사	ㅇ 연계활동 없음	ㅇ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 활용 - 관내 주민의 직접 참여 - 귀농인의 역할 중요

3. 사업성과

가. 문화 동호회 활성화

○ 문화 동호회의 규모, 활동내용, 장르별 구성현황 등의 체계적인 파악
- 이전까지는 개별 동호회 파악이 어려웠음
-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각 시군별 코디네이터가 배치되면서 개별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됨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다양하게 매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자율적 생활문화 지원체계 구축
- 생활체육협회를 참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함
- 지원에서 상대적인 자율성 확보
  · 전라북도 담당공무원은 네트워크 사업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로 자율적으로 진행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자발적 지원체계로서 네트워크와 매개인력 배치
- 매개자가 지역사회—문화 자원봉사자—문화 동호회—네트워크—행정기관 등을 연계함
- 관은 지원하고 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발적 민간 전달체계 확립

○ 공동활동 및 동호회 페스티벌 지원
- 동호회 지원원칙을 공동(협력)활동, 강사, 공간 지원 등에 한정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페스티발 지원을 통하여 동호회 역량강화

○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심화
- 예술인 중심의 예술진흥정책에서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을 함께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 관련 예산의 증액: 2012년(3억 9천만원)→2013년(7억 9천만원)

○ 시설 및 기관 소속이 아닌 개별 동호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냄
- 기존에는 대부분 기관 및 시설 중심으로 동호회 현황을 파악했음
- 네트워크에 가입한 동호회(684개) 중 비시설 동호회가 223개에 달함

○ 개별 동호회의 네트워크 참여에 따라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기대

나. 동호회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 동호회 페스티벌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개별 동호회 연합으로 지역 단위 축제 개최
- 동호회 연합의 발표 장(場)이면서 무보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문화 자원봉사의 성격이 있음
- 전주시 동호회 페스티벌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로 꽃피다'라는 주제로 진행
  · 기획부터 준비, 진행, 결산까지 모든 것을 동호회가 주도적 수행
- 완주군: 네트워크 발대식과 페스티벌
- 진안군
  · 코디네이터 교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짐
  · 2012년 12월 현재 네트워크 발대식과 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못함
  ·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이사회 개최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함

○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문화 자원봉사활동 증대
- 네트워크에서 동호회 연합활동, 또는 문화 자원봉사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 간접 지원방식으로 예산 지원

- 개별 활동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개별 동호회가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더라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예산마련이 쉽지 않아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4. 개별 문화시설의 동호회와 자원봉사

○ (전라북도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문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사례를 살펴봄

○ 효자 문화의집에서는 네트워크와 관련 없이 몇 년 전부터 문화 자원봉사사업(‘효자동 사람들’)을 진행하고 있음

○ ‘효자동사람들’의 특성
- 문화 자원봉사단을 공개 모집하고,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문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동호회를 구성한 경우임

○ 문화코디
- 문화의집 운영 참여(문화강좌 및 동호회 안내, 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댓글달기)
- 효자동사람들 ‘소양교육’ 프로그래밍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월 1회)
- 효자동사람들 운영 및 향후 방안 모색
- ‘동지팥죽제’ 및 ‘효자동축제’ 운영
- 지역의 문화정보(공연, 전시) 안내 등

○ 문화생태해설사 온새미로
- 우리지역만의 문화+역사+생태 중요성 알리기
- 생태보존 실천사업
- 지역 아동·주민 위한 문화생태교육 활동 등

○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북-북’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의 지원으로 수행했으나, 2012년에는 별도의 작업 수행
-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나눔봉사
- 효자동이야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 개발
- 그림책 읽어주기 워크숍을 통하여 북-북 활동프로그램 개발
- 북-북은 동호회↔문화 자원봉사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음

5. 참여자 의견

○ 전주시와 완주군의 문화 동호회 및 자원봉사단체회원(네트워크 소속 6명, 비소속 8명), 지역문화 활동가(공공 문화기관 근무자, 문화 매개인력 포함 3명)를 심층면접한 결과임

○ 네트워크 소속 동호회와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동호회(봉사단)로 구분하여 살펴봄

○ 지역문화 활동가, 동호회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활동가와 동호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명시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임
- 다만 동일한 동호회에서 여러 사람이 응답한 경우에는 A, B를 표시하여 개인별 응답의 차이를 노출함

가. 네트워크 소속 동호회

1) 동호회원의 속성

○ 문화 동호회원은 대체로 10명 이내, 여성, 주부들이 주축을 이룸

AOOO(전주시 미술 동호회): 10명 정도인데, 혼자만 남자고 다 여자에요

BOOO(전주시 미술 동호회): 10명인데 다 여자에요. 처음에 주부 동호회로 시작했거든요

OOO(완주군 미술동호회): 5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4명이 여자에요

OOO(완주군 작은도서관 동호회):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연령대는 40대 중반 여성 분들이에요

○ 군(郡)지역에는 노인들의 참여가 많은 특성을 보임

OOO(완주군 문화활동): 농악단이나 풍물팀 빼고는 거의 대부분 여자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완주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동아리가 많아요.

OOO(완주군 도서관 동호회): 저희는 연세 많으신 70대 분들도 계시구요. 활동도 더 열심히 하세요.

○ 도시 지역은 시설기반 동호회보다 일반 동호회가 많으나, 군(郡)지역에서는 시설동호회가 많음

OOO(전주시 문화활동) : 전주는 자치(시설과 관련 없는) 동호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주, 익산, 군산 정도만 그래요(연구자: 도시지역임). 다른 군(郡)지역은 군청(郡廳)에서 파악한 게(문화원, 예총) 대부분이에요

2) 문화 자원봉사 인식

○ 네트워크 가입 이전(以前)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은 동호회의 성격에 따라 다름

- 문화시설과 관련 없는 동호회(비시설 동호회)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없음(전주시 사례)
- 시설과 연계된 동호회에서는 네트워크 가입 이전(以前)부터 자원봉사에 참여함

OOO(완주군 도서관 동호회): 기본이 책 좋아하는 엄마들의 모임인데, 도서관이 생기기 이전(以前)에는 사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도서관이 생기면서 군(郡)에서 평생 교육차원에서 엄마들이 독서지도사를 2년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모이게 된 엄마들이 받은 것을 환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방학마다 일 년에 여름, 겨울 일주일씩 아이들 독서캠프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OOO(완주군 미술동호회): 문화의집에서 모이게 되었죠. 네트워크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벽화 같은 것을 했어요

○ 네트워크 가입 이후에도 동호회 성격에 따라 문화자원 봉사에 대한 의견이 다름

- 문화시설과 관련 없는 동호회는 문화 자원봉사보다 자신들의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에 관심이 많음
  · 시민과 함께하는 '페스티발'을 자원봉사로 인식하지 않음
  · 페스티발에 참여하면서 타인과의 교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반면에 시설기반 동호회에서는 스스로의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인지함
  · 네트워크 가입 이전에도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함

AOOO(전주시 미술 동호회) : 자원봉사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미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저희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네트워크에서 페스티발을 한다는 데, 동호회의 책임을 맡다

보니 동호회 차원에서 또는 나에게 보람이 있을 것이고 해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호회와 함께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재미있고. 땀이 나도 피곤한지 몰랐어요. 다른 회원 분들은 우리 대표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며 하는 걸 보고, 직접 와서 하다 보니 재미를 느끼게 되고 동참하게 된 거죠.

BOOO(전주시 미술 동호회) : 저는 자원봉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회원들도 봉사라고 했다면 안 했을 것이에요. 사실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해요. 돈에 대해서는 대놓고 우스개소리로 "이 돈으로 뭘 오라 가라 하느냐" 했어요. 실비 재료로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봉사이고 어떻게 보면 봉사가 아닌 것인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다가오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요. 봉사라고 하면 회원들이 참여를 안 했을 거에요. "내가 즐거우면 즐거울 것이다" 해서 페스티발에 참여했죠. 저도 몰랐는데 2~3일 후에 보니 자원봉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봉사가 되었나" 보니까 시민들이 즐거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이 보수 없는 봉사를 한 것이구나, 아 이런 것도 봉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동호회 페스티발에서) 3살 어린아이 그림부터 50대까지 시민들이 그린 그림이 다 모였어요. 시민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해냈어, 전주시에 3-4년간 남을 수 있는 그림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 작품이 되었네" 하는 거에요. 우리 회원들은 나중에 "그게 봉사였어" 할 겁니다.

OOO(전주시 문화활동) : 지역 분들은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동호회 분들과 지역이 어떻게 만날까"라고 생각하지 자원봉사란 개념을 쓰진 않았어요.

3) 지원에 대한 의견

○ 자원봉사활동 참여에도 경제적 지원이 유인 변인임

AOOO(전주시 미술동호회): 우리는 영세한 동호회들이에요. 저희는 지원을 바랬죠. 물론 시(市)에서 처음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행사했지만, 이것(시민페스티벌을 가리킴: 연구자)은 우리의 행사인 거죠.

OOO(완주군 복지시설): 저희가 'OO봉사단'(완주군 네트워크 지원이 아니라 전라북도 평생교육원의 공모사업임: 연구자)이란 그룹을 만들었어요. 의도했던 것은 어르신들의 재능을 묶어서 봉사하는 거에요. "어르신 이번엔 하모니카 배워서 여기 동호회 가서 합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동호회 지원이

된다면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에요.

○ 전문 예술인과의 갈등

OOO(소속 노출하지 않음, 연구자): OO분과에는 예총에 소속되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예총회원 분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셔서 첫 모임 가서 너무 당황했어요. "프로는 프로끼리,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끼리 하다보면 죽이든 밥이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OOO(전주시 문화활동): 예총회원이 전문가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어요. 예총에 가입하면 문예진흥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생기자, 그분들이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총에서는 반발이 생기죠.

○ 공간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잠재적으로 나타남
- 시설기반 동호회는 시설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항시적인 공간을 원함
- 비시설 동호회는 역시 자체적인 공간(회원들이 갹출)을 지니고 있지만,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공간 지원을 바람

OOO(전주시 문화활동): 시설기반 동호회 회원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공간이에요. 공간을 항상 쓸 수가 없잖아요. 시간대 별로 잠깐 쓰고 나오는데 동호회 활동을 강화하려는 분들은 우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 자원봉사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음
- 완주군 복시시설 내의 동호회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인증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음
- 복지시설 동호회에서는 VMS에 따라 자원봉사 인증을 하고 있음

연구자: 'OO봉사단' 그분들도 실적으로 인정합니까?

OOO(완주군 복지시설): 해달라고 하면 해드려요.

연구자: 그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세요?

OOO(완주군 복지시설 내 동호회): 네. 복지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세요.

4) 네트워크 활성화의 조건

○ 동호회 및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의 가장 큰 변인은 리더의 역할임

AOOO(전주시 미술동호회): 회장님이 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팅 날짜를 잡고 축제가 언제 있다" 하면 저희는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은 지원신청서 내야하고, 프로그램 짜야하는데 직장인으로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거 같아요

연구자: 잘되는 동호회와 안되는 동호회의 차이,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OOO(완주군 문화활동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심이 되는 사람. 무언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한사람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이 동호회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강사분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중점이 되는 게 회장님 아니면 강사님이세요.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연구자: 생문동에서 지원이 끊겨서 코디네이터가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AOOO(전주시 미술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이) 불가능 할 것 같은데...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다리역할을 해주고 지원비나 프로그램, 축제를 기획해 주면 되는데 그게 깨지면 다시 끼리끼리가 될 거에요. 우리끼리는 친구가 되었으니 되겠지만 매개자가 없으면 시(市)와 관계도 어렵고...

BOOO(전주시 미술동호회) :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와 교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 매개체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잘못하면 알력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않은 동호회

1) 구성원의 속성

○ 우리춤 동호회[55]
- 전주시 효자 문화의집에서 문화예술 수강자로 구성됨
- 문화예술교육 → 동호회 →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구조임

55) 우리춤 동호회는 형식상으로는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네트워크와 관련성이 높지 않음

- 현재 인원은 다섯 명 정도이고 40세 이상 여성들로 구성됨

○ 북-북은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의 사업으로 시작됨
- 2011년까지는 (사)문화복지협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2012년부터는 효자 문화의집 예산으로 운영됨
- 북-북은 노인들의 문화 자원봉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55세 이상이 가입가능함
- 현재 활동인원은 다섯 명 정도이고,한 명을 제외하고는 여성들로 구성

2)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활동

○ 네트워크 소속 동호회에 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우리춤 동호회는 교육 → 동호회 → 자원봉사의 순서로 조직형태가 바뀜
- 북-북은 자원봉사 → 교육 → 동호회의 순서로 조직형태가 이루어짐

AOOO(우리춤 동호회): 처음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없이 운동삼아 이런 것 배워보자 시작한 것이 하다 보니, 처음에는 실력도 안 되는데 조금씩 실력이 늘잖아요. 늘었을 때 어디선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 연습도 되고 하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게 된 것이지 막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OOO(문화의집): 안에서만 즐길 게 아니라 open class처럼 다리 밑에서 하든지, 삼천(三川)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년 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 하고. 그런데 동호회 분들이 '자스민 예술단'(연구자: 우리춤 동호회는 자스민 예술단에 포함됨)이란 이름을 만드시더라고요.

동호회 대표님들이 나 혼자만 만족하고 무대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문화로 행복한 동네가 되려면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신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문화의집) 모집을 했어요.

BOOO(북-북회원):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요. 하다보니까 봉사도 될 수 있고요. 친목도 될 수도 있어요. 동아리도 될 수도 있고요. 너무도 화기애애 하니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북-북회원들은 이전(以前)부터 자원봉사를 한 경우가 많음
- 자원봉사 경험이 문화 자원봉사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춤 동호회원들은 동호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

원봉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함

AOOO(북-북회원):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봉사 활동 해야겠다.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북-북회원이 되기 전에) OO효심원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친구 아버님이 계셔서 그런 인연으로 거기 가서 소리도 해주고 흘러간 노래도 해주고 했어요.

BOOO(북-북회원): 복지관 가서 할머니들 밥 배식 봉사 해보았어요.

AOOO(우리춤 동호회):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끼리 한다면 너무 이기적이죠.

BOOO(우리춤 동호회): 기량만 연마할 것 같으면 학원가서 배우겠죠.

○ 우리춤 동호회들의 활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리공연, 노인 요양원 공연 등으로 구분됨
- 공연 내용은 비슷하지만 회원들의 느낌은 다름
- 노인 요양원에서 공연을 하면서 동호회원들은 스스로의 변화를 느낌
- 거리 공연, 동(洞) 행사를 통해서 자족감, 마을 공동체성을 느낌

AOOO(우리춤 동호회): 요양원을 다니면서 하다보면, 어르신들 보면 맘이 짠해요. 나중에 공연이 길어지면, 다른 팀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 부모에 대한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들 다른 봉사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수지침이나 미용, 건강에 관한 것은 연장만 있으면 쉽게 갈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COOO(우리춤 동호회): 요양병원 갈 때는 우리가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가져 가 봤거든요.

AOOO(우리춤 동호회): 삼천에서 활동할 때에는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OOO(문화의집): '자스민 예술단'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본인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로만 봤다가 화장을 딱하고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전히 우와 저사람 저런 것도 해? 다르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예술활동을 하셨는데, 이제야 지역하고 만나는 부분은 생긴 거죠.

나 혼자만 만족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문화로 행복한 동네가 되려면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동호회 대표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3) 지원에 대한 의견

○ 문화의집은 협력하여 자원봉사를 매개하고, 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공간, 음향설비를 제공함

BOOO(우리춤 동호회): 공연을 천변(川邊)에서 하는데, 동(洞)에서 지원을 해줘요. 전기시설을 해야 하는데 동(洞)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는 공연만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무일푼인데 동에서 협조를 해주니 돈을 안 써도 되요. 나머지 인적자원은 문화의 집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OOO(문화의집): 우선 동(洞)에서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셋팅을 다 해주세요. 저희는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차량(트럭)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동에서 그것을 해주시죠. 우리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만약에 사회자를 누가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대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뛰기도 하고. 긴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해요.

○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동호회에서 출발한 우리춤 동호회는 북-북에 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심이 많음
- 반면에 자원봉사에서 출발한 북북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음

COOO(우리춤 동호회): 소품 같은 거 원할 때 한 번씩 해주면 좋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소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 봉사가면 교통비 정도를 주면 좋죠. 기름 값이라도 나오면...봉사는 봉사지만 내 사비(私費)를 들여가며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은 문화의집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AOOO(우리춤 동호회): 우리가 가정주부다 보니 강사비(동호회원을 가르치는 강사를 의미함, 연구자)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면 수월하죠

AOOO(북-북): 000에 공연하러 갔을 때 저희가 조금 늦었더니 그 원장님이 얼굴을 찌뿌리고. 우리가 한 20만원씩 받고 노인 일자리처럼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연습 때문에 늦었는데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BOOO(북-북): 이 나이 정도 되면 실비(實費)에 연연하게 되는 건 아니죠.

COOO(북-북): 그래도 안 그래. 돈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연구자: 실제 받으시면 어떠세요?

BOOO(북-북):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문화의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나이 먹은 어른세대들에게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실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했지만, 실비를 준다면 더 행복하겠죠.

○ 공간 및 강사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음

OOO(문화의집): 외부에서는 공간이 없는데 효자 문화의 집에 가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팀도 있고요.

AOOO(우리춤 동호회): 공간 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큰 것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 이런 것이 가장 큽니다.

DOOO(우리춤 동호회): 문화의 집 내에는 공간 사용료가 이만 원밖에 안 듭니다. 이거만 내면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일단은 공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이 문제지 공간이 없으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EOOO(우리춤 동호회): 선생님(동호회원을 가르치는 강사를 의미함, 연구자) 급여 같은 것이라도 지원해주면, 반반이라도 지원해주면 좋죠.

○ 자원봉사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효자문화의집의 자원봉사활동은 행정안전부, VMS에서 인증함
- 효자문화의집의 사업인 북-북은 인증을 받지만, 동호회인 우리춤 동호회는 인증받지 못하고 있음

연구자: 우리춤 동호회 분들은 인증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데요

OOO(문화의집): 솔직히 제가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당연히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거보다 지역에 나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제2절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 '사랑방문화클럽'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사례를 살펴봄
○ 사랑방문화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2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정도로 대표적인 문화 동호회 지원사업임

1. 사랑방문화클럽[56)]

가. 목적 및 활동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개념
  - 성남시를 소재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 사랑방문화클럽 회원 가입 조건
  - 성남시를 소재(所在)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클럽
  -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랑방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통해 이루어짐
  - 클럽 승인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보험, 학습지, 정수기 등의 기업 마케팅이나 정치활동 또는 종교적 포교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예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제한하고자 가입 심사를 함
  - 탈퇴는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사업 담당자에게 구두통보 등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음
○ 설립 목적
  -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클럽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재원 및 예산
  - 성남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2007년부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 옴

56)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정관 참조. 성남문화재단(www.snart.or.kr), 사랑방문화클럽 자료실

〈표 4-6〉 사랑방문화클럽사업 예산 추이(2007~2012)

연도	예산액(천원)	지원내용	지원방식[57]
2007	300,000	클럽 공모지원 사랑방클럽축제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클럽지기 모임 등)	(37)개별 클럽 활동지원 (직접 지원)
2008	340,100	문화공헌활동 지원 사랑방클럽축제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클럽지기 모임 등)	팀별 지원 (간접 지원)
2009	318,675		
2010	241,480		
2011	251,340		
2012	219,345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사랑방클럽축제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클럽지기 모임 등)	

○ 운영 주체
-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 정책 및 사업개발, 사업 실행 업무를 담당

나. 문화공헌 프로젝트

○ 일반시민 및 문화 소외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공헌 활동 실행

○ 문화클럽(동호회)에 대한 지원의 전제(前提)가 문화공헌 활동의 수행임
- 2008년부터 공원, 시장, 수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소외층 대상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실행

○ 문화공헌을 위한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의 변화

○ 2007년: 개별 클럽지원, 문화공헌과 연계하지 않음
- 공모를 통한 개별 클럽 지원
- 총 37개 클럽 지원, 클럽별 최대 300만원 지원
- 문화공헌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클럽을 지원
- 제1회 사랑방클럽 축제 개최

○ 2008년: 팀별(클럽의 연합) 문화공헌활동에 지원
- 문화공헌을 전제(前提)로 클럽들이 결성한 팀별 지원
  · 개별 클럽 지원 → 팀별 지원(팀장이 정산서 제출)

57) 2007년도는 공모를 통해 클럽에 직접 지원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문화재단이 클럽요구에 따라 집행함.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어려움, 사적(私的) 클럽활동에 대한 공적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재단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꿈

· 클럽 활동 지원 → 팀별 문화공헌 활동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의 시작: 7개팀(67개 클럽) 46회 행사
– 행사장소: 복지시설, 병원, 공원, 동네, 시장 등

○ 2009년: 문화공헌활동에 지원하지만 지원방식의 변화
– 지원방식 변화
· 팀장이 정산서 제출 → 문화재단이 직접 집행
· 무대, 조명, 음향, 홍보물 제작을 문화재단에 의뢰하면 문화재단 담당자가 이를 집행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총 13개팀, 102개 클럽, 45회 행사개최

○ 2012년: 문화공헌 명칭 변경, 비(非)공헌사업에도 예산지원
– 사랑방문화클럽활동에 대한 클럽 내부의 불만 제기
· 문화재단이 공헌활동에만 치중하는데. 클럽을 위한 활동 지원 지속적 요구
· 신규클럽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 제한 개선 요구
– 사랑방문화클럽의 공헌활동 외 클럽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문화공헌 프로젝트의 이름 변경)
· 총 16개팀, 137개 클럽, 31회 행사 개최
· 팀 구성 시 2~3개 신규클럽 참여를 명시
· 공헌활동 외 클럽의 기량 향상 및 발표 기회 제공 추가

○ 활동 주체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 1년 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은 팀별 구성을 통해 진행
· 매년 1~2월 워크숍 또는 개별 회의를 통해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할 클럽들을 정함
– 사랑방문화클럽 실무TF
·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1인과 각 팀별 팀장으로 구성(5~6명)
· 문화공헌 프로젝트 및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등의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을 지원(행사기획, 실행 등) 및 협의

○ 문화통화제도('넘실') 활용
– 지역화폐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시민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한 사업임
–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예술 행사를 행하면 '넘실' 제공
– 사랑방문화클럽은 '넘실'을 공간사용의 대가(對價)로 주로 사용하고, 사랑방 축제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2. 사랑방문화클럽과 유관정책

가. 마을만들기

○ 사업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사업기간: 2006년~현재
○ 사업내용
- 동네별 문화예술 교육 및 동호회 활동과의 네트워크 지원
- 전문 공공미술 작가그룹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고 동호회를 조직, 운영을 지원
- 기존 마을프로젝트는 지역 외부 또는 내부 작가그룹 중심으로 추진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지역 시민문화 동호회인 사랑방문화클럽이 주요 실행 주체로 참여
-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 공동체 성격이 강함

○ 사랑방문화클럽과 관계
-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나눔 방식으로 악기 및 공예 교육에 강사로 참여
- 동네축제 및 시장 행사에 초청팀으로 참여하여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함

〈표 4-7〉 사랑방문화클럽사업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사업 비교

구분	사랑방문화클럽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활동 성격	취미 중심 활동 공동체	생활 공간 공유 공동체
활동 지역	성남시 전역	동네
활동 역할	공연, 전시, 교육 실행자	공연, 전시, 교육 대상자

나. 예술지원사업

○ 목적
-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기반 조성 및 창조적 활동역량 강화
- 지역문화의 발전과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확대
-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지원
- 생활 속 문화예술공간 조성
-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문화예술인의 공공예술 전문성 강화

○ 진행방식 및 재원

-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사업(도비+시비 매칭)
- 공모를 통한 심사 후 지원 단체 선정,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 연계 활동
-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예술과 연계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
- 선정 예술단체 중 일부는 사랑방문화클럽과 공동으로 작업함
- 중앙시장 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 〈중앙'通'시장〉에 사랑방문화클럽이 참여함

다. 자원봉사센터 연계

○ 자원봉사센터 연계·협력 모색
-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활동 연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바 있음(2008~2009)
- 논의 내용
  ·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활동을 성남시 자원봉사 인증제와 연동
  · 성남문화재단이 자원봉사 수요신청기관으로 등록하고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활동 시 개인별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제도 논의
  ·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자원봉사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 등 논의

○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연계사업을 펼치지 못함
- 사랑방문화클럽 내부적으로 자원봉사 인증여부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명이 부족하였음
- 문화재단이 자원봉사 인증 신청 시 각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랑방회원의 거부감이 상당히 큼
- 반면에 회원들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 등을 들어 불편함을 제기(회원 대다수는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원활하지 않음)
- 회원들은 사랑방문화클럽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문화봉사와 달리,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할 경우 자신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예산 없이 언제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문제라고 인식함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시 문화재단이 교통·식대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 인증 여부 문제 발생함

라. 경기도 문화정책

○ 최근 3년간 경기도 문화정책 추진 내용

- 경기도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구축'과 '풀뿌리 문화예술 활동 기반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
- 이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

○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58] 설치(2012)
-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능나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규정
- 또한,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와 협력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경기도 종합계획(2011~2020)[59]
- 경기도는 202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주요과제로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설정하고 있음

○ 경기도의 사랑방문화클럽활동 지원
- '생활 속 문화예술 창조 및 소비기반 강화' 전략에 따라 시민문화 동호회 활동 거점 공간 확보차원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의 연습 및 발표 공간 건립을 지원(2012)
- 2012년 도비 4억원을 지원하여 신/구심 각각 1개소[60]씩 사랑방문화클럽을 비롯한 시민문화 동호회 활동 공간 건립을 지원
- 성남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칭사업비로 신도심 공간 건립 지원에 1억원, 구도심 공간 건립에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함
- 경기도의 지원에 따른 사랑방문화클럽활동 전용공간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전용 공간의 경우, 관리/운영이 용이하고, 클럽의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사랑방문화클럽사업과 같은 생활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 현재 문화통화제도를 통한 공간 품앗이 경우, 클럽이 희망하는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장기사용이 어렵다는 점, 선점 단체와의 조정 문제, 공간 사용에 따른 관리비 문제 등이 발생함
  · 따라서 활동 전용 공간의 확보는 이러한 문제를 일소하는 이상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음

58) 경기도청(http://www.gg.go.kr/gg/40474/ggnet/c3/law/page3_1.jsp)
59) 경기도청(http://www.gg.go.kr/gg/13304/ggnet/c3/plan/page1.jsp)
60)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유휴공간 1개소, 시민회관 유휴공간 1개소를 각각 2012년 말 설치예정임

3. 사업성과

가. 문화공헌사업의 특성

○ 연도별 문화공헌 사업의 전개
- 문화클럽의 연합팀이 연간 40회 정도의 문화공헌(한마당)을 추진하고 있음
- 이것은 개별 동호회를 넘어서 동호회 연합체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임
- 사랑방문화클럽(동호회) 예산지원의 약 25%가 문화공헌 프로젝트에 배당됨

〈표 4-8〉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추진 실적(2008~2011)

사업명	연 도	팀 구성수(참여클럽수)	실행 프로그램수	장소
문화 공헌 프로 젝트	2008	7(67)	46회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병원, 공원,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학교, 주민센터, 광장 등
	2009	13(102)	45회	
	2010	13(105)	40회	
	2011	12(105)	34회	



[그림 4-3]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참여 활동

〈표 4-9〉 사랑방문화클럽사업 중 문화공헌 활동 지원예산(2008~2012)

연도	전체 사업 예산액 (천원)	문화공헌 프로젝트사업 예산액 (천원)	비율 (%)
2008	340,100	86,613	25.5
2009	318,675	75,592	23.7
2010	241,480	54,544	22.6
2011	251,340	80,648	32.1
2012	219,345	53,000	24.2

○ 참여클럽 및 장르별 활동
- 사랑방문화클럽 가운데 65% 이상이 문화공헌활동에 참여
- 2011년 105개 클럽(64.8%), 2012년 137개 클럽(76.1%)

〈표 4-10〉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클럽 현황(2011~2012)

연 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클럽수	문화공헌활동 참여클럽수	참여비율(%)
2011	162개 클럽	105개 클럽	64.8
2012	180개 클럽	137개 클럽	76.1

- 공연팀의 경우, 2011년 76개 클럽, 2012년 113개 클럽이 지역복지관, 장애인학교, 방과후 학교 등을 찾아가 문화소외층을 위한 공연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행
- 전시팀의 경우, 2011년 29개 클럽, 2012년 24개 클럽이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찾아가 치매노인과 자폐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
- 전시팀의 경우 전시 공간확보가 어렵고,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프로그램이어서 단발 행사에 그치는 공연팀보다 상대적으로 참여 클럽 수가 적음

〈표 4-11〉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클럽 장르별 현황(2011~2012)

연 도	문화공헌활동 참여클럽수	장르별 참여클럽수	
		공연	전시(미술, 공예, 문학 포함)
2011	105개 클럽	76(72.4%)	29(27.6%)
2012	137개 클럽	113(82.5%)	24(17.5%)

○ 행사별 클럽 참여 활동
- 2011년의 경우, 총 34회 행사 중 공연행사는 26회(76.5%), 전시행사는 8회(23.5%)를 각각 실행함
- 2012년의 경우, 총 31회 행사 중 공연행사는 22회(71.0%), 전시행사는 9회(29.0%)를 실행함

〈표 4-12〉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행사 장르별 현황(2011~2012)

연 도	문화공헌활동 행사수	장르별 행사수	
		공연	전시(미술, 공예, 문학 포함)
2011	34	26(76.5%)	8(23.5%)
2012	31	22(71.0%)	9(29.0%)

○ 대상별 문화공헌 활동
- 2011년의 경우, 총 34회 행사 중 21회(61.8%)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3회(38.2%)는 소외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
- 2012년의 경우, 총 31회 행사 중 21회(67.7%)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0회(32.3%)는 소외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

〈표 4-13〉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활동 참여 대상별 행사 현황(2011~2012)

연 도	문화공헌활동 행사수	대상별 행사수	
		일반 시민	소외층(노인, 장애청소년 등)
2011	34	21(61.8%)	13(38.2%)
2012	31	21(67.7%)	10(32.3%)

○ 2011년~2012년 문화공헌 프로젝트 요약

〈표 4-14〉 사랑방문화클럽 문화 자원봉사 현황(2011~2012)

연 도	사 업 내 용
2011	• 문화공헌프로젝트(105개 클럽, 12개팀 34회 행사) – 장애청소년학교 '성은학교' 등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공연 – 노인요양시설 '보바스병원' 및 '헤리티지너싱홈' 등에서 전시회 및 매월 1회 정기 공연 – 서현 및 중원 청소년수련관 자폐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매주 1회 실시(1월~12월) – 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기타 강습, 미술, 공예 프로그램 실행(4월~12월) – 공원, 지하철 역사, 시장 등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자원봉사활동 전개 • 문화장터 수익금 기부 – 사랑방축제 기간 1주일 간 사랑방문화클럽이 제작한 소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청소년보호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기부
2012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137개 클럽 16개팀 참가, 31회 행사) – 공원, 지하철 역사, 시장 등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자원 봉사활동 전개 – 장애인 학교 및 보호시설에서 찾아가는 공연 실행 – 황송종합노인복지관, 중원종합노인복지관 등 노인 대상 공연 실시 – 서현 및 중원 청소년수련관 자폐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매주 1회 실시(1월~12월) – 지역아동센터 4곳에서 기타 강습, 미술, 공예 프로그램 실행(3월~12월) – 이주민 가정 대상 문화예술 교육 실시(5월~11월)

나. 클럽 구성원의 속성별 문화공헌 프로그램

○ 주부 중심 클럽들의 자폐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술교육
- 기간: 2008년~

- 대상: 서현청소년 수련관과 중원청소년 수련관 장애청소년 40여명
- 참여클럽: 미술 및 공예 클럽 10여개 클럽
- 매주 1회 2개반 수채화, 한지공예, 종이접기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시
- 교육 과정에서 만든 작품을 매년 10월 초 개최하는 '사랑방클럽축제'에 클럽들과 공동 전시

○ 주부 및 직장인 클럽의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 기간: 2011년~
-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편부모 자녀 등) 12명
- 참여클럽: 기타 클럽 2개
- 매주 1회 클래식 기타 강습
-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기타 강습을 실시하고 사랑방행사에 발표공연
- 직장인 회원의 경우 주중 봉사활동에 대한 어려움 호소, 주말활동 시 참여율이 비교적 높음

○ 주부 및 자영업 클럽의 노인요양기관 보호 치매노인을 위한 공연
- 기간: 2008년~2011년
- 대상: 노인요양기관 보호 치매노인 60여명
- 참여클럽: 기타, 색소폰, 전통무용 등 다양한 장르 클럽
- 매월 1회 사랑방문화클럽이 노인들을 찾아가 공연
  · 찬조출연으로 청소년수련관 고등학교 댄스동아리들도 공연에 참여
  · 2010년 요양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음

○ 직장인 클럽의 일반시민을 위한 무료 봉사 공연
- 대상: 탄천변, 율동공원 등
- 참여클럽: 풀잎소리(색소폰), 자율학습(교사밴드), LH밴드(락밴드) 등
- 교통관리공단 색소폰 직장동호회인 풀잎소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탄천변에서 무료 공연을 해옴(봉사활동 시 회사에서 활동예산 일부 지원 및 근무고가에 반영)
-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자율학습 밴드와 LH공사 소속 직장인 밴드 LH밴드는 사랑방클럽 행사에 2007년부터 참여하여, 공원, 탄천변, 역 광장 등지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을 실시

○ 학생 클럽의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 기간: 2010년
- 대상: 일반시민
- 참여클럽: 지역아동청소년센터(함께하는청소년학교) 소속 퀼트, 만화, 기타, 락밴드 동호회
- 사랑방클럽 행사에 참여 또는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연합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 중, 고등학교 동호회가 아동보호 기관에 찾아가 보호아동들과 젠가, 보드게임 등을 하는 '놀이봉사'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음

다. 사랑방문화클럽의 성과

○ 사랑방문화클럽은 생활예술의 모범사례로 타 지역에도 많이 알려져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을 추진함
· 화성시, 익산시, 수원시, 청주시, 부산 사하구 등에서 유사사업 추진

○ 지역문화사업의 성공사례로 인정받아, 2009년과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과 2010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함

○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의 가능성 확인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의 실천적 사례 제공
- 자발적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 제시
- 개인의 문화자본이 공공영역의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

4. 참여자 의견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4명), 문화재단 관계자(4명), 유관기관 관계자(2명)를 심층면접한 결과임

○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관계기관과 동호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명시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임
- 다만 동일한 기관과 동호회에서 여러 사람이 응답한 경우에는 A, B를 표시하여 개인별 응답의 차이를 노출함

가. 동호회 구성원의 속성

○ 동호회원은 대체로 20명 내외, 주부들이 주축을 이룸

AOOO(기타동호회): 저희는 45세 주부 28명으로 구성되어 5년이 됐어요.

OOO(미술동호회): 16명이 거의 주부계층이긴 한데요. 사업하는 분도 있고 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까지 있어요.

○ 동호회원은 구도심보다 신도심(분당)에 거주함

OOO(성남문화재단): 분당이나 판교 같은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즐기는 수준 높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강사들을 주로 하시거든요.

BOOO(기타동호회): 형편이 나아지니까 문화적 욕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지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분당 쪽에 많은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시가지 쪽에 나누고 소통하는 것들을 생각하죠.

OOO(클래식 음악 동호회): 사랑방문화클럽 하기 전(前) 2001년도부터 분당 분들 중심으로 음악을 하게 되었죠.

나.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 문화예술활동의 드러냄(보여주기)에 대한 욕구가 많고, 이것을 자원봉사로 인식함

AOOO(기타동호회): 미술하시는 분들이 내 작품을 어디에 전시해야 하듯이 공연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이걸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공연할 때가 없었는데 봉사의뢰가 들어오면 안 가리고 가지요.

BOOO(기타동호회): 저희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목적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이죠.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연과 연주는 크게 힘든 봉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급스러운 봉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만족도 높은 편이에요.

AOOO(기타동호회): 저희가 작년에 탄천에서도 야외공연을 했는데 공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객이 많은 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탄천에서는 주로 저녁에 운동을 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랫동안 앉아서 우리 공연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번은 부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호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에요. 그것을 보며 여기서 공연을 하길 잘했구나 생각했죠.

OOO(미술동호회): 그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싶어져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능기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기술이 무르익었으니까 사회에 환원시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요구가 있어서 봉사를 하게 되었죠.

○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반복하면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됨

OOO(미술동호회):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죠. 아이들은 한 선생님이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에 적응했는데, 바뀌게 되면 아이들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자,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OOO(성남문화재단): 노인 복지관 또는 지역의 어떤 시장의 행사는 조건이 안 좋아요. 하지만 클럽에서는 별 다른 요구없이 의미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죠.

BOOO(기타동호회): 장애인 학교에서 공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 개별 동호회가 아니라 팀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AOOO(기타동호회): 작년에는 만돌림이랑 합주를 했어요. 그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OOO(클래식음악 동호회): 여기서 문화공헌을 하면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어요. 기타만 하면 기타밖에 모르잖아요. 여기서 문화공헌을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지루하지 않게 공헌도 하면서 다른 클럽도 접하는 거죠. 이것은 큰 장점이죠.

○ 동호회원들은 대부분 문화 자원봉사 참여에 찬성함

BOOO(기타동호회): 클럽 내에서도 편차가 있으나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40~50대 주부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 저희는 규칙에 그것을 넣었어요. 자기개발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는 거죠.

OOO(미술동호회): 회의적이거나 배타적인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시간이 안 되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는 있죠.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죠.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 동호회 리더의 역할이 자원봉사 참여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

BOOO(기타동호회):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클럽은 클럽지기(동호회장, 연구자)의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AOOO(기타동호회): OOO클럽은 예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회장님은 자체 실력을 키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트워크 활동은 휴지기가 되었죠.

○ 수요층에서도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함

OOO(자원봉사센터): 목욕봉사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의 프로그램들로 채워지다가 대상자들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 다음에는 문화 쪽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즐길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화 봉사자들을 의뢰하거나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수요자들이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OOO(클래식음악 동호회): 스태프들도 갑자기 전화 와서 저희 언제 하는 행사에 오셔서 연주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죠. 그런데 연주자가 아무 연습도 없이 연주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도 한 번 연주회를 위해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5~6시간씩 연습하는데도 안 되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와서 연주하라고 하면 힘든 면이 있어요.

다. 지원에 대한 의견

○ 재단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함

BOOO(기타동호회): 아주 좋은 허브 역할을 하는 여기가 있으니까 이곳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혜택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OOO(미술동호회): 예전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재단하고 결연 맺은 곳이 많으니까 좋아요. 지금은 저희가 마음먹고 시간만 내서 봉사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졌죠.

AOOO(기타동호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랑방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 공간 제공에 만족하지만 더욱 다양한 공간을 원함

BOOO(기타동호회): 연습실을 제공 받고 서로 공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OOO(클래식음악 동호회): 우리 동호인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장소에요. 근데 여기 분당에 장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소를 협약해서 문화통화를 이용해서 빌릴 수 있으면 좋겠죠.

○ 실비(實費)지원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

BOOO(기타동호회): 저희 연주팀은 봉사를 하면서 주차가 힘들어요. 악기를 하다 보니 차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돈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여건이 안 좋았어요.

OOO(성남문화재단): 단체들이 실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재능봉사는 하겠다. 그런데 악기를 운반하거나 실비용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죠.

○ 자원봉사에 대한 반대급부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인식함

AOOO(기타동호회): 금액을 받고서 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더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있죠.

OOO(미술동호회):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바쁘고 정말 짬을 낼 수가 없으면 오늘 수업은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요. 그럼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내가 만약 페이를 받고 했다면 쉬지 못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페이를 안 받고 하면 약간 가볍게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무료만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받는 즉시 부담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를 선호하지 않음

OOO(성남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의 인증을 받으려면 개인들이 등록해야 되는데 문화클럽 참여자분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쉽지 않아요. 이분들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일일이 한 분 한분에게 문자를 보내야 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으세요.

BOOO(기타동호회):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데 자원봉사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에는 자원봉사센터

를 통해서 공연을 했어요. 5분 공연을 위해 회원 25명을 데리고 짐을 들고 간다는 게 (회원들에게)미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꺼리게 되죠.

○ 오랜 활동으로 만족감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OOO(성남문화재단): 초창기에는 이런 공연문화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해봐야 일 년에 한 두 번이거든요. 재단에서 다 셋팅해 주고 그러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랑방 초년에는 의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몇 년 흐르다 보니, '작년에 했는데 비슷한 걸 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 문화공헌만을 강조하는 재단에 대한 불만이 존재함

OOO(성남문화재단): 공헌이라고 하면 정말 헌신적으로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공헌이라고 하면 너무 무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OOO(성남문화재단): 이게 작년, 올해 변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간 4~5년 동안 공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에요.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너무 정책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팀별로 1년에 2~3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번은 어려운 조건에서 공헌을 한다면 나머지 한번 정도는 클럽에서 알아서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조건과 관계없이 저희가 시스템은 지원해 주니까요.

○ 문화통화는 공간을 빌리는 데 주로 사용됨

OOO(성남문화재단): 연습실 사용할 때 넘실(성남시 문화통화)을 사용해요. 개인통장으로 넘실을 받는 동호회도 있지만 대체로 단체통장으로 받아요. 단원들의 기부가 되는 거죠.

OOO(성남문화재단): 넘실은 주로 공간 사용료로 쓰여요. 사랑방축제에서 물품을 살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널리 쓰이고 있지는 못해요.

라. 자원봉사 활성화의 방향

○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AOOO(미술동호회): 사랑방문화클럽이 여러 클럽이 합쳐 가지고 이번 주(週)는 이 클럽 다음 주(週)는 이 클럽이 가서 (미술교육을) 했어요. 내가

4주를 하고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눈에 아른거려요. 그래서 그 다음 주(週)에 다시 가서 개인적으로 계속하겠다고 했죠.

OOO(성남문화재단) : 방과 후 음악교실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1팀이 프로그램을 맡으시는데 한달별로 선생님이 바뀌어요. 관계형성이 되면서 수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도 익숙할 만하면 바뀌니까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봉사활동을 장기로 하는 것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있으세요. 바쁘시니까.

○ 재단—사랑방문화클럽의 원활한 정보전달, 회원들 간의 정보전달이 필요함

AOOO(미술동호회): 소식을 전하면 클럽지기들만 알고 있지 회원들은 잘 몰라요. 클럽지기들이 자기만 알고 있고 안 알려주는 거에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통보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OOO(클래식음악 동호회): 클럽 내에서도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소통이 원활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필요

OOO(클래식음악 동호회): 사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활발해져야 해요.

OOO(자원봉사센터): 문화 자원봉사자들은 이것 저것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연자 이전에 봉사자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3절

지역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1. 전라북도 정책사업의 특성

가. 사업추진의 배경과 목적

○ 전라북도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전라북도의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시작됨
- 네트워크는 문화복지의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임
- 생활예술 동호회의 육성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함

○ 시/군 단위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임

나. 역점 추진사업

○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되어 2012년에는 동호회 실태 파악, 동호회의 네트워크 가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사업임

○ 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지역 단위 페스티발 기획 및 참여에 한정됨

○ 동호회가 연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역 단위의 축제를 진행하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보기에는 논란이 있음
- 특별한 대가(對價)없이 자신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노력과 활동을 시/군민들과 함께한다는 점에는 자원봉사로 볼 수 있음(협의의 문화자원봉사)
- 페스티발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고, 페스티발의 재원(財源)을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로 보기 어려움

다.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 전라북도의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유관한 정책사업(문화복지정책, 마을만들기 등)과 연관성이 높지 않음

○ 전문 예술인(단체) 지원사업과 갈등 발생
○ 도(道)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는 더욱이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음

라. 동호회와 자원봉사 지원체계

○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의 전제(前提)로 설정하지는 않음
  – 아직까지는 개별 동호회의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 동호회 지원의 기준은 간접지원에 한정함
  – 개별 동호회 지원 금지
  – 2개 이상 동호회를 대상으로 강사비, 사업비에 한정하여 지원
  – 또한 공간지원을 수행할 계획임
○ 자원봉사 인증제도를 마련하지 못함
  –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지역 내 자원봉사 관련기관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기존의 인증제도(자원봉사센터, VMS)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마. 지역 내 협력체계

○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과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네트워크 단위에서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바. 도시와 농촌의 차이

○ 동호회 장르별 차이
  – 도시지역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동호회가 네트워크에 가입함
  – 건축, 영상, 영화 관련 동호회는 전주시에서만 있음(완주군, 진안군에서는 관련 동호회 없음)
  – 진안군에서는 전통예술 동호회의 비중이 높고(38%), 순수예술 동호회(문학, 미술)가 가입되지 않음
○ 구성원의 차이
  – 농촌지역은 마을 단위의 전통예술 동호회가 많기 때문에 노인층의 활동이 많음
  –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다양함
○ 문화시설 동호회 vs 개별 동호회

- 농촌지역은 문화시설에서 활동하는 동호회가 훨씬 많음
- 도시지역은 시설 동호회와 개별 동호회가 다양하게 분포되고, 주요 활동공간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고루 분포됨

사. 네트워크 참여자의 의견

○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나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네트워크 가입의 주된 동기임
- 자원봉사보다는 자신들의 취미 계발에 관심이 많음
- 다만 시/군 단위 페스티발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남

○ 동호회장, 매개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동호회장, 문화시설 내 강사의 의지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의지가 다름
- 또한 매개인력의 역할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의지가 다르게 나타남

2. 성남시 정책사업의 특성

가. 사업추진의 배경과 목적

○ '사랑방문화클럽'(이하 문화클럽)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됨
- 문화예술창조도시 성남 기본계획(2006)에 따라 추진됨
- 기초작업(실태조사, 발전방안 연구)을 통하여 현재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을 지님

○ 광역지자체와 관계없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함

나. 역점 추진사업

○ 동호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란 구체적인 목적에 맞추어 시민대상 발표회,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함

○ 2012년 기준으로 문화공헌 프로그램은 31건임
- 사업 대상은 일반시민 21건(68%), 취약계층 10건(32%)임
- 사업 내용은 공연 22건(71%), 전시 9건(29%)임

○ 문화공헌은 실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연 위주로 진행됨
- 문화클럽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음
- 동호회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연이나 전시회를 자원봉사로 인식함

다. 관련정책과의 연관성

○ 문화클럽이 마을만들기사업에 강사로 참여하거나, 동네행사에서 공연활동을 펼치기도 함

○ 부분적으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음

라. 동호회와 자원봉사 지원체계

○ 단순히 문화클럽(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조건은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임
- 2007년에 한(限)하여 개별 동호회 지원사업을 진행함
- 2008년 이후 지원의 조건이 문화공헌으로 한정됨

○ 개별 동호회 지원이 아니라 동호회가 연합할 경우에 한(限)하여 지원
- 2007년에 한(限)하여 개별 동호회 지원사업을 진행함
- 2008년 이후 지원 조건이 개별 동호회에서 5~6개의 동호회로 이루어진 팀 지원으로 한정됨

○ 동호회 지원의 원칙은 직접적인 경비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임
- 지원내용은 공연과 전시활동을 위한 기자재 지원, 공간지원에 한정됨
- 2008년부터 지원금액을 팀(동호회 연합)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사업체(무대, 조명, 음향, 홍보물 제작)에 정산하고 있음
- 사랑방문화클럽 전용공간은 매년 초 공모와 내부심사를 통하여 결정함

○ 자원봉사 인증제도를 마련하지 못함
-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음

마. 지역 내 협력체계

○ 복지시설과 연관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수련관 6개, 노인복지시설 3개가 '사랑방'으로 등록되어 있음
- 문화재단 이외 공간이 16개임을 감안하면 복지시설의 비중이 높음

○ 청소년수련관, 아동센터에서 예술교육 실시

- 2008년부터 주부 중심의 문화클럽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장애아동 대상 미술교육 실시
- 2011년부터 주부 중심의 문화클럽에서 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클래식 기타 교육

○ 반면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사업이 되지 못함
- 문화클럽 회원들은 자원봉사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고연령층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개별등록 등의 절차를 번거롭게 여김

바. 문화클럽 참여자의 의견

○ 문화클럽 회원들은 팀 구성 이후의 시민대상 발표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활동을 모두 문화 자원봉사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지님

○ 하지만 오랫동안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했지만, 피로감을 느끼고 활동에 소극적인 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함
-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이 자신이 속한 클럽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도 생겨남
- 2012년 문화공헌 프로젝트의 명칭을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으로 변경하고, 공헌활동 이외에도 약간의 지원을 시작함

○ 클럽회원의 요구사항은 공간지원 확대와 교통비 실비 지원임
- 문화재단 내 공간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요구함
- 참여자들은 외부기관에서 문화공헌 활동을 할 때 교통비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3.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정책사업 비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와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몇 가지 기준을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
- 개별동호회 지원배제, 연합 동호회 지원, 간접지원
- 별도의 인증제도 없음, 기존 인증제도의 활용 미비
- 유관 문화정책사업과 연계성 미비

○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전라북도에서는 동호회 실태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둔다면, 성남시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동호회의 문화나눔 사업 진행

- 전라북도에서는 구체적인 문화 자원봉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성남시에서는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는 물론 협의의 자원봉사까지 진행
- 전라북도에서는 시설기반 동호회의 활동이, 성남시에서는 개별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함
- 이 같은 차이는 사업의 착수 시점(始點)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4-15〉 전라북도와 성남시 사례 비교

연 도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네트워크(전라북도)	사랑방 문화클럽(성남시)
사업시점		2012	2007
추진주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자체 연계		광역지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단위에서 전개	기초지자체 독립적으로 진행 도(道)에서는 약간의 지원
배경 및 목적		전라북도 문화복지중장기계획(2012) 동호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창조도시 성남 기본계획(2006)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추진 현황	동호회	동호회 파악과 네트워크 구축 과정	동호회 실태조사(2006) 발전방안(2006) 개별 동호회 지원(2007) 문화공헌 동호회연합 지원(2008)
	자원봉사	시민 페스티발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에 한정	시민대상 발표회 취약계층 문화나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 중심
주요 동호회		시설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함	개별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함
지원체계		문화 자원봉사와 관계없음 개별 동호회 지원 금지 간접지원(강사비, 사업비)	문화 공헌을 전제로 지원 동호회 팀 지원 간접지원(사업비, 공간)
자원봉사 인증		별도의 체계없음 기존 인증제도 이용하지 않음	별도의 체계없음 개인이 기존 인증제도 이용
지역 내 협력		자원봉사센터 연계 없음 복지시설 연계 없음	자원봉사센터 연계없음 개별 복지시설과 연계
관련정책과 연계		문화복지, 마을만들기와 직접적인 연계없음	마을만들기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

4. 지역사례조사의 시사점

가. 기초 조사연구의 중요성

○ 상대적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보다 '사랑방 문화클럽' 활동이 활발한 것은 사업착수 시점이 다르기 때문임

- 성남시에서는 2006년에 동호회 및 동호회 공간조사, 발전방안 연구를 실시한 이후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함

○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기초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함
- 기초조사에서는 동호회,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 기초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화 모형개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성남시의 기초연구에서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 상호 연계성, 신도시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나.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는 단기간 내에 활성화되기 어려움
-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활발하지 않음
-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공감대가 많지 않음

○ 곧바로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연계를 지향하기보다는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자체의 활성화가 필요함
- 전주시(북-북)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봉사를 통해 구성된 동호회의 활동이, 시설기반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함
- 단기적으로는 문화 자원봉사모임, 시설기반 동호회의 육성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개별 동호회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단위의 문화자원봉사 체계구축

○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를 시민대상 발표회에서 취약계층 대상 문화나눔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가 가장 발달한 성남시에서도 아직까지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에 치중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동호회원의 문화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

다.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 지역 내 유관사업과 연계

○ 전라북도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사업은 시/군별로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광역지자체는 방향설정, 재원확보, 자원봉사 교육 같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시(市) 단위 사업에서도 수도권 신도시인 성남시와 전주시의 문화자원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시/군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지역 단위의 다양한 문화정책사업과의 연관성 확보
- 예술인(단체) 지원사업과 동호회 지원사업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함
- 지역 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동호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라. 인센티브 제공의 원칙 정립

○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동호회 지원 원칙인 동호회 연합지원, 간접지원, 공간지원 등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함
○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문화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의 기존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마. 동호회원의 자원봉사 인식 제고

○ 동호회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시민 대상 발표회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문화공헌 프로그램에서도 사전교육이 없음
○ 재능나눔일지라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함

바. 전담 인력 및 담당부서의 역할 제고

○ '코디네이터'(전라북도), 전담부서 내 인력(성남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전담인력의 역할은 동호회 네트워크의 자발성과 의사결정권을 보완하는 일에 한정되어야 함

제5장

해외 사례

제1절

일본의 문화 자원봉사

○ 문화 동호회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 자원봉사에 초점을 두고 살펴봄

1. 문화 자원봉사 현황

○ 문화분야를 포함한 자원봉사는 총무성의 「사회생활 기본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음
- 2011년 기준, 10세 이상,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6.4%임

○ 스포츠/문화/예술/학술 관련 자원봉사 비율은 3.5%임

○ 스포츠/문화/예술/학술 자원봉사자들은 연간 29일을 자원봉사에 참여

〈표 5-1〉 일본의 자원봉사 참여율 및 일수(日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	자원봉사 참가율(%)	평균 행동 일수 (일)
건강, 의료서비스 관련 활동	2.9	15.3
고령자 대상 활동	3.7	33.6
장애인 대상 활동	1.4	28.0
어린이 대상 활동	8.2	20.8
스포츠, 문화, 예술, 학술 관련 활동	3.5	29.0
지역만들기 활동	10.9	12.3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활동	4.8	13.8
자연, 환경 보전 활동	4.7	33.0
재해 관련 활동	3.8	6.8
국제 협력 관련 활동	1.0	24.9
기타	1.8	–
합계	26.4	–

자료: 총무성 통계국(www.e-stat.go.jp), 사회생활기본조사(2011)

2. 문화 자원봉사 관련 정책

○ 문화청에서는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규정하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비 추진

○ 문화 자원봉사활동 개념 규정: "문화예술에 스스로 친숙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즐기는 데도 도움이 되거나, 돕는 것 같은 자원봉사활동"

가. 문화 자원봉사자 추진 모델 사업(2003년~2007년)

○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

○ 사업 개요
- 문화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활동장소와 기회 제공
- 사업성과 보급
- 지역의 문화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 대상 사업
① 문화 자원봉사자의 계속적인 활동의 장(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단순 공연, 전시는 제외)
② 문화 자원봉사자 및 문화 자원봉사자의 코디네이터(조정자) 연수 사업
③ 문화 자원봉사자의 참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사업
④ 문화 자원봉사자의 보급 계발 활동, 참가의 계기 만들기
⑤ 코디네이터 배치, 그 외 문화 자원봉사자의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⑥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교류사업

○ 사업 실행주체
① 지방 공공단체(교육위원회 포함)
② 공립 문화회관
③ 공익법인, NPO 법인, 또는 〈지방자치법〉 제 244조의 2 제3항에 따른 지정관리자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회관
④ 공립박물관 또는 공익법인, NPO법인 또는 제 244조 2 제3항 따른 관리자가 관리 운영하는 박물관
⑤ 문화의 보급,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

ㅇ 첫째, 공익법인 또는 NPO 법인,
ㅇ 둘째, 법인은 아니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단체
- 정관, 기부행위와 비슷한 규약 등이 있음

-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확립되어 있음
- 스스로 경리, 감사, 회계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음
- 단체 활동의 본거지로 사무소 등이 있음

⑥ 지방 공공단체, 문화시설, 교육 관계자, 유사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 자원봉사자 추진 실행 위원회

나. 문화 자원봉사자 지원거점 형성 사업(2008년~현재)

○ 목적
- 문화 자원봉사의 활성화, 자립적·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각지의 지원 거점 형성
- 문화 자원봉사자 리더 및 코디네이터 육성
- 문화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코디네이터의 역할
- 문화 자원봉사자와 문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과의 매칭
- 문화 자원봉사자 단체와 행정 사이의 중개
- 활동내용의 기획 입안
- 소속된 문화 자원봉사자의 관리
- 소속된 문화 자원봉사자의 연수 등

○ 사업 내용

① 뛰어난 문화 자원봉사자 ·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개발·실시·보급
- · 코디네이터 양성 강좌 실시
- ·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교재 개발·작성

② 문화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의 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간의 교류 사업
- · 코디네이터의 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등이 교류하는 포럼 개최
- · 포럼 총괄보고서 작성

③ 문화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의 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 코디네이터 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 총괄하는 보고서의 작성

○ 사업 주관처

① 법인자격을 소유하는 단체

② 법인자격을 소유하지 않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채우고 있는 단체
- · 첫째, 정관, 기부행위와 비슷한 규약 등이 있음
- · 둘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확립되고 있음
- · 셋째, 스스로 경리하고, 감사하는 등의 회계 조직을 가지고 있음
- · 넷째, 단체활동의 본거지로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3. 문화 자원봉사활동 사례

가. 문화시설의 업무 보조

1) 개요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생애학습센터(평생교육원) 같은 시설에서의 자원활동을 의미함

○ 1975년 이후부터, 키타큐슈(北九州) 시립미술관, 홋카이도(北海道) 근대미술관, 국립부인교육회관(현 국립여성교육회관) 등 몇몇의 사회교육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됨

○ 1992년 생애학습심의회답신(生涯學習審議会答申) 이후로 일반화됨
-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 생애학습임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생애학습센터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 자체가 개인의 생애학습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활동으로 간주됨
- 따라서 문화시설이 자원봉사의 활동의 장으로 주목받게 됨

○ 문화시설의 자원봉사 활용의 필요성 증대
- 외부 평가, 예산 감소 등 행정 개혁의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시설에서도 자원봉사자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의 내용
- 문화시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주된 것임
- 하지만 최근에는 작품해설, 워크샵 기획,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이 증가

2) 관련 사례: 세타가야(世田谷)[61] 미술관

○ 문화 자원봉사자(감상리더)가 학생 대상 안내 프로그램 진행

○ 감상 리더의 역할
- 어린이/학생(5명~8명 정도)의 리더가 되어, 연간 50~60회 정도 개최되는 감상교실 및 박물관 투어 안내
- 일방적인 작품의 해설 보다는 미술관에 흥미를 느끼고 친숙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서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함

○ 감상 리더의 구성

61) 도쿄의 특별구인 세타가야구(区)에 위치한 미술관

- 1,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 미술관 강좌의 수강생, 토모노카이(友の会) 회원 등이 중심이 됨

○ 미술관 친우회(世田谷美術館 友の会)
- 미술관 운영의 원활화와 지역문화의 향상을 목표로 1987년 설립
-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각종 강습회를 통하여 배우고, 만들고, 작품전시회 개최
- 회원들은 교류회, 기획전감상회, 미술관 탐방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
- 세타가야구 미술관에서 대한 지원,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현재 7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임

○ 감상 리더 교육
- 미술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0회 정도의 학습회 개최



자료: 세타가야 미술관 토모노카이 홈페이지: http://setabi-tomonokai.jp/

나. 문화시설 운영 참여 및 지역문화 활성화

1) 개요

○ 문화시설의 업무 보조를 넘어서 자원봉사자가 문화시설의 기획·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임
- 일반 안내 역할에서부터 문화시설 활동의 스태프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

○ 문화시설 뿐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 지역 내 문화시설 공연을 전제로 구성된 연극·음악단체의 활동
-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

○ 문화시설의 역할
- 문화시설 공간의 무료 사용
- 역(逆)으로 문화시설 직원들이 자원봉사단체의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함

2) 사례: ala 크루즈

○ 'ala 크루즈'는 가니시(可兒市)[62] 문화창조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 자원봉사 단체

○ 2001년 11월 설립(가니시 문화창조센터 개관보다 빠름)
- 설립목적: 회원의 자아 실현과 삶의 보람, 나아가 시민의 문화·예술의 창조에 기여
- 지역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 조직이 신규 문화시설과 연계한 경우임
- 2004년 11월 NPO법인으로 인증, 사무국은 가니시 문화창조센터내에 위치하고 있음

○ 활동내역
- 콘서트, 전시회 기획 및 개최
- 문화 자원봉사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만들기
- 회원을 위한 각종 연수 실시
- (공익재단법인) 가니시(可兒市) 문화예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사업 참여
- 가니시 문화창조센터 사업에 스태프로 참여



자료: 기후현(岐阜県) 가니시(可兒市) 문화창조센터
'ala 크루즈'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kpac.or.jp/alacrews/

다. 지역문화 창조활동

1) 개요

○ 문화시설과 관계없이 자족적으로 지역 단위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문화 동호회 또는 문화 자원봉사 단체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동호회의 성격과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62) 기후현(岐阜県)에 위치한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인 중소도시

○ 마을만들기, 지역 축제, 영화제, 시민대학 강좌 등 운영
  – 지자체, 기업, 예술인과 협력하여 진행

2) 사례: NPO 법인 '토비우메노카이'(とびうめの会)

○ '토비우메 축제 후쿠오카[63] 2004' 개최 당시(2004. 10) 설립된 '자원봉사 데스크' 조직 계승
  – 2007년 9월에 NPO법인으로 전환
  – 대표이사, 이사 4명, 감사, 정회원 19명, 일반회원 51명으로 구성
  – 문화예술 관심자가 회원이며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모두 포괄함

○ 구성 목적
  – 문화와 예술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 많은 현민(県民)·시민이 문화와 예술과 만나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조직구성의 목적임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콘서트나 전람회 등, 각양각색의 문화 활동 지원
  – 지역(후쿠오카)의 문화예술 고리를 넓혀 가는 것

○ 활동 내용
  – 공연(콘서트, 연극 등), 전시회(회화, 사진 등) 지원
  – 공간(공연장, 전시회장)의 설치, 운영·철거, 안내, 분장실 지원, 홍보지원(광고지 배포, 광고지 작성, 홈페이지 작성) 등이 있다.
  – 현재 활동은 아크로스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콘서트, 이벤트(런치타임 콘서트, 클래식 세미나등), 현민(県民) 문화 축제, 공연, 전람회, 음악단체의 콘서트, 이벤트 광고지 배포 등이 있음



자료: 후쿠오카현(福岡県) NPO 법인 '토비우메노카이'(とびうめの会)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jp/tobiume_vdesk/syoukai.html

63) 후쿠오카현(福岡県)의 축제

제2절

영국의 아마추어 예술단체

1.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 현황

가. 문화 동호회 현황

○ 연구의 문화 동호회와 유사한 개념이 'voluntary and amateur arts group' 임
- 자기 계발, 네트워킹 또는 여가활동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그 단체 구성원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예술 그룹을 지칭함

○ voluntary and amateur arts group과 관련된 자료는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2008)[64]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 특성
- 영국인의 예술참여 중 20% 정도는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과 관련됨
- 약 49,140개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있음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 단체는 2006/7년의 1년간 약 710,000번의 공연 및 전시를 개최함
  · 약 159백만 명이 관람했으며 1회 공연 및 전시마다 220명이 관람함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총 수입규모는 연평균 543백만 파운드
  · 총 지출 규모는 연 평균 406백만 파운드
  · 공공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함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 구성원의 특성
- 약 590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참여함
- 여성은 350만 명(60%), 남성은 240만 명(40%)임
- 45세~64세 연령층이 180만 명(31%)
- 장애인이 154,000명(26%), 흑인과 소수민족은 97,100명(1.6%)
- 운영자(주도적 참여자)는 564,000명(9.6%)

○ 지역사회 공간의 이용

64)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ACE)가 협력하여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임.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 성인 예술교육 참여자 통계자료가 수록됨.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Arts Council England(2008),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venue)은 지역정부 건물(community hall) 21%, 종교 시설 19% , 개인 거주지 13% , 교육 시설 13%임

○ 지역사회 다른 단체 간의 네트워킹
- 지역사회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을 맺으며 활발한 네트워킹
- 가장 두드러진 협력관계 단체는 지역사회 축제(조직)임

○ 전문 예술가 단체와 네트워킹
- 아마추어 예술단체는 일반 관람객과 전문 예술가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 아마추어 예술가에서 전문 예술가로 발전
  ·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약 34%에서 프로예술가로 발전한 회원들임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에서 전문 예술가 초청 및 고용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가단체 지출의 31%가 전문 예술가들을 고용하는 데에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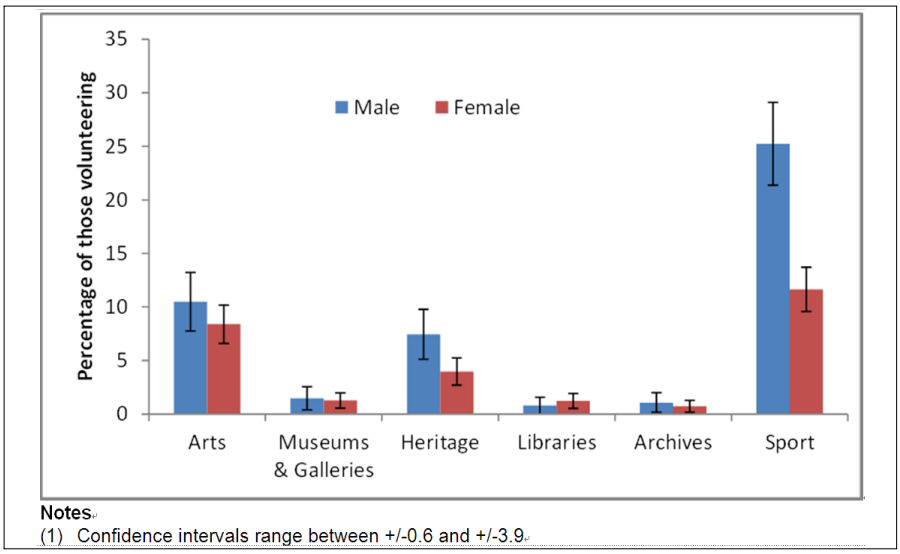
나. 문화 자원봉사 현황

○ 문화 자원봉사 관련 자료는 *Taking Part Survey (2012/13 Quarter 1)–Statistical Release*[65]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영국의 문화 자원봉사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에 유의해야 함
-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 다음의 일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발적 활동
  · 모금활동, 조직의 리더활동, 위원회 활동, 사람 방문, 멘토링, 코칭, 자문, 경영 및 비서 업무, 교통편 제공, 발표, 캠페인 활동, 보전, 행정 업무(심판 등), 쇼핑 등으로 학교나 종교단체 돕기, 자선 가게에서 일하기 등
- 예술(arts): 무용, 노래 공연, 악기연주, 작곡, 연극, 오페라/뮤지컬, 축제, 거리 공연, 서커스 기술, 미술, 사진, 영상, 디지털 예술, 공예, 문학, 독서 클럽 부문
- 시민 참여(Big Society):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회 자본, 사회 응집, 자원봉사활동을 나타냄

○ 문화 자원봉사 규모
- 1년 동안(2011.7–2012. 6) 자원봉사활동을 한 성인은 24.7%임
- 문화영역(문화, 예술, 스포츠)의 자원봉사자는 7.8%임
- 문화 자원봉사자 가운데 9.8%가 예술부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함

65)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영국 유산(English Heritage), 영국 스포츠(Sport England)조직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문화향수실태조사.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rts Council England, English Heritage, Sport England (2012), *Taking Part Survey (2012/13 Quarter 1)–Statistical Release*



자료: Taking Part Survey (2012/13 Quarter 1)–Statistical Release

[그림 5-1] 영국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 자원봉사 참여율

2. 관련 정책 및 사례

가. 문화 동호회

1) 정부의 관심 증대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관심 증가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에서 'The Arts Debate'라는 행사 개최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함

· 'The Arts Debate' 행사의 결과물로 *The Arts Debate: Stage on findings & Next Steps*(2007) 출간함

○ 영국 문화부(DCMS)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에서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2008) 출간[66]

66)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Arts Council England(2008),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 영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이 많음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지방정부·공공 문화예술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 관련 조직

○ Volunteer Arts Network(VAN)의 지위와 구성
  – 상위 조직들의 상위 조직(an umbrella body of umbrella bodies)
  – 다양한 예술 및 공예 장르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상위조직(umbrella bodies)을 대표하며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조직의 발전을 돕고 있음

○ Volunteer Arts Network(VAN)의 역할
  – 재정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 후원 및 지원금 기회 정보 제공
  – 구직 및 자원봉사활동 기회 정보 제공
  – 해당 분야 관련 업무 훈련 교육 기회 제공
  – 회원의 조직을 운영하는 노하우 매뉴얼을 제공하는데 현재 156개의 세부적인 매뉴얼(예를 들어 자원봉사 관리나 마케팅, 재정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VAN 산하의 Umbrella Bodies
  –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전국 규모의 상위 조직들이 250여 개에 이름
  – 전국 규모의 상위 조직들은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에게 예술적 및 운영적 측면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원함

나. 문화 자원봉사활동 사례: 동(東)미들랜드(East Midlands)지역[67]

○ 동(東)미들랜드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사가 2009년에 실시되어 *Cultural Volunteering in the East Midlands*(2009)의 보고서로 출간됨[68]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82,000명이 문화 영역에서 자원봉사
  –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 예술, 문화유산 및 박물관
  –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 도서관과 아카이브

○ 자원봉사활동 수준

---

67) 동(東)미들랜드지역은 잉글랜드 9개 지역 가운데 하나임

68) Arts Council England East Midlands & English Heritage(2009), *Cultural Volunteering in the East Midlands*

- 응답자의 72.3%가 일주일에 1회 정도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함
- 응답자의 54.2% 연 평균 100시간 정도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함

○ 문화 자원봉사자의 특성
-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많음
- 55세~74세 연령대가 주로 참여
- 백인계 영국인과 고학력자의 참여가 많음
- 시민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 문화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함(문화 자원봉사자 응답자의 지난 선거 투표율은 95%인데 이는 전체 평균 63% 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편임)

○ 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
- The Cultural Improvement Partnership East Midlands(CIPEM)에 포함됨
- CIPEM 개요
  · 2007년부터 3년간 동부 미들랜드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관계자 협력관계 활성화
  · 프로그램 지원 단체: EM-IEP (East Midlands Improvement and Efficiency Partnership), Sport England, Arts Council England,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MLA)
  · 프로그램 운영진: 파트타임 2급 지방정부 공무원들, 파트타임 프로그램 매니저 1명, 미들랜드 동부 정부 문화부서 지원
  · 프로그램 재정 규모: 총 600,000 파운드

제3절

미국의 문화 자원봉사

1. 문화 자원봉사 현황

○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화 동호회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문화 자원봉사 현황에 중심을 두고자 함
○ Volunteering in America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라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봄
○ 2010년 기준, 자원봉사 참여율은 26.3%, 1인당 참여 시간은 33.9시간임

national	Volunteer Rate										
	1974	1989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National	23.6%	20.4%	27.4%	28.8%	28.8%	28.8%	26.7%	26.2%	26.4%	26.8%	26.3%

national	Volunteer Hours per Resident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National	36.8	37.6	37.9	36.3	35.3	34.8	34.2	34.2	33.9

자료: Volunteering in America 2010 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index.c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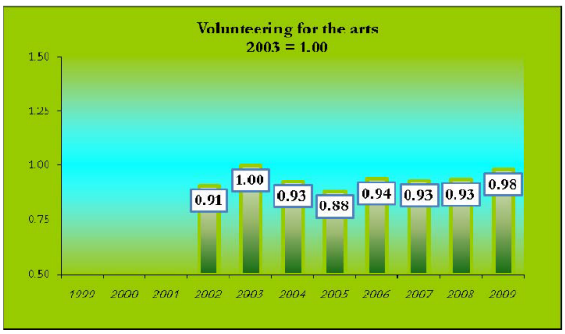
○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 9.9%(활동 기준) 또는 3.4% (활동 분야 기준)

national	Main Activity (2008-2010)												
	Sports Teams (Coach, etc)	Tutor / Teach	Mentor Youth	Religious (Usher, etc)	Collect / Distr Food	Collect / Distr Clothing	Fundraise	Emerg Resp / Counseling	Office Services	Prof / Management	Music / Art	General Labor	Other
National	8.2%	18.5%	17.0%	11.7%	23.5%	13.4%	26.5%	6.3%	12.3%	16.4%	9.9%	20.3%	13.9%

national	Where People Volunteer (2008-2010)						
	Civic	Educational	Hospital	Religious	Social Service	Sport / Arts	Other
National	5.5%	26.7%	8.4%	35.0%	14.0%	3.4%	7.0%

자료: Volunteering in America 2010 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index.cfm

○ 문화 자원봉사자 수: 1,970,442명(2009년 기준)



	1999-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olunteering for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s (1st)		1,092,554	1,205,615	1,029,455	1,037,312	1,166,473	1,084,873	1,082,362	1,123,554
Volunteering for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s (2nd)		476,682	568,618	595,106	517,735	480,229	503,286	552,077	611,322
Volunteering for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s (3rd)		249,940	232,451	236,249	210,708	237,449	278,439	240,973	235,566
Volunteering for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s (1st, 2nd, or 3rd)		1,819,176	2,006,684	1,860,810	1,765,755	1,884,151	1,866,598	1,875,412	1,970,442
Indexed to 2003 = 1.00	N/D	0.91	1.00	0.93	0.88	0.94	0.93	0.93	0.98

자료: National Arts Index National Arts Index– An annual measure of the Vital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U.S. 1998~2009 (American for the Arts, 2010), 61쪽

○ 문화향유 수준이 높은 사람의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경험이 많음[69)]
- 공연예술 감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2.7배 높음
- 클래식 및 재즈 라디오 청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2배 높음
- 독서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6배 높음

2. 문화 자원봉사 유형과 유형별 사례

○ Joan Kuyper(1987)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4가지임[70)]

69) 아래의 수치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06), *The Arts and Civic Engagement: Involved in Arts, Involved in Life*, 4쪽 참조. N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Geoffrey Godbey & John Robinson(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에 소개된 이론(뉴토니안 인간행동이론, Newtonian model of human behavior)–바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함

70) Kuyper, Joan(1987), "Cultural Volunteer Program: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Where

가. Private Association for Public Trust(공공을 위한 사적 모임)

○ 기원과 배경
- 미국의 식민지 시대(colonial times: 1492-1776)까지 거슬러 올라감
- 미국은 유럽과 달리 지역정부가 설립되기 이전 개인들이 공동체(community)를 만들어 살아가야 했던 환경에서 개인의 공동체 헌신 활동이 중요해짐

○ 전개과정(1492-1865)
- 이 유형이 지배적인 시대는 1492년 식민지 시대부터 잭슨 정부시대를 거쳐 1865년 남북전쟁까지임
- 상류층 사업가들이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예술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며, 현재까지 이런 특징이 존재함
- 식민지 시대에 종교·문화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젠틀맨(gentleman)'이라는 표식이 됨
  · 예술 기관의 자원봉사활동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영향을 강하게 받음
  · 예술 장르 중에서 특정 장르, 예를 들어 문학과 미술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예술장르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연극은 고상하지 못한 죄악의 온상으로 여겨져 꺼리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음
  · 미국에서 연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쳐 연극관련 시설은 저급한 문화 혹은 하류층 문화라고 여겨져 재원을 마련하기가 다른 예술 장르보다 어려움
- 독립혁명 이후 상류층의 종교적 사명감(calling)에서 비롯한 자원봉사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시민적 의무감(civic duty)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됨
  · 상류층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인사들(지역사회 리더,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정치가, 교육자)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Committee of Fifty 구성
  · 이들은 시민적 의무감에서 비롯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구체적인 성과가 뉴욕에 Metropolitan Museum of Art를 설립한 것임

○ 현재의 모습
- 이 유형은 대부분 대규모 문화시설의 위원회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음

Does Your Organization Fit?"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7(2). 네 가지 유형은 '자원봉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시민(단체)의 '자원적 활동'이라고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고서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표기함

나. Social Reform Organizations(사회개혁 단체)

○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 저소득 또는 중산층에 나타나는 실업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불충분한 문화향유 수준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에 우선적 목적이 있음

○ 기원과 특징
- 이 유형의 기원은 미국의 산업혁명기(The Industrial Revolution, 1870년대~1840년대), 중산층 출신으로 자수성가하여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의 기부에서 비롯한 것으로 대표적 사례는 카네기(Andrew Carnegie)와 록펠러(John D. Rockefeller) 등을 들 수 있음
- 다른 문화 자원봉사활동 유형과 달리 예술의 생산만큼 예술을 통한 사회변화 또는 사회개혁도 중요하게 여김
- 정신적 기반은 종교적 사명감(calling)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의무감(civic duty)의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은 예술에 대한 기부를 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전문가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금(grant) 형식으로 지원했음
- '공공목적을 위한 사적모임' 유형과 다른 점
  · 첫째, 사회개혁단체는 공공재단을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금(grant)을 주는 제도를 마련한데 반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사적모임' 은 일대일 형식으로 특정인에게 사적으로 지원함
  · 둘째, 예술에 대한 지원을 상류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富)를 축적한 중산층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중산층의 기부문화가 생겨남

다. Community Arts Organizations(지역예술단체)

○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유형

○ 기원 및 특징[71)]
-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샤터쿼 운동(Chautauqua Movement(1874～1925)이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샤터쿼 운동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일어난 성인교육 운동으로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를 미국의 농촌지역에까지 보급함
- 당대의 유명한 교육자, 음악가,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등이 농촌지역에 들어가 강의 및 공연을 하는 형태였음

---

71) Gibnas, Nina Freedlander(1982), *The Community Arts Council Movement* 내용을 Kuyper, Joan(1987)에서 정리한 것임

- 이 운동으로 미국은 농촌 지역에서 예술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남
  ·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연극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됨
  · community arts는 아마추어 예술, 대도시의 예술은 전문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생기게 됨
- 1920년대까지 community arts라는 말이 특정 의미를 가진 용어가 된 것은 아님
  · 단지 community symphony, community theater와 같이 예술단체나 조직에 community가 붙어서 사용된 것임
- 이후 점차로 community arts가 아마추어 예술, 아마추어 예술참여(자원봉사, 주로 백인 중산층)와 연결되기 시작함
- community arts의 세 가지 특징
  · 첫째, 자발성에 근거한 풀뿌리 형태의 특징
  · 둘째, 지역사회 주민들 위주의 관객
  · 셋째,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예술 참여 기회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 거주지 개선 및 사회복지(social work) 활동을 경험한 후 이러한 community arts 운동이 퍼져 나가게 되었음

○ 관련 사례: Junior League of America
- 어린이 연극과 도시의 역사적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
  · 1901년 뉴욕 시의 어린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음, 미국 전 지역으로 확산
  · 1921년에는 상위 조직으로 Association of League of America가 만들어짐
  · 사회복지 단체들의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미국에서 현재 'community arts councils'의 역할 수행
- 지역사회 예술단체(community arts organization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예술가, 다른 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성공할 수 있음
  ·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이것이 *The Arts and Our Town*[72]의 주된 내용임

라. Artist-Run Organizations(예술인 운영단체)

○ 기원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중적 문화단체의 급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문

72) Virginia Lee Comer가 만든 매뉴얼임. Gibnas, Nina Freedlander(1982)에서 재인용

화단체가 나타남
- 지역예술단체보다 예술가와 예술창작 활동에 중점을 두는 조직임

○ 특징
- *The Emerging Arts*(1980)의 저자 Joan Jeffri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규모가 작고 지역에 기반한 단체임[73]
- 창작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외부 영향 요인들에 대해 저항하며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
- 정부나 특정 재단의 지원으로 인해 예술 창작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에 대해 저항하여 생겨나기 시작함

○ 관련 사례
- 뉴욕시의 Off-off Broadway 극장들
  · 뉴욕의 공연예술 감독들과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형성
  ·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가족과 같은 친밀한 분위기의 조직을 만들어 배우나 공연 예술 관계자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off-off broadway 극장들에 대해서는 배우 협회 (Actors' Equity)나 다른 노동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음
  · 이 극장들에서 제공하는 공연들은 건물 지하창고나 교회 등과 같이 비전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함
- 예술계 여성 운동
  ·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공연 단체, 전시회장, 문학 잡지, 다른 예술 장르의 조직들을 만듦
  · 이에 따라 여성계 예술가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됨
  · 여성계 예술 조직들은 여성들이 '정치적 그리고 변화 지향적' 자원봉사자들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함

〈표 5-2〉 미국의 문화자원봉사 유형 비교

유형	공공을 위한 사적모임	사회개혁단체	지역예술단체	예술인 운영 단체
기원	식민지 시기(1492)부터	산업혁명(1870)시기 이후	샤쿼터 운동(1874)이후	2차대전(1945) 이후
참여자	최상류층 → 중산층	자수성가 기업가 → 중산층	중산층, 지역사회 다양한 시민	예술인
동기	종교적 사명, 시민적 의무	종교적 사명, 시민적 의무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	시민적 의무, 미국 농촌의 성인교육, 문화의 민주화	
활동사례	일대일 지원 문화시설 건립	재단설립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예술가 창작지원

73) *The Emerging Arts*(1980)의 내용은 Kuyper, Joan(1987)에서 재인용한 것임

3. 문화시설 중심의 시민참여: 미네소타 주(州) 워커아트센터의 'Art and Civic Engagement' Project[74)]

○ 이 사례는 직접적으로 문화 동호회나 문화 자원봉사자와 관련되지는 않음
○ 지역의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예술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자본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2003년에 부시재단(The Bush Foundation)의 지원으로 워커아트센터는 현대 미술이 시민 참여를 북돋우는 광장(forum)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가. 지역사회 예술가와 문화시설의 네 가지 역할(The 4C Model)

○ 첫 번째는 공간(Container): 문화시설은 물리적, 정서적, 심리학적 공간 제공
  – 지역주민들이 창조하거나 있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제공
  – 지역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 강해짐을 느끼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제공
  – 성취나 성공을 축하하면서 지역사회 집단적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말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안전감을 느끼는 공간 제공
○ 두 번째는 모임 소집자(Convener): 모임을 만들어 내는 자극제 역할
  – 지역사회에 주목을 끄는 행사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행사에 대응
  – 지역사회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함
  – 지역사회에서 함께 의사결정해야 하는 일에 사람들을 모음
  –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
○ 세 번째는 매개자(Connector): 지역사회 사람들과 아이디어 연결
  –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새로운 혁신적 방법으로 연결
  – 참여자들의 유산과 문화에서 함께 의사 결정해야 하는 일에 사람들을 모음
  –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
  – 지역사회에서 함께 의사 결정해야 하는 일에 사람들을 모음

---

74) 미국의 미네소타 주의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워커 아트센터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로서 '교육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부서에서 제작한 워크북을 참고함. Walker Art Center(2005), *Art and Civic Engagement: Mapping the Connections*(The Workbook)

○ 네 번째는 촉매자(Catalyst): 사회문제의 인지, 사회운동 및 대응의 촉매활동
- 공감이 부족하고 의견 불일치가 있는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이슈에 대해 행동을 취하도록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사회갈등을 낳는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되는(숨겨진) 가정들을 드러내는 것에 도움을 줌
- 주요 이슈를 탐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경험하도록 하는 주요 거점역할을 함

나. 시민참여 활동(civic engagement)의 네 가지 유형

○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음의 네 가지 시민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화시설에서 노력해야 함

○ 첫 번째는 해설(Commentary)
- 설명이나 비판을 글로 쓰거나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

○ 두 번째는 대화(Dialogue)
- 개인 혹은 집단들이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욕구, 신념, 감정과 관심에 대해 배우고 공유하는 과정

○ 세번째는 행동(Action)
- 지역사회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즉각적이고 객관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련 이슈, 정책 또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

○ 네 번째는 리더십(Leadership)
- 권력과 권한의 윤리적 사용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타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

제4절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가별 특성

1) 일본

○ 문화 동호회 지원보다는 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중앙정부(문화청) 차원에서 문화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함
  - 21세기에 들어서 지역사회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결과임
  - 2003~2007년에 제1단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코디네이터 육성과 지역거점 형성임
○ 코디네이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함
  - 코디네이터 양성 강좌 개설, 교재 개발
  -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단체 간 교류
  - 코디네이터 양성에 대한 연구
○ 지역거점 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지역의 예술단체, 문화시설, 시민단체들과 협력
  -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사업(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고자 노력함
○ 문화 자원봉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모임(동호회)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영국

○ 일본과는 다르게 문화 자원봉사보다 문화 동호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영국에서는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동호회)의 네트워크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전국 규모의 동호회 지원조직(umbrella bodies)이 250여개이며, 이 조직들이 VAN(Volunteer Arts Network)를 구성함
  - 지원조직과 VAN이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단체 지성'

을 축적하여 동호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음
- 특히 VAN은 영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동호회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제공

○ 정부는 개별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조사연구, 정보제공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지방정부(East Midlands)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동호회와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VAN의 매뉴얼에는 자원봉사 관련 항목이 있음

3) 미국

○ 미국은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거의 없음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원적 활동이 이루어짐

○ 자원적 활동은 지역의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점차 참여자가 확대되었음

○ 자원적 활동은 '공공을 위한 사적 모임' → '사회개혁단체' → '지역예술단체'로 변화되어 왔음
- 세 가지의 공통점은 지역단위의 활동, 문화시설 중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적 모임'의 참여자는 최상류층(종교적 소명)에서 중산층(시민의 의무)로 이행되었음
- '사회 개혁단체'는 예술을 통한 사회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중산층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지원에 참여함
- '지역 예술단체'는 지역 단위에서 아마추어 예술(community arts)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시민과 예술인들이 참여함

○ 지역사회(문화시설) 중심의 자원적 활동에 동호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해외사례 비교

○ 공통점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첫째,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시민의 사회활동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방안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
- 둘째, 동호회 활성화이든, 자원봉사 활성화이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됨

- 셋째, 동호회와 자원봉사를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찾기는 어려움

○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임
- 영국은 문화 동호회의 네트워크에 대한 간접 지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임
- 미국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자원활동에 참여함

〈표 5-3〉 해외사례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일본	영국	미국
공통점	지역사회 중심	특히 문화시설		특히 문화시설
	구체적인 동호회/자원봉사 연계정책은 없음			
차이점	중점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정부정책 없음 시민사회 중심

2. 국내 적용 가능성

○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 동호회를 통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해외정책은 찾기 어려움

○ '문화 동호회 → 문화 자원봉사'라는 순차적이며 단선적인 연결 관계에서 벗어나 문화 동호회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상관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적용 가능한 전략 세 가지

① 문화 자원봉사활동 모집 → 동호회 방식 운영 → 문화 자원봉사 지속
- 일본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세타가야구 미술관 사례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동호회와 같은 원리로 운영하는 방안

② 문화 동호회 네트워킹 → 문화 자원봉사활동 기회 네트워킹
- 장기적으로 영국의 VAN과 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동호회 조직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지부가 생기고, 이 지역 지부를 다시 통합하는 중앙 조직(VAN)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
- VAN은 동호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원봉사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

③ 거점 중심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 관심 증대 → 자원

봉사 증대

- 미국의 '워커 아트센터' 전략에 가까운 것임
- 지역사회 문화시설이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의 거점이 되고 동시에 지역사회 이슈를 논할 수 있는 거점으로 될 수 있도록 함
- 동호회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유대를 통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임
- 미국의 NEA에서 보듯이 'art and civic engagement'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워커 아트센터' 사례처럼 지역사회 문화시설들이 예술과 시민적 활동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노력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이러한 프로그램이 문화시설을 평가할 때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함

○ 문화향유,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간의 상관성

- 국립예술기금(NEA)의 *The Arts and Civic Engagement: Involved in Arts, Involved in Life*(2006)에 따르면,
-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수준도 높고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 활동 수준도 높음
- 이러한 현상은 Newtonian model of human behavior 이론에 부합하는 것임
  ·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욱 활동적이 되고, 집에 머물면 머물수록 집안에만 있게 되는 인간 활동의 경향에 대한 이론
-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면,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지역사회 활동 수준이 높아져서 공동체감 형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함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이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제6장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 제언

제1절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1. 정책 목표의 설정

가. 정책 목표

○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이 지향하는 바는 '자발적 문화복지의 구현'임[75]

○ 문화복지는 모든 개인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통한 삶의질 제고에 목적이 있음
-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몫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문화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님
- 문화복지 재원이 풍부하지 않고, 문화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문화복지의 재원과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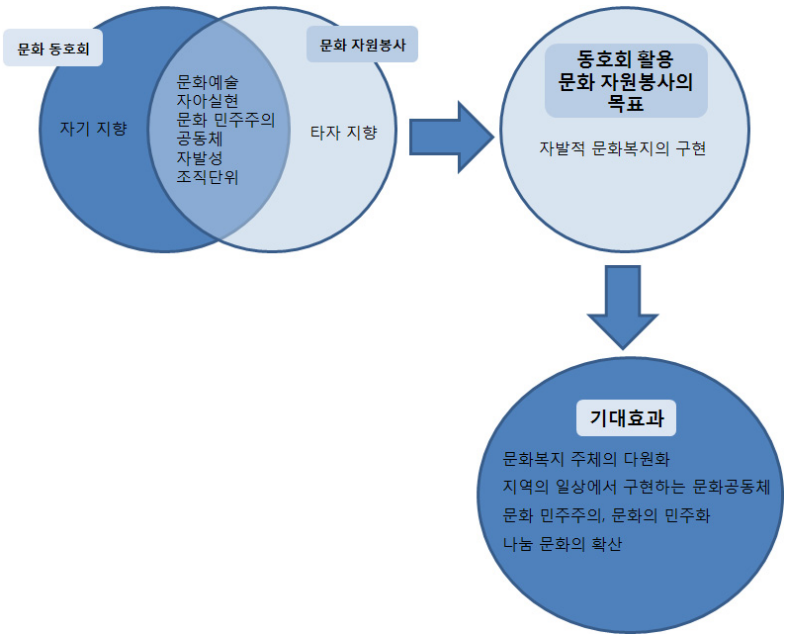
○ 자발성과 조직 단위 문화활동이란 공통점을 지닌 동호회와 자원봉사를 연계하면 문화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음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는 자발성에 근거함
-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는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의 활동으로서 의미를 지님

○ 문화감수성 증진(개인적 측면), 문화적 접근의 형평성(사회적 측면)이란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켜야 함
  · 문화 동호회는 문화복지의 개인적 측면(감수성 증진)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임
  · 문화 자원봉사는 문화복지의 사회적 측면(평등한 문화적 접근성)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임
- 따라서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는 문화복지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임

○ 결국 '자발적 문화복지의 구현'을 위한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임

---

75) 이 같은 지향점은 김경동, 위의 책, 특히 제목인 「자발적 복지사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을 밝힘



[그림 6-1]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의 목표와 기대효과

나. 지원정책의 기대효과

1) 문화복지 주체의 다원화

○ 문화복지 예산의 대규모 증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동호회의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봉사 활동은 문화복지 다원화에 기여함

○ 문화복지정책 실행의 주된 축이 공공영역에 있지만, 문화복지는 개인적 취미인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참여가 다른 복지에 비하여 영향력이 큼

○ 문화복지의 속성—완결체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려하면 동호회의 참여는 필연적임

2) 지역의 일상에서 구현하는 문화공동체

○ 문화복지 실현의 단위는 일상의 삶의 공간인 지역임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는 조직 단위의 행동으로 각각 공동체성 확보에 기여함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 단위를 넘어서기 어려움
○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는 지역 단위의 조직활동으로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행위임
○ 지역문화 공동체성의 단위는 동호회원의 생활권역과 같을 가능성이 높음

3)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 실현

○ 봉사활동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문화 동호회 활동 자체가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임
○ 문화를 매개로 동호회원들이 피(被)봉사자들과 '함께'하는 행위는 문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킴
  - 문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교류'와 '교감'의 확보임
  - 문화 민주주의를 선도한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문화를 작품(대상)이 아니라 교류로 인식했음[76]
○ 교류와 교감을 위해서는 취미(臭味)를 같이 하는 동호회원들이 피봉사자와의 상호작용하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임
  - 유급의 예술가(예술강사)의 활동보다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동호회원의 활동이 피봉사자와 교감에서 효과적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정책사업이 예술인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이란 측면에서 자원봉사보다 효과가 낮음
  - 또한 자발성에 근거한 전문 예술인의 재능나눔보다 일반인(일반 동호회원)이 피(被)봉사자와 교감도가 높음
○ 문화 동호회원의 활동 수준이 일정한 정도에 달하면,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문화의 민주화'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의 민주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을 전달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함
  - 문화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예술인(재능기부)—문화 동호회—주민의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음

76) "중요한 것은 교류이지 작품이 아니다. 문화는 하나의 태도이지 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찾아가 구경하는 기념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나리자의 작품이 아니라) 모나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울리는 그의 메아리이며 모나리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에서 문화관장을 지낸 네테르는 이미 1970년에 이 같이 주장했음. 오퀴스땡 지라(1974), 「문화 발전: 경험과 발전」, 李桓洪在星 옮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59쪽.

4) 나눔 문화의 확산

○ 나눔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관계는 보충적 대체관계(Compensatory behavior, Trade-off)임[77]
- 한국에서 (금전) 기부자가 고학력· 고소득층이라면, 자원봉사는 여성·사회적 친분관계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78]

○ 하지만 문화 동호회원의 자원봉사활동은 기부와 자원봉사가 결합된 중복적 보완관계(Multiplicative behavior, Spill-over) 관계에 가까움
- 왜냐하면 문화 자원봉사는 일종의 재능나눔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 동호회원들은 고학력·고소득층이기 때문임
- 따라서 문화 동호회원들의 자원봉사는 계층적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줌

○ 따라서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보다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나눔문화의 확산에 효과적임

2. 정책 추진방향 설정

○ 정책 추진방향은 모두 여섯 가지—① 단계적 접근, ② 인센티브 제공의 원칙 설정, ③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④ 지역단위 특성화 모델 개발, ⑤ 문화예술 전문인력 협력, ⑥ 학교/직장 동호회 연계—로 설정함



[그림 6-2]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의 정책방향

77) 보충적 대체관계(Compensatory behavior, Trade-off)는 두 가지 행위가 경쟁관계를 보이며, 참여자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임. 이에 반하여 참여자가 중복된다는 관점, 중복적 보완관계(Multiplicative behavior, Spill-over)라는 관점도 있음. 김지혜 외(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권 2호, 특히 139-141쪽 참조

78) 김지혜 외(2012), 위의 글 참조

가. 단계적 접근

○ 문화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는 개별 동호회 활동, 개별 문화 자원봉사 활동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단계적 접근은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① 동호회와 자원봉사 개별 활동 활성화 이후 연계활동

②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 활동에서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으로 범위 축소

③ 동호회의 수준별 지원: 숙련 동호회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전개

④ 자원봉사자의 동호회 구성에서 동호회원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전개



[그림 6-3]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의 단계적 접근

1) 개별활동 지원에서 연계활동 지원으로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문화 동호회 참여경험률은 3.9%, 문화 자원봉사 경험률은 5.9%에 불과
- 현재로서는 단체(동호회) 단위의 집합 행동(자원봉사)을 무매개적으로 연계하기는 어려움

○ 1단계에서는 개인의 문화 동호회 참여, 개인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개인의 문화적 역량강화
- 지역 단위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두 가지 활동의 자연스런 연계를 위한 여건 조성

○ 2단계에서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단체(동호회)의 집합행동(자원봉사) 연계사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 단위 문화공동체 형성

2)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에서 협의의 자원봉사활동으로

○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적 지원(경비 지원, 공간 지원, 인증 등)을 위해서는 문화 자원봉사활동 개념(범위)의 확정이 필요함

○ 현재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음[79)]

- 첫째,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임
  - · 문화 동호회원들이 지역축제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문화예술 행위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우
  - · 거리 공연, 미술 발표회, 지역축제 참여
- 둘째,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임
  - · 문화 동호회원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문화예술 행위를 공유하는 경우
  - · 취약계층 대상 발표회, 복지시설에서의 발표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마을만들기 사업참여 등

○ 문화 동호회의 주된 자원봉사 활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표회에 집중됨

- 전라북도의 '네트워크'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시도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시/군민 페스티발(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한정됨
- 성남시에서도 문화클럽의 주된 활동은 '사랑방문화축제'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60% 이상(2011년 62%, 2012년 68%)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0% 미만(2011년 38%, 32%)임

○ 1단계에서는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까지를 포괄하여 지원

○ 2단계에서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에 집중해야 함

- 문화 동호회 지원 조건으로,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의 비중 설정
-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동호회에 인센티브 제공
  - ·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공간 활용 등에 우선권 부여

79) 개인 단위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예를 들어 지역축제에서 안내자의 역할 등은 제외함. 왜냐하면 이 연구는 동호회(조직) 단위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문화시설 기반 동호회에서는 회원들이 단순한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동호회 단위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자원봉사이므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음

3) 동호회의 단계별 지원[80)]

○ 초보적 동호회는 문화시설에서 업무 보조 자원봉사활동 참여
- 문화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기관에서 보조 업무로서의 자원봉사 활동

○ 준전문가 동호회는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
- 동호회 몰입도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원함
- 따라서 공공(公共)을 위한 발표회 같은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 활동이 적합함

○ 숙련가 동호회는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 참여
- 숙련가 집단은 문화의 민주화에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임
- 따라서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서 멘토링, 문화예술교육 등의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4) 자원봉사자의 동호회에서 동호회원의 자원봉사로

① 1단계: 자원봉사자의 동호회 구성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보다 문화 자원봉사자의 동호회 활동 지원이 효과적임

○ 전북지역 및 외국사례를 보면,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보다는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동호회 활동이 활발함
- 전주시 효자문화의집에서 수행하는 '북-북'이 대표적인 사례로 '북-북'은 2012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일본사례는 자원봉사조직이 동호회의 기능을 갖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줌

○ 초기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기 중심적 동호회의 자원봉사보다 타자 지향적 문화 자원봉사자의 동호회 구성이 효과적임

② 2단계: 문화시설 기반 동호회의 자원봉사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시설 기반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효과적임

○ 전북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동호회, 그리고 시설기반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이 더 활발함
- 전주시의 경우, '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한 동호회보다 '효자 문화의집'에

80) 이 같은 동호회의 구분은 윤소영(2010), 100-101쪽 참조

서 활동하는 비(非)네트워크, 시설기반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함

○ 반면에 성남시에서는 네트워크에 가입한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함
- 이것은 전주보다 성남에서 동호회와 자원봉사 연계 지원정책을 펼친 게 오래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2단계에서는 시설기반 동호회를 중심으로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연계가 현실적임

○ 시설기반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해야 함

③ 3단계: 개별 동호회의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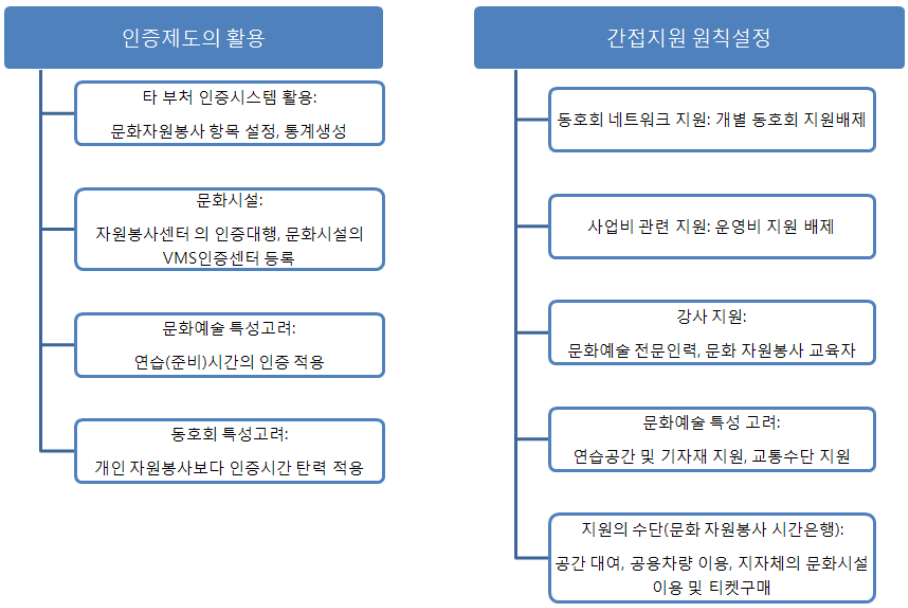
○ 3단계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개별 문화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 개별 동호회의 자원봉사(3단계)가 문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동호회(1단계), 시설기반 동호회(2단계)에 비하여 지역 단위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적합함
- 문화 자원봉사자 동호회, 시설기반 동호회는 문화시설을 기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설기반 내 활동에 그치고, 지역 단위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 반면에 개별 동호회는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다른 동호회와의 협력이 수월함

○ 현실적으로 개별 동호회가 자원봉사 동호회, 시설동호회와 비교하여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의 민주화'에 적합한 측면이 있음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들은 '문화공헌 활동' 이외에 대가(對價)가 있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작품 발표회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이것은 개별동호회의 문화예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줌

나. 인센티브 제공의 원칙 설정

○ 인센티브 제공에서는 문화 자원봉사의 인증제도의 개선과,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봄



[그림 6-4]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1) 문화 자원봉사 인증제도의 운영

○ 현재 자원봉사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대별하여 이루어짐
-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지자체별 자원봉사센터를 기반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 운영
-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복지시설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MS)' 운영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는 인증시간 등의 통합 검색이 가능한 정도이며, 두 가지의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 자원봉사에 한정(限定)하여 별도의 인증제도(도서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LVMS) 운영 중임
- 하지만 다른 문화기관들에서는 이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관리 및 인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인증은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LVMS 등과 같이 문화시설별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VMS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자족적인 인증제도를 개발·운영하는 것임
-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인증체계를 활용하는 것임

○ 세 가지의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시설별로 중앙조직에서 인증제의 운영은 LVMS에서 보듯이 큰 효과가 있지 않고, 비시설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며, 지역의 공동체성 확보에도 유의미하지 않음
- 둘째, 문화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인증제도는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효과적이지만, 지역 공동체 형성에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음
- 셋째, 기존 인증제도 활용은 봉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

○ 따라서 기존의 인증제도(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활용하되,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6-1〉 문화 자원봉사 인증제도 운영 방법 비교

	문화시설별 인증제도	문화자원봉사의 자체 인증	기존 인증체계 활용
방법	도서관처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의 중앙조직에서 자원봉사 인증	중앙단위(문화포탈), 또는 지역단위(문화재단) 등에서 문화 자원봉사 별도 인증	자원봉사센터, VMS 체계에 문화 자원봉사 항목 특화
장점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가능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가능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 반영할 수 있음 문화 자원봉사에 참여한 동호회(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수월함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 일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자원봉사 입장에서는 통합체계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유리함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단점	인증시스템 구축, 관리의 비용 증대 시설 이외의 자원봉사 연계 불가	인증시스템 구축, 관리의 비용 증대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봉사와 연계 어려움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인증제도의 활용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이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지역단위 공동체 형성임

-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의 자원봉사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인증하는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VM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도를 만드는 것은 실제 자원봉사 참여자의 입장에서 실익(實益)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여자 입장에서는 봉사시간의 통합인정, 지역 단위 활동 실적관리가 유리함
- 현재 자원봉사센터, VMS에서는 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제도 내에서 통합인증제를 실시하면 문화 자원봉사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② 문화 자원봉사활동 통계의 별도 관리

○ 다만 현재의 '1365 자원봉사포털'(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MS)'에서 문화 자원봉사를 별도의 세부영역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함
- 자원봉사센터에서 문화 자원봉사는 15개의 자원봉사 영역의 하나(문화행사)로 설정되어 있을 뿐 세부정보가 부족함
- VMS에서 문화 자원봉사는 독립된 영역이 아님

○ '1365 자원봉사포털', VMS에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세부내역의 등록/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별도의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통계의 별도 관리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이점(利點)이 있음
-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추세분석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연(年) 단위로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에서 문화 자원봉사관련 우수 동호회에 포상, 문화예술 행사 초대권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③ 문화 자원봉사 인증 활성화 방안

○ 자원봉사센터의 인증 대행체제 마련
- 고연령층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문화관련 기관(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문화 매개인력 운영기관 등)에서 인증 대행
- 인증대행 문화시설, 지자체 등에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 문화시설의 VMS 인증센터 등록 유도
- 문화시설의 인증센터 등록여부를 문화시설(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
- VMS 등록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 설정
- 시설기반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④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시간의 적용

○ 문화예술을 통한 자원봉사는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인증시간의 탄력적 적용 검토
○ 문화예술 연습시간을 인증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⑤ 문화 동호회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시간의 적용

○ 동호회를 통한 자원봉사는 개인별 자원봉사보다 인증시간의 탄력적 적용 검토
○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자원봉사 일반 교육시간을 인증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2) 간접 지원의 원칙 설정

①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에 한정

○ 개별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동호회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에 집중
  -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이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기 때문에, 동호회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에 초점을 맞춤
  - 모든 동호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원칙을 설정함
○ 다만 개별 동호회라고 할지라도 문화복지정책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과 연관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동호회 지원은 가능함

② 사업비 지원에 한정

○ 동호회(네트워크)의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사업비 지원에 한정함
○ 동호회 운영경비(경상비) 지원은 불가함
  - 운영경비 지원은 자원봉사의 가장 큰 특징인 비대가성(非對價性)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음
○ 운영경비 지원은 자칫하면 봉사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 또는 일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운영경비 지원을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함

③ 강사 지원

○ 동호회의 문화예술 수준 제고를 위한 강사 지원
  -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가 '문화의 민주화'의 성격을 지니려면 동호회 자체

의 예술 수준이 높아져야 함
- 동호회 네트워크에 적합한 문화예술 강사의 연결, 강사료 지급 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예술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숙련도가 높은 동호회의 구성원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음

○ 동호회의 문화예술 능력 제고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 자원봉사의 공감대확산을 위해서 문화 자원봉사 전문강사 지원까지를 포괄함

④ 공간 지원

○ 전용공간의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간(空間) 지원 확대
- 전라북도에서는 24시간 개방하는 '작은 시민예술촌'(동호회 연습·창작공간)을 시군별로 1개 이상씩 조성하려고 함
- 성남시에서는 문화재단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개별 동호회에 비하여 시설기반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임
- 중장기적으로는 마을 단위, 지자체 단위에서 공식적인 공간을 1개씩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청사의 일부 공간을 야간(夜間), 휴일에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역의 공공시설들을 동호회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성남시에서 복지시설을 '사랑방'으로 선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문화)시설을 문화 동호회원들의 연습공간이자 동시에 취약계층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
- 공공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간 활용도를 파악
- 요일별, 장르별로 지역 단위 공공시설 활용 가능한 시간표 제공

○ 민간과 협력하여 종교시설, 학교, 직장의 유휴시설 활용
- 영국의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공간활용은 공공기관(21%), 종교시설(19%), 개인 거주지(13%), 교육시설(13%)임
- 성남시에서는 교회, 복지관, 카페, 요양기관, 병원 등 10개의 민간기관을 사랑방문화클럽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종교시설, 학교, 직장의 유휴공간을 평일(종교시설), 하교(퇴근)시간 이후, 주말(학교, 직장)에 활용
- 교회/성당/사찰 등의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신자(信者)들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음
- 학교 공간의 활용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 직장 공간의 활용은 직장 동호회가 조직화된 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⑤ 기자재 및 교통수단 지원

○ 동호회 활동을 위해 지원된 공간에는 문화예술 관련 기자재를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 마을과 지자체 단위의 공식적인 공간에는 동호회 네트워크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문화예술 용품을 비치
- 또한 개인 악기, 의상,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제공

○ 문화 자원봉사에서 소요되는 악기, 의상, 소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공용차량 지원
- 동호회원 대상 면접조사에서는 교통비 지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직접적인 교통비 보조보다는 공용차량을 비치함으로써 소품 운반의 편의제공이 자원봉사활동의 취지에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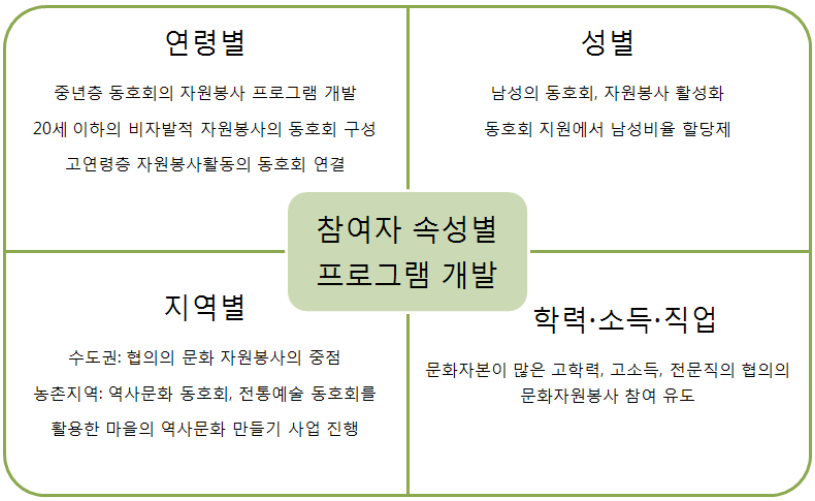
⑥ 자원봉사 시간은행(time bank) 제도 활용

○ 지역화폐제도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음
- 지역 단위 경제의 발전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통화의 활용성이 낮음
- 화폐의 기본적 성격인 보편성을 지역이란 특수성에 한정함에 따라 활용도가 낮음

○ 지역화폐의 일환인 문화통화(通貨)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공동체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 성남시의 문화통화(넘실)는 문화공간 활용, 사랑방 축제의 물품구입에서만 사용되는 정도임
- 문화영역 이외에서는 사용처가 거의 없음

○ 광역(기초)지차체별로 문화 자원봉사 시간은행제를 도입하여 공간(空間) 대여, 공용차량 이용, 지자체 문화시설 이용, 지자체 문화행사 티켓 구매 등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
- 대도시 지역에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시간은행 제도 운영
- 도(道)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시간은행 제도 운영

다. 문화 동호회·자원봉사 참여자 속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81]



[그림 6-5]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속성별 프로그램 개발

1) 연령별: 중년층 동호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년층의 동호회 활동을 자원봉사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개발

○ 20대 이하 연령층의 비자발적 자원봉사를 동호회로 전환하여 자원봉사의 지속성 유지

○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동호회로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함
- 60세 이상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비율이 동호회 참여비율보다 약간 높음
- 고연령층의 주된 자원봉사 대상은 어린이와 노인들임
  · 어린이 대상: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 노인 대상: 노인복지회관의 문화예술교육 수강자들이 자신들보다 연령이 높은 경로당, 사회복지회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진행
- 동년배의 어려운 노인과의 공감, 지역 내 어린이들과의 마을의 기억과 공동체 만들기(전주시 '북-북 사례')처럼 공동체 회복에 효과적임
- 따라서 고연령층 자원봉사활동을 문화시설 내 동호회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성남시 사례에서 보듯이 풍물, 전통예술 동호회원은 대부분 60세 이상이며, 전북사례에서 보듯이 풍물, 전통예술은 농촌지역에서 활발함

81) 제2장의 제2절의 기술내용에 지역사례조사를 추가한 것임

- 60세 이상 연령층이 많이 활동하는 전통예술 및 풍물 동호회가 지역사회 문화행사에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성별: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활동이 모두 약간 낮음
○ 동호회원의 자원봉사에서는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전라북도, 성남시 사례조사 참조

○ 현재의 동호회원 가운데 남성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동호회 지원을 위한 조건에서 남성비율 할당제 실시 등을 검토

3) 지역별: 농촌에서는 역사/전통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 활성화, 수도권에서는 협의의 자원봉사 활성화[82)]

○ 농촌지역의 역사문화 동호회, 전통예술 동호회를 활용한 마을의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동호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수도권 지역에서 문화 동호회와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고 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표회)보다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취약계층 대상 멘토링, 문화예술교육 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4) 문화자본이 많은 계층: 협의의 자원봉사 참여

○ 상대적으로 동호회와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한 고학력층, 고소득층, 전문직 종사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Newtonian model of human behavior 이론에 따르면 문화향유 수준이 높은 이들은 관련활동을 할수록 더욱 활동적임
○ 이들이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라. 지역 단위별 특성화 모델개발

○ 동호회·자원봉사의 활동범위는 생활권역을 넘어서기 어려움

82) 지역 단위별 맞춤형 모델개발은 별도로 자세하게 기술함

○ 생활권역을 넘어서는 동호회와 봉사활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의 활동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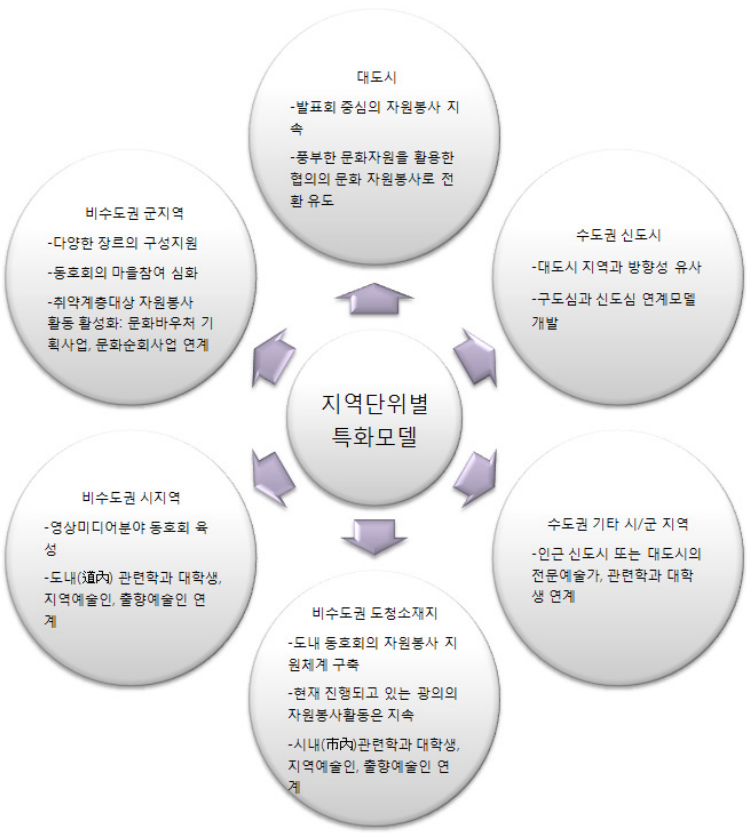
○ 생활권역은 대도시, 기초 시(市), 기초 군(郡)지역임

- 생활권역은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으로 이용가능한 지역임

○ 광역지자체의 관련 사업은 특별시·광역시와 도(道) 단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

○ 먼저 대도시 지역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업진행이 현실적임

- 서울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진행이 기초지자체와 거의 연관되어 있지 않고, 광역지자체가 하나의 생활 단위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직접적인 사업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그림 6-6]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개발

○ 반면에 도(道) 지역에서는 시/군별 사업 진행이 현실적임
-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관련 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시/군 단위 진행사업은 지역 문화시설(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센터)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상대적으로 문화 자원봉사가 활발함

○ 지역규모별 특성화는 ① 대도시형, ② 수도권 신도시, ③ 수도권 기타 시/군 지역, ④ 비수도권 중규모 시(市) 지역(도청 소재지), ⑤ 비수도권의 소규모 시지역, ⑥ 비수도권의 군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대도시 지역
- 현재처럼 발표회 중심의 자원봉사를 당분간 진행하되 참여가 저조한 마을 단위 행사의 참여도를 높임
- 문화자원을 갖춘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문가—학생—직장—일반 동호회의 협력을 통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로 전환 모색

○ 수도권 신도시
- 대도시 지역과 현황, 방향성이 유사함
- 대도시와 비교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계모델 개발하고, 구도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 수도권 기타 시/군지역
- 인근 신도시 또는 대도시의 전문예술가 또는 관련학과 대학생과의 연계 모델 개발
-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문화 순회사업과 연계

○ 비수도권 도청소재지
- 도내(道內) 동호회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의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수행
- 시내(市內) 관련학과 대학생, 예술인, 출향(出鄕)예술인들과 연계하여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의 시작

○ 비수도권 시(市)지역
- 시설 동호회뿐 아니라 개별 동호회를 파악하고 영상 미디어 분야의 동호회 육성
- 시내(市內)뿐 아니라 도내[(道內),관련학과 대학생 예술인, 출향(出鄕)예술인과 연계
-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으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문화 순회사업과 연계

○ 비수도권 군(郡)지역

- 다양한 장르의 동호회 구성 지원
-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동호회의 마을행사 참여를 심화하여 지역 공동체성 확보
-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도(道) 단위 관련학과 대학생, 예술인, 출향예술인과 연계하고, 문화바우처 기획산업, 문화 순회사업과 연계

〈표 6-2〉 지역 단위별 문화 동호회 및 문화 자원봉사 현황과 여건

		대도시	수도권		비수도권		
					시(市) 지역		군지역
			신도시	기타 시/군지역	중규모 도청소재지	소규모	
동호회 현황	기반	개별 〉 시설	개별 〉 시설	서설 ≥ 기반	개별 ≥ 시설	시설 〉 개별	시설 ≒ 개별
	장르	순수예술(o) 영상미디어(o)	순수예술(o) 영상미디어(o)	순수예술(o) 영상미디어(△)	순수예술(o) 영상미디어(△)	순수예술(o) 영상미디어(×)	역사문화, 풍물(o) 미술(×), 영상미디어(×)
	자원봉사	발표회(o) 취약계층(o) 마을행사(x)	발표회(o) 취약계층(o) 마을행사(△)	발표회(o) 취약계층(△) 마을행사(△)	발표회(o) 취약계층(△) 마을행사(△)	발표회(o) 취약계층(x) 마을행사(△)	발표회(o) 취약계층(x) 마을행사(o)
문화 자원	인력	20대 이하 중장년층 고학력 전문직 및 관련 대학생	20대 이하 중장년층 고학력 전문직 및 관련 대학생	20대 이하 고연령층	20대 이하 중장년층, 고연령층 관련 대학생	20대 이하 고연령층	20대 이하 고연령층
	전문가 연계	o	o	x	△	x	x

마. 문화예술 전문인력과 협력

○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동호회의 문화시설 업무지원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문화나눔임
- 동호회의 발표회 같은 광의의 자원봉사는 시간, 노력, 약간의 재능을 나누는 활동임
- 동호회의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같은 협의의 자원봉사는 시간, 노력, 재능나눔 활동임

○ 업무지원 이외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 예술인과의 협력이 필요함
- 동호회에 대한 강사 지원에서 강사(전문 예술인)는 동호회원들의 문화예술 기능의 확대를 가져옴
- 동호회의 발표회(광의의 자원봉사)를 전문 예술인과 함께 할 경우, 동호회원의 자존감과 관객의 호응도 제고
- 마을만들기 사업, 문화바우처의 기획사업, 문화 순회,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에서 전문 예술인과 공동작업을 할 경우, 동호회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혜자와 교감 확대를 꾀하고, 전문 예

술인은 수준있는 문화예술을 전수함으로써 효과 극대화
- 대도시, 수도권 신도시, 중규모 시지역에서는 관내 예술인과 협력
- 소도시, 농촌지역에서는 인근 (대)도시 거주 예술인, 출향(出鄕)예술인과 협력

바. 학교—직장 동호회 연계

1) 학교와의 협력체계

○ 지역 단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초등학교—대학교—직장의 동호회 활동과 연계가 필요함

○ 중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자원봉사 경험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교하여 가장 높음
- 하지만 대부분 입시(入試)를 위한 조건으로 문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음
- 지역축제, 문화시설에서의 단순한 시간봉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결과를 지역 단위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성남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동호회, 중고등학교 동호회가 공연 및 놀이 봉사를 실시하고 있음

○ 초중등학교의 예술동호회,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과정·결과로서의 동호회가 지역축제 등에서 일반 문화 동호회와 공동 발표회 실시
- 초중등학교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는 지역별 편차 없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함

○ 대학의 예술관련 학과·동호회는 일반 문화 동호회와 공동 발표회, 복지시설 대상 자원봉사의 공동 진행이 가능함

○ 대학의 예술관련 학과·동호회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27개 예술대학 학생(135명)이 28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예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 대학생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는 시(市) 이상 단위에서 가능하며, 지역 단위를 넘어설 수 있음

○ 방과후, 주말 등에 학교의 공간을 문화 동호회원들에게 개방하여 연습·발표 공간으로 제공할 경우, 학교는 자원봉사의 협력자가 될 수 있음

2) 직장과의 협력체계

○ 청장년층의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부족임
-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83] 시간부족으로 동호회 활동이 어렵다는 의견은 30대-50대에서 약 50%에 달함(30대 46.6%, 40대 51.9%, 50대 47.9%)
- 문화 자원봉사활동 역시 시간부족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청장년층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단위에서 문화 동호회 구성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성남시에서는 교통관리공단 색소폰 동호회(풀잎소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무료공연을,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자율학습밴드, LH공사 직장인 밴드가 2007년부터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있음

○ 직장인 동호회의 지역 단위 문화행사 참여는 직장과 연계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업의 나눔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나아가 대기업에서는 유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1사 1촌'처럼 소외지역의 문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83)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동호회 가입의 걸림돌과 관련된 문항이 없음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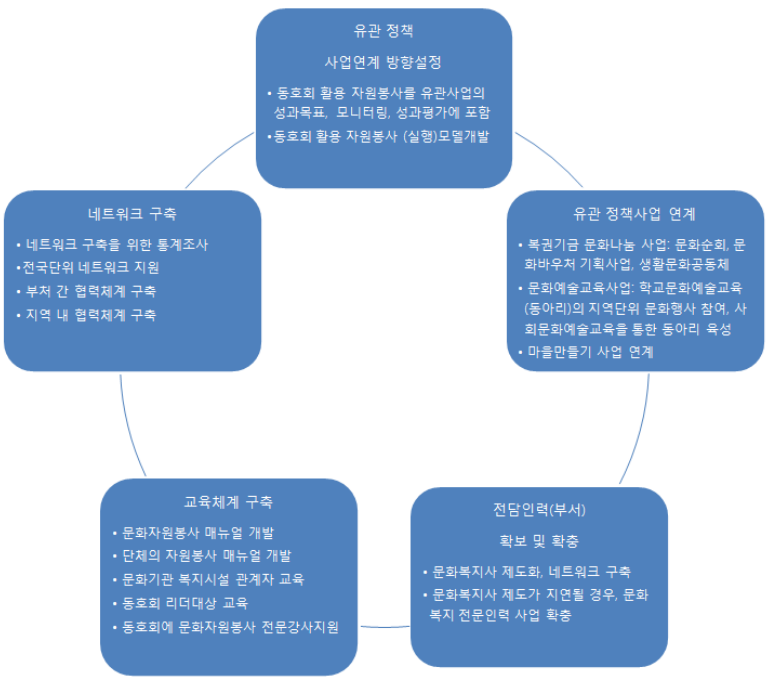
정책과제 제안

○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은 틀을 통해서 제시함

○ 먼저 간략히 사업방향을 설정한 다음,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적시(摘示)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방향과 내용을 기술함

○ 따라서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지자체는 도시규모에 따라 다름

– 대도시에서는 광역지자체를,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시/군)를 의미함



[그림 6-7]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

1. 유관 정책사업과 연계방향 설정

가. 사업방향

○ 단기적으로는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를 독립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유관 정책사업 내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임
- 동호회의 자원봉사를 기존의 정책 내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성 확보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위 문화복지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현황과 문제점

○ 문화 동호회와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문화복지정책,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재능나눔, 문화시설(프로그램) 운영정책 가운데 부분적으로 동호회 및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 관련 정책사업 내에서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중앙정부의 역할

1) 문화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를 유관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

○ 유관 정책사업에서 동호회 참여율, 동호회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성과목표의 하나로 제시함
○ 각종 문화예술 공모 사업자 선정기준에 동호회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을 포함시키고,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하여 공감대 확산
○ 동호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차년도(此年度) 사업에서 우선권 부여

2)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활동 모델 개발

○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합모델과 지역 단위 모델 개발
- 지역을 가장 세부적으로 나누면 ① 대도시, ② 수도권 신도시, ③ 수도권 기타 시/군, ④ 도청소재지 시(市)지역, ⑤ 시(市)지역, ⑥ 군(郡)지역임
-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① 대도시, 수도권 신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프로그램 개발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기준(5P)을 준용하는 게 바람직 함[84]

84) 류기형 외(2012), 위의 책, 208~210쪽 참조. 이 같은 모델은 신복기 외(2002), 「사회복지행정론」(파주: 양서원), 403~404쪽에서 제시됨

○ 첫째, 목표의 일관성(purpose)
- 앞서 제시한 정책사업의 목적—문화복지 주체의 다원화,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문화나눔의 확산,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개발

○ 둘째, 대상자의 적합성(person)
-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 vs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필요와 능력수준 고려

○ 셋째, 프로그램의 통합성(problem)
- 단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제반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

○ 넷째, 지속성과 네트워크(process)
- 일시적이 아닌 제도적 안정성을 지닌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기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다섯째, 지역성(place)
- 지역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선정에서 지역 특성 반영
-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해야 함

라. 지자체의 역할

1) 문화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를 유관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에서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를 성과목표, 지원단체 선정기준 등으로 설정

○ 전문인력이 관련사업에 대한 자세한 실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활동 실행모델 개발

○ 지역 단위에서 보면, 프로그램 개발의 5P(purpose, person, problem, process, plac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성(place)임

○ 전국 단위 통합모델, 지역 단위 모델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하지만 지역별 실행모델은 지역 단위 사업의 시행착오 등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개발해야 함
- 동호회 네트워크 담당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담당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실행모델 개발

2. 유관 정책과 연계사업 진행

가. 사업방향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와 관련 있는 기존 정책사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동호회를 활용한 자원봉사를 활성화

○ 유관 정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연계 미비

○ 대표적인 문화복지정책사업인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한정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음

○ 문화순회 사업
- 문화 소외지역,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은 전문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내 동호회와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의 진행단체(예술단체)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합성, 파급효과, 사업프로그램의 적합성, 사업수행 역량 등으로 구성됨
- 전문예술단체의 1회성 공연위주로 진행됨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가운데 지자체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사업임
- 지역의 문화 동호회들의 참여 여지(餘地)가 가장 많은 사업임
- 기획사업을 수행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대표적인 마을 단위의 공동체문화만들기 사업이지만 지역 내 아마추어 동호회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지 않음
- 현재의 대상지역 및 진행단체의 심의기준에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도', '지역 밀착성, 주민조직과의 연계성'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지역 내 동호회와 협력이 구체적으로 적시(摘示)되어 있지 않음
- 신규 동호회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기존 지역 내 동호회를 활용하

려는 시도가 미약함

2)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연계 미비

○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 '동아리'활동이 학교 내에 한정됨

○ 토요문화학교 가족 단위 참여자들의 동호회 구성이 미비함
- 가족 단위의 동호회 및 자원봉사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음
- 가족 단위의 동호회와 자원봉사는 상대적으로 활동의 지속성이 높음

○ 사회 문화예술교육 내에서 동아리 활동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음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서 동호회 구성이 사업의 성과목표로 제시되지 않음
-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표인 '동아리 양성화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자료가 생성되지 않음

3) 예술인 지원정책과의 갈등

○ 지역 단위에서는 아마추어 동호회 지원이 예술인 지원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전문예술인이 많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같은 경향이 있음
- 전라북도 사례에서 보듯이 시/군별로 네트워크 내 동호회 숫자를 늘리기위하여 전문예술인 동호회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시킴
- 지역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예술인 동호회와 아마추어 동호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도(道) 단위에서 예술인 지원보다 동호회 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여긴 예술인들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함
  · 전북예총의 한 소속 예술인은 "지역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누리고 향유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시민들의 문화향유에만 집중한 채, 문화예술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소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굶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아직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며 "도의 관심과 지원이 생활문화예술에 집중되다 보니 프로작가들도 아마추어로 전향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북도민일보, 2012년 9월 23일)

4) 지역문화정책(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미미

○ 지역의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예외적으로 성남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동호회 네트워크가 연계되고 있음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문화클럽 참여
- 재개발에 따른 도심 폐교를 생활예술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 교육청 및 성남시 교육지원청과 협의·추진 중임

5) 시설 기반 동호회와 협력 미비

○ 지자체 단위에서 동호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의 시설기반 동호회와 협력 미비

○ 지역의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자체 단위의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기도 함

>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뺏긴다는 생각이 있다. 자치센터는 원래 클럽이 아니고 교육생들이 장기간 되어 클럽을 만든 형태이기에 사랑방 클럽과 자치센터의 클럽은 좀 차이가 있다. 실력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져서 사랑방문화클럽으로 오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의 사업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000 성남문화재단)

다. 중앙정부의 역할

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연계

○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진행단체 심의기준에 '예술단체'와 지역 내 '동호회'의 협력을 포함시킴
- 지역 내 동호회가 없을 경우에는 동호회 구성을 심의기준으로 설정
-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동호회 구성 및 협력건수를 포함시킴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문화순회와 마찬가지로 대상 지역 및 수행단체 선정 시, 지역 내 동호회협력, 동호회 구성을 심의기준으로 제시

2)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과 연계

○ 초중등학교 문화예술 동아리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학교 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동아리'의 문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도
- 초중고생들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지역 축제에서 발표)에 참여할 경우, 봉사활동 인증시간에 연습(준비)시간까지 포함하는 조치 마련

○ 토요문화학교와 자원봉사 연계: 가족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토요문화학교 참석자들이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간 등을 지원
- 가족 단위 동호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봉사자들의 가족문화 형성

○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동호회의 연계사업
- 복지시설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예술 강사들과 지역 내 문화 동호회의 공동수업 진행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수강생들의 문화 동호회 구성을 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동아리 양성화 및 활성화'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라. 지자체의 역할

1)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의 진행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인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지역 내의 예술단체와 문화 동호회임

○ 기획사업을 이원화(二元化)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는 문화 동호회 네트워크에서 전담하는 방식 도입

2)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획심사 과정에서 동호회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

○ 문화시설별로 이루어지는 마을 단위 축제에서 동호회(네트워크)의 참여 유도

○ 지역 내 전문예술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 예술단체와 동호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3. 전담 인력(부서)의 확보 및 확충

가. 사업방향

○ 지역 단위에서 문화 동호회와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전담인력 확보
○ 전담인력은 지역 문화자원(동호회)을 최적(最適)의 자원봉사 수요처로 연계하는 역할,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함

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문화 동호회, 자원봉사를 매개하는 전담 인력은 전라북도와 성남시 정도에서만 활동 중임
  -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코디네이터가 1명씩 활동 중임
  -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직원들이 업무의 일부(一部)로 '사랑방문화클럽' 담당
○ 전라북도에서 동호회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했던 것은 시/군별로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코디네이터 1명이 동호회 127개, 동호회원 2,300명에 대한 행정지원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까지 담당하고 있음
  - 전담인력의 확충이 없다면 프로그램 개발 등은 어려움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의 주요 성공요인은 가운데 하나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임
  - 하지만 사랑방문화클럽뿐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도 수행하여 전담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문화클럽과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계사업도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다. 중앙정부의 역할

○ 문화복지사의 제도화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관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문화복지사의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의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기초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재정 지원이 필요함
  -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지역 단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별시설에서 근무하기보다 문화재단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청 등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근무가 적합함
· 문화재단이 없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문화사업의 경험이 많은 문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개인력(문화복지사이든,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든)의 동호회와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 실시

○ 매개인력의 즉각적인 실무 능력을 위해서 관련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

라. 지자체의 역할

○ 문화복지사가 제도화된다면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문화복지사들의 네트워크 형성

○ 문화복지사의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전라북도, 성남시처럼 지자체 예산 투입
- 초기에는 전라북도의 코디네이터처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호회와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확보
- 지자체별로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인력 규모 산출
- 관련인력이 시/군청에 근무할 경우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특정한 문화시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NGO 같은 단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 지정
- 성남시 사례처럼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업무 담당
- 문화재단이 없는 곳에서는 지역 내 문화기관 가운데 1개를 지역 생활문화 거점으로 지정

4. 교육체계 구축

가. 사업방향

○ 자기 지향적 동호회 활동을 타자 지향적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문화나눔에 대한 인식제고임

○ 동호회원들이 문화 자원봉사의 이념,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교육 제공

나. 현황과 문제점

○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는 2004년 이후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이 중단됨
- 2011년에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례를 보면, 2003년/2004년 교육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2003년 교육을 실시한 강릉시의 경우, 당시 피교육자들이 동호회를 결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시도하고 있음
-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장기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교육의 재개가 요구됨

○ 지역 단위에서도 동호회원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이 실시되지 않음
- 전라북도 네트워크에서는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않고 있음
- 성남시에서는 문화공헌(협의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또한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문화영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인식함

  "문화 자원봉사자들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은 편이에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연자 이전에 봉사자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000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다.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매뉴얼 개발
- 문화 자원봉사는 문화 감수성 증진, 문화의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 등 문화복지와 연관되므로 일반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교육이 필요함
-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복지 매개인력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진행

○ 둘째, 동호회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행 매뉴얼 개발
-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은 현재까지 개인 단위의 문화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었음
- 개인 단위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문화 동호회(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실제 매뉴얼 개발
- 동호회 활용 문화 자원봉사의 의미, 동호회원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 동호회원들 간의 갈등 극복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동호회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호회와 자원봉사의 연계는 동호회활동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셋째, 문화기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관계자, 매개인력 대상 교육 실시
- 2003년/2004년과 달리 중앙정부의 교육 대상은 문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기관(시설)의 운영자·담당자와 매개인력에 한정함
- 개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지자체에서 담당

라. 지자체의 역할

○ 1차적으로는 개별 동호회원 대상이 아니라 동호회 리더 대상 교육 실시
-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교육 매뉴얼을 중심으로 동호회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동호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가장 큰 변수는 동호회 리더의 의지와 역할임
-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받은 문화기관 운영자·담당자, 문화 매개인력이 동호회 리더 대상 교육의 멘토로 참여

○ 동호회 네트워크의 강사지원에서 문화 자원봉사 전문강사 지원을 포함시킴
- 동호회 네트워크 회원들의 자원봉사 피교육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5. 네트워크 구축

가. 사업방향

○ 네트워크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짐

○ 첫 번째는 전국적인 단위의 동호회,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임
- 동호회 네트워크와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두 네트워크가 사업 단위에서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호회의 모든 활동이 자원봉사로 결합될 수 없으며, 문화 자원봉사가 반드시 동호회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 동호회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두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 문화시설, 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학교, 직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임

나. 현황과 문제점

○ 전라북도와 성남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호회와 자원봉사 연계의 첫 번째 조건은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임
- 동호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지역 단위에서 총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함
- 하지만 현재 지역 단위에서는 활동 중인 동호회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 2003/2004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의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이 중단된 이후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
-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됨

○ 지역 단위에서 문화 동호회의 자원봉사는 개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동호회의 자원봉사는 지역 단위의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임
- 따라서 지역의 문화복지,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문화시설, 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학교, 직장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다. 중앙정부의 역할

1) 동호회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의 네트워크는 지역 단위에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음

○ 다만 지자체 단위에서 네트워크 구축 용이성을 위해서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자체 단위에서는 문화 동호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동호회 실태조사 실시
- 동호회 실태조사의 유일한 방법은 눈덩이 표집(snow balling sampling)밖에 없음
- 문화 동호회 관련조사는 1990년 「문화소집단 조사연구」(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유일함
- 전국 단위의 조사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임

○ 문화 동호회를 생활체육협회 같은 형식으로 표준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동호회는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라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기준을 통해 행정부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동호회의 자발성을 침해하게 됨
- 지역 단위의 특성에 맞추어 느슨한 기준을 통하여 동호회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적합함

○ 문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VMS의 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별 문화 자원봉사 활동 현황 파악
- 동호회별 문화 자원봉사 활동 현황 파악

○ 문화 자원봉사단체의 경우에도 동호회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서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 파악 정도에 머물러야 함

○ 문화 동호회, 문화 자원봉사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전국 단위의 협회 등을 구성하고, 협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지원 실시

○ 전국 단위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지자체에서 동호회 네트워크,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매뉴얼 개발, 정보제공의 역할 담당
- 이것이 영국의 VAN(Voluntary Arts Network)에서 수행하는 기능임
- 덧붙여 성남시에 2012년 실시한 '전국 시민문화클럽 한마당'(11개 지역의 19개 클럽 참여) 같은 전국적인 축제를 지원할 수 있음

2) 부처 간 협력체계

○ 문화 자원봉사 인증을 기존의 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VMS)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문화 자원봉사를 별도의 범주로 만들고 관련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MOU 체결

○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과의 연계는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마다 다르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별 협력방향이 제시되어야 지역별 협력이 효과적임

라. 지자체의 역할

1) 동호회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호회들의 네트워크, 자원봉사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함
-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동호회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

-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네트워크 가입 동호회의 장르, 회원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함

○ 기초지자체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고
- 각종 공모사업의 진행단체 선정기준에 네트워크 소속 동호회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

2)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공공(문화)시설과 네트워크

○ 지역 단위의 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이 강화되면 공공시설의 동호회와 경쟁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동호회 네트워크에 지원(강사료, 공간)이 많아지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기반한 동호회들이 동호회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전하게 됨

○ 공공(문화)시설 동호회는 네트워크에 가입하되, 1차적으로는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단위 네트워크에서는 시설기반 동호회에 자원봉사 교육강사 지원
- 지역 단위 네트워크에서는 시설기반 동호회원들의 자원봉사 인증 절차의 대행 등의 업무 수행

○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네트워크 내로 편입시키는 일이 필요함
- 성남시에는 6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사랑방'으로 등록되어 있음
- 이 같은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시설 기반 동호회의 네트워크 가입 유도

○ 개별 동호회와 시설기반 동호회가 지역 단위의 정책에서 공동참여
- 지역의 시민축제, 마을만들기 등에서 공동참여

② 자원봉사센터와 협력

○ 각급 자원봉사센터에서 문화 자원봉사의 위치는 지역별로 상당히 다름
-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가 가장 발달한 성남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반면에 강릉시, 군포시 등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함

○ 시/군 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利點)이 있음
- 문화 동호회가 단체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양적(量的) 확대
- 기존의 시설중심의 자원봉사를 넘어서 문화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함
- 자원봉사센터에서 문화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일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호회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
- 문화 자원봉사 수요층의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시/군 단위의 협력모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임

③ 복지시설과의 협력

○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교육의 상당수가 문화예술과 관련됨
- 앞서 제시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동호회 구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 동호회의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을 기능위주의 교육에서 공감교육으로 전환

○ 복지시설과 동호회의 일대일 결연(結緣)
- 취약계층 대상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확보
- 복지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복지시설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도 문화적 공감대 확보

○ 복지시설의 공간을 문화 동호회의 발표 및 연습공간으로 제공
- 복지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문화 동호회의 발표공간으로 활용(성남시 사례 참조)

○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시/군 단위의 협력모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임

제3절

정부 단위별 역할 및 관리체계

1.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단위별 역할

○ 2절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단위별 역할을 정리하면 〈표 6-3〉과 같음

○ 중앙정부에서는 기초연구·통계조사를 토대로 추진방향 설정, 추진 모델개발, 제도화(문화복지사 같은 인력 양성, 협력 및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함

○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방향, 모델, 제도화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해야 함
-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지자체는 도시규모에 따라 다름
- 대도시 지역은 광역지자체를, 다른 지역은 기초지자체(시/군)를 가리킴

〈표 6-3〉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비교

정책과제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사업 연계의 방향설정	ㅇ 단기적으로 유관 정책 공모사업의 성과목표에 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키고, 공모단체 선정기준으로 활용 - 유관 정책사업의 모니터링, 평가기준으로 동호회 참여율, 동호회의 자원봉사 참여율 포함 ㅇ 중장기적으로 동호회 참여 정책사업의 효과성 연구 ㅇ 동호회 활용 자원봉사활동 모델개발 - 지역 단위 모델(대도시, 수도권 신도시, 비수도권 도청소재지, 비수도권 시지역, 군지역)	ㅇ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모델을 근거로 지역별 실행모델 개발(전문인력의 역할임) ㅇ 전문인력이 관련사업에 대한 자세한 실행 보고서 작성
유관 문화정책과 연계	ㅇ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연계 - 소외계층 문화순회에 동호회 참여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에 동호회 참여 ㅇ 문화예술교육사업 연계	ㅇ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연계 - '찾아가는 서비스'는 동호회에서 담당 ㅇ 마을만들기사업 연계 -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동호회 참여

정책과제	중앙정부	지자체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동아리가 지역 단위 문화행사 참여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동호회 육성	제시
전담 인력(부서)의 확보 및 확충	ㅇ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ㅇ 문화복지사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문화복지 전문인력확대 ㅇ 매개인력 관련 교육실시	ㅇ 문화복지사 제도화되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ㅇ 문화복지사 제도가 지연되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특정문화기관이 아닌 문화재단, NGO에서 근무 ㅇ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문화예술관련 별도의 기관 지정
문화 자원봉사관련 교육체계 마련	ㅇ 문화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개인이 아닌 단체(동호회)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문화기관(시설),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ㅇ 1차적으로는 동호회 리더대상 교육 실시 ㅇ 동호회 네트워크에 문화 자원봉사 전문강사 지원
네트워크 구축	ㅇ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계조사 지원 ㅇ 표준화된 등록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ㅇ 전국 단위 네트워크 지원 – 네트워크에서는 영국사례처럼 매뉴얼 개발, 정보제공 ㅇ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인증제도 관련하여 문화 자원봉사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여 관련 통계생산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 마련	ㅇ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호회, 네트워크 현황파악 – 지역별로 가입동호회 자격은 다를 수 있음 – 네트워크의 지자체 사업 참여여건 제공(공모사업 진행 시, 네트워크 연계) ㅇ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 문화시설과 협력 –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가입유도 – 시설동호회의 독자성 보장 – 자원봉사센터 협력 – 복지시설 협력(동호회와 시설의 일대일 결연, 복지시설의 공간활용)

2. 문화동호회 활용 자원봉사의 관리체계

○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일반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에 맞추어 살펴보면 〈표 6-4〉와 같음

– 일반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는 참여자 모집 → 교육 훈련 → 배치 → 지도 감독 및 평가 → 인정 및 보상의 순서로 이루어짐

- 동호회의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지도 감독 및 평가' 대신에 '프로그램 기획', '네트워크 구성'이 포함될 수 있음

○ 일반적인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동호회의 문화 자원봉사에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음

- 문화 자원봉사는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습'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인 단위의 봉사활동에 비하여 단체(동호회)의 자원봉사는 인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원의 원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무대가성(無對價性)을 존중하지만, 문화 자원봉사를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기자재, 강사비를 지원하고, 기자재 운반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6-4〉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	중앙정부	지자체
기획	ㅇ 기초연구 ㅇ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연구	ㅇ 지자체별 실행 모델개발
네트워크	ㅇ 동호회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지원 –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실태조사 지원	ㅇ 동호회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문화시설,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과 네트워크 구축
모집 및 배치		ㅇ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활용 ㅇ 문화시설/자원봉사센터/복지시설과 연계
교육 훈련	ㅇ 문화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개인이 아닌 단체(동호회)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 ㅇ 문화기관(시설),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ㅇ 동호회 리더대상 교육 실시 ㅇ 동호회 네트워크에 문화 자원봉사 전문 강사 지원
인정 및 보상	ㅇ 자원봉사센터, VMS 인증체계 활용, 관련 통계자료 공유 ㅇ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습시간 등을 자원봉사 시간에 포함 ㅇ 단체의 자원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참여보다 탄력적 시간인증 ㅇ 문화 자원봉사활동 우수 동호회 수상(受賞)	ㅇ 자원봉사센터 등록대행 ㅇ 공간, 기자재, 강사비, 교통수단 지원 ㅇ 지자체 문화행사 무료초대

참고문헌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2011), 「2011 강릉 문화 자원봉사 포럼」
강윤주 외(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군포문화센터(2011), 「2011 군포 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포럼」
김경동(2012), 「자발적 복지사회: 미래지향적 자원봉사와 나눔의 사회학」(홍천: 아르케)
김세훈 외(2008),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지혜 외(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권 2호
김혜주 외(2009), "국내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1호
류기형 외(2012), 「자원봉사론」(파주: 양서원)
문화체육관광부(2009), 「노인의 문화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09), 「여가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각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년도
박성봉(2011). 「멀티미디어 시대 대중예술과 예술무정부주의」(서울: 일빛)
박세경(2010), "미국 국가봉사단 AmeriCorps의 활동 현황," 「보건복지포럼」 2010년 11월
박소현 (2011),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현미 외(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오퀴스맹 지라(1974), 「문화 발전: 경험과 발전」, 李恒洪在星 옮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윤소영(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종인(2011),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성남: 북코리아)
이중한·정갑영(2003), 「국민 창의력을 위한 문화봉사」(서울: 현암사)
정갑영 외(1997), 「문화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갑영 외(2002),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조명덕(2011), “미국의 자원봉사 참여 스타일의 변화,”「현상과인식」2011년 겨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예술나눔 선생님 마음나눔 선생님」

일본 총무성 통계국(2011),「사회생활기본조사」

American for the Arts(2010), National Arts Index– An Annual Measure of the Vital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U.S. 1998~2009

Arts Council England East Midlands & English Heritage(2009), Cultural Volunteering in the East Midland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Arts Council England(2008),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rts Council England, English Heritage, Sport England (2012), Taking Part Survey (2012/13 Quarter 1)–Statistical Release

Gibnas, Nina Freedlander(1982), The Community Arts Council Movement: History, Opinions, Issues, Praeger.

Godbey, Geoffrey & John, Robinson(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Kuyper, Joan(1987), “Cultural Volunteer Program: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Where Does Your Organization Fit?”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7(2)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06), The Arts and Civic Engagement: Involved in Arts, Involved in Life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문화재단(www.ggct.or.kr)
나눔포털(www.1365.go.kr)
문화복덕방(culture.seoul.or.kr)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서울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sfac.artskorea.or.kr)
성남문화재단(www.snart.or.kr)

일본 문화청 문화자원봉사 관련(http://www.bunka.go.jp/volunteer)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区) 세타가야(世田谷)미술관 토모노카이
(http://setabi-tomonokai.jp)
일본 기후현(岐阜県)가니시(可児市) 문화창조센터 'ala 크루즈' 프로그램
(http://www.kpac.or.jp/alacrews)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 NPO 법인 '토비우메노카이'(とびうめの会)
(http://www.geocities.jp/tobiume_vdesk/syoukai.html)
Volunteering and Civic Life in American(2010), Volunteering in America 2010
(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index.cfm)
Walker Art Center(2005), Art and Civic Engagement: Mapping the Connection Workbook
(http://www.walkerart.org/education-community-programs/art-and-civic-engagement)

ABSTRACT

Promotion of Cultural Volunteerism and Culture Club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government polices to promote cultural volunteerism by encouraging members of culture clubs to volunteer.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looked into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polices related to cultural volunteerism and culture clubs. In addition,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some members of the culture clubs, some cultural volunteers, and a few managers of the cultural centers in two local area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no governmental polices to support cultural volunteerism. It also found that most cultural volunteers tended to find the volunteering opportunity individually, and that they have rarely tied to find cultural volunteer opportunities by a group, nor by a culture club. However, we found if the members of culture clubs have participated in cultural volunteering, their volunteering could have been more sustainable than the individual volunteering.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police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clarify the purpose of cultural volunteerism, which is to attain voluntary willingness to accomplish cultural welfare.

Second, the managerial system of cultural volunteerism needs to be subsumed under the established volunteer management system, so called,

the Volunteer Centers and VMS(volunteerism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tatistics of cultural volunteerism distinguished from the statistics of the general volunteerism.

Third, the promotion of cultural volunteerism and culture clubs should be linked to those policies of cultural welfare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to the local governments' culture policies.

Forth, the ways to support for cultural volunteerism and culture club sh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ize of the local area – metropolitan cities, middle or small sized cities, and rural areas.

Lastly, in order to encourage the members of culture clubs to participate in cultural volunteering, some manageri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it would be better to have more generous requirements to get the certificate of cultural volunteer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s for them to volunteer, such as places and equipments for cultural activities, transportation vehicles.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조 현 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 현 서(아주대 스포츠레저학과 대우 조교수)

장 세 길(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김 현 희(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발 행 인 박 광 무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2년 12월

발 행 일 2012년 12월

인 쇄 인 크리홍보(주)

ISBN : 978-89-6035-397-8 93300